



연구보고서 24-19

#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최인아  
김경훈  
배기현  
이재호  
김소은

#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최인아 · 김경훈 · 배기현 · 이재호 · 김소은

연구보고서 24-19

##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인쇄 2024년 12월 24일  
발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일지사(02-503-6971)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918-9 94320  
978-89-322-1072-8(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 국문요약

주요국 간에 아세안을 둘러싼 협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플러스 원 (ASEAN Plus One, 이하 아세안+1)’ 협력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 호주와 중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맺은 데 이어, 2022년에는 미국과 인도, 2023년에는 일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했다. 한국도 2024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였다. 미·중 경쟁으로 인해 ‘아세안 중심성’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아세안은 ‘아세안+1 메커니즘’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관여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주요국의 CSP 추진 현황과 협력 방식,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해,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아세안이 한국과 같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메커니즘이 아세안의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다루고자 하는지 논의하고, 해당 공동목표가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 지침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협력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며, 교섭 형식에서도 아세안이 정한 프로토콜을 반영한다. 협력의 효율뿐 아니라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 다자 협의체보다 아세안+1 메커니즘을 최우선으로 두며, 특정 대화상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계의 동적 평형을 관계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주도의 역내 다자주의뿐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의 CSP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세안은 특정 대화상대국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을 대화상대국과의 외교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직접 만든 절차적·내용적 원칙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규범 꾸러미로 만들고, 이를 수용할 것을 대화상대국에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대외관계 협력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중심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집단적 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주요 5개국이 ‘아세안+1’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5개국의 협력 방식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호주는 대규모의 자원 투입보다는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 분야별 또한 광범위한 협력보다는 특정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앞세워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안보 갈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연계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되 ‘질 좋은 인프라’ 가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국과 미국, 호주의 협력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되 중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세안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만한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과 호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는 데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큰 틀에서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세안의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며 한국이 잘 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협력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경향을 보인다. 분야의 범용성과 유연성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만한 시그니처 협력 분야와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대화상대국이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은 일본(27.9%), 호주(17.8%), 미국(16.2%), 중국(10.3%), 한국(9.0%)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에서 미·중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며 오랜 협력 기반을 다져온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들 국가에 이어 5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 위상을 지니면서도

한국보다 재원 투입이 적은 호주와의 격차가 큰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주변국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호주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을 평가한 결과, 경제협력 관련 응답이 과반(54.3%)을 차지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해, 정치·안보 파트너로서 신뢰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역 및 투자(19.6%), 문화(15.4%), 과학, 기술 및 혁신(15.2%), 교육 및 역량 강화(15.0%), ICT 및 디지털 경제(14.7%)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러한 분야들은 실제로 한국이 아세안과 증점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로, 각각 한국의 경제협력, 문화적 소프트파워, 기술·혁신력,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 디지털 전환 지원이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2~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식의 개선점을 식별하고 CSP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아세안 사무국 외교를 강화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기 3개국이 협력사업 발굴에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물론 한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도 아세안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실리성과 편의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협력의 주체로서 충분히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세안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주제 선정과 사업 발굴에 있어 아세안 사무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이행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무국과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간 이해에 부합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협력 의제 설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OA 2026-2030) 또한 다분야에서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는, 아세안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하에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를 체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에 걸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시그니처 협력 분야를 설정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한 아세안 측의 기대가 높고 한국이 기술적·정책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과학·기술, 문화, 사이버안보 등이 유망 분야로 주목된다. 아울러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아직 다른 대화상대국이 선점하지 못한 틈새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등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 강화를 지원해, 아세안의 통합적인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CSP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화상대국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담의 성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및 실무 정례 협의체를 강화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전략적 차원에서 아세안 3대 공동체 중 한국의 협력과 존재감이 가장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동안 활발히 협력해온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중심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5

    1. 연구 배경과 목적 ..... 16

    2. 연구 범위와 방법 ..... 20

    3. 연구 구성과 한계 ..... 22

**제2장 아세안의 대외관계 기조와 작동 방식: 대화상대국 관계를 중심으로** · 25

    1.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와 대외관계 기조 ..... 26

        가. 비대칭적 국제 지역 질서와 아세안 회원국 공통의 구조적 불안 ..... 26

        나. 동남아 역내 구조적 제약과 아세안 회원국 간 공동목표:  
            자율성과 중심성 ..... 29

    2.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 ..... 32

        가. 아세안 중심성을 위한 범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수립 ..... 33

        나. 아세안 중심성을 위한 비배타성 · 개방성 추구 ..... 44

        다. 아세안 자율성을 위한 로컬 외교규범 마련 ..... 48

    3. 소결 및 함의 ..... 53

**제3장 아세안과 CSP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 분석** ..... 57

    1. 아세안의 협력 수요 ..... 58

    2. CSP 국가들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과 특징 ..... 72

        가. 미국 ..... 72

        나. 중국 ..... 87

        다. 일본 ..... 101

라. 호주 .....	113
마. 한국 .....	126
3. 소결: 주요국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 평가 .....	142
<b>제4장 아세안의 대화관계 인식과 한-아세안 관계 평가 .....</b>	<b>147</b>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	148
가.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	148
나.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	150
2. 설문조사 결과 .....	153
가. 대화상대국의 역할 인식 및 평가 .....	153
나. 한-아세안 관계 평가 및 기대 .....	166
3. 소결: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함의 .....	181
<b>제5장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b>	<b>187</b>
1.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	188
2.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194
가. 아세안 중심의 협력 방식 강화 .....	194
나. 대아세안 협력의 체계성 및 차별성 강화 .....	196
다.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	200
<b>참고문헌 .....</b>	<b>204</b>
<b>부록 .....</b>	<b>225</b>
<b>Executive Summary .....</b>	<b>238</b>



## 표 차례

표 1-1.	아세안의 대화상대국(2024년 10월 기준) .....	21
표 2-1.	아세안 협력에 관한 주요 가이드라인 문서 .....	34
표 2-2.	아세안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ies) 주요 문서 .....	36
표 3-1.	아세안 협약 IV의 3대 축별 추진과제 .....	59
표 3-2.	제44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협력 의제 .....	61
표 3-3.	제44~45차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선언문 요약 .....	63
표 3-4.	아세안 탄소중립 전략의 8대 전략별 핵심 이니셔티브 .....	68
표 3-5.	중국에서 개최된 ADMM+ 회의 주제 .....	96
표 3-6.	CSP 격상 시기 일본의 대아세안 주요 협력 정책 동향 .....	110
표 3-7.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8대 중점 추진과제 .....	128
표 3-8.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주요 협력 내용 ·	129
표 3-9.	AKCF 이행 사업 현황(2023년 기준) .....	131
표 4-1.	설문조사 개요 .....	151
표 4-2.	설문조사 주요 내용 .....	152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아세안-CSP 대화상대국 협력 개괄 .....	226
-------	---------------------------	-----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 .....	24
그림 2-1. 아세안 주도 협의체 .....	45
그림 4-1. 응답자 특성 .....	153
그림 4-2. 아세안으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을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 (3개 선택) .....	154
그림 4-3. 아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3개 선택) .....	156
그림 4-4.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3개 선택) .....	157
그림 4-5. (그림 4-4 문항에 이어)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가장 잘하는 대화상대국(가장 중요하다고 선정한 3대 이슈별로 3개국 선택) .....	158
그림 4-6.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긴급한 지역 현안(3개 선택) .....	159
그림 4-7. (그림 4-6 문항에 이어)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가장 잘하는 대화상대국(가장 긴급한 3대 현안별로 3개국 선택) .....	160
그림 4-8. AOIP 이행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	162
그림 4-9. 인도-태평양 담론에 대한 접근·대응이 AOIP와 가장 유사한 국가(3개국 선택) .....	165
그림 4-10.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최대 5개국 선택) .....	166
그림 4-11.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와 협력의 효과성 .....	167
그림 4-12.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최대 3개 선택) .....	168
그림 4-13.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취약점(최대 3개 선택) .....	170
그림 4-14.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여부 .....	171
그림 4-15.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요인(최대 3개 선택) .....	172

그림 4-16. 한국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 .....	173
그림 4-17.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이유(최대 3개 선택) .....	175
그림 4-18. 한국의 대아세안 FDI와 무역 규모에 대한 인식 .....	176
그림 4-19. 한국의 대아세안 ODA 규모에 대한 인식 .....	177
그림 4-20.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최대 5개 선택) .....	179
그림 4-21. 한-아세안 협력 강화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최대 3개 선택) .....	180



##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아세안 현장 내 ‘아세안 방식’ .....	50
----------------------------------	----

# 제1장



#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 1. 연구 배경과 목적

미·중 경쟁 심화로 ‘아세안 중심성’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sup>1)</sup> 아세안을 둘러싼 주요국의 협력 경쟁은 심화되는 추세이다. 호주와 중국은 2021년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었으며, 2022년에는 미국과 인도가, 2023년에는 일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였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단계이다.<sup>2)</sup> 이 국가들은 CSP 격상을 계기로 기존의 대아세안 협력 사업을 재정비하는 한편, 아세안의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협력을 약속하였다. 한국 역시 2024년 10월 대화관계수립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 CSP를 맺고, 이에 걸맞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창설 이래 강대국이 주도하는 지역 질서 재편에 순응하기보다는, 아세안 회원국에 유리한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흔히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곤 한다. 2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이 동남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국을 한데 모으는 회합력(convening power)을 발휘해 지역 다자협력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sup>3)</sup> 이처럼 중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이 강대국과 역내 주요국을 끌어들이며, 동남아 지역과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의 발전을 논하는 외교의 장(場)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세안 특유의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 메커니즘이 자리한다.

아세안은 비아세안 국가와 대화관계를 맺는 아세안 플러스 원(ASEAN Plus One, 이하 아세안+1)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1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대화상대국에 아세안이 만든 지역 외교규범을 사회화하는 동시

---

1) Beeson(2022).

2) 기존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단계였으나, 중국과 호주의 요청으로 한 단계 높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Seth and Seah 2021).

3) Acharya(2017); Caballero-Anthony(2014); Tan(2017).

에,<sup>4)</sup> 회원국 공동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왔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발전하면서 아세안+1 메커니즘은 아세안+3, 아세안+8 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대화관계 메커니즘으로 확장되었다.<sup>5)</sup> 비대화상대국까지 아우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포함해, 이러한 다층적 대화관계 메커니즘은 지역 외교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이 펼쳐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약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이 주요 강대국과 중견국이 참여하는 외교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다자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로 평가받는다.<sup>6)</sup>

그러나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지역 다자협력의 중심에 섰던 아세안의 입지도 위축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ARF, 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등의 다자협의체가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도모하는 외교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의도를 문제 삼아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sup>7)</sup> ‘인도-태평양’의 부상은 오랫동안 ‘아시아-태평양’ 다자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아세안의 대외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쿼드(Quad)와 오키스(AUKUS) 같은 소다자협의체 출현 또한 지역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접근 방식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협의체의 발전은 아세안이 더 이상 동남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지역 의제를 주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쿼드와 오키스가

---

4) 아세안이 고안한 지역 규범은 2장의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5) 아세안+3는 ASEAN Plus Three(한·중·일), 아세안+8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EAS에 참여하는 비아세안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8개국이다.

6) “ASEAN centrality: use it or lose it”(2024. 8.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8. 13.).

7) Ghosh(2023. 5. 3.), “The “Indo-Pacific” is here. Yet “Asia-Pacific” lives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8. 13.).

지닌 배타성은 아세안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비배타적이고 개방적인 대외전략  
과도 상충된다.

2019년 아세안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의 전  
략이었다. 아세안은 AOIP를 통해 인도-태평양은 전략 경쟁의 장이 아닌 협력  
의 공간임을 천명하고, 아세안이 기존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통  
해 인도-태평양의 포용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AOIP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재편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잃지 않겠다는 아  
세안의 의지를 담고 있다. 당초 AOIP는 상징적 선언문에 불과했으나, 아세안  
이 AOIP 주류화를 추진하면서 주요 대화상대국들도 AOIP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내고 AOIP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다.

아세안은 이러한 ‘다자 차원’에서의 노력에 더해,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  
기 위한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같은 아세안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대화상  
대국이 아세안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공  
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의 재원이 상당 부분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조달되더라도,  
협력사업의 결정권은 아세안 회원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  
세안은 역내 협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개발 및 재원 조달을 위해 아세안  
+1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간에 협력 경쟁을 유  
도함으로써,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역내  
협력에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대화상대국  
들과의 CSP 격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 유지를 위해 아세안 주도 다자협의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아세안+1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관여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지정학적·경제적

---

8) ASEAN(2019. 6. 23.),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8. 19.).

가치에 더해, 세계 질서의 블록화 속에서 부동(swing) 연합체로 간주되는 아세안의 환심을 얻기 위한 주요국의 협력 경쟁도 아세안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특히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동남아는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해왔다.

아세안은 한국에도 중요한 파트너이다. 2023년 기준 동남아는 한국의 제2의 교역·투자 대상지이자, 대중 교역 의존도를 낮출 주요 협력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핵심 파트너이다. 한국정부도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추진 중이다. 한-아세안 CSP 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대외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간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논의들은 ‘지역 다자협력’ 차원의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 왔다.<sup>9)</sup> 반면 아세안이 포괄적인 대외 전략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성 유지’를 위해 대화상대국과 어떻게 교섭하고 협력하는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아세안-대화상대국 관계를 분석하는 정책 연구는 상당수 추진되었으나, 주요국의 대아세안 전략과 협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sup>10)</sup> 아세안이 어떠한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대화상대국이 이러한 아세안의 전략에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세안이 대화상대국의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전략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화상대국의 대아세안 협력을 비교 분석하여, 한-아세안 관계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

---

9) 김석수(2014); 이재현(2022); 이신화, 이양호(2017); 변창구(2015).

10) 강택구 외(2020); 오윤아 외(2017); 유기은(2022); 최인아 외(2020); 최인아 외(2022); 최정환(2023).

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관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아세안-대화상대국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아세안 내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관계 및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한-아세안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아세안 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보고서는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비교 연구 및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측의 인식을 분석해, 한-아세안 CSP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아세안’은 단순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칭하는 것이 아닌, ‘지역연합체’로서의 아세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전략은 동남아 개별국 외교의 총합이 아닌, 아세안 회원국 공통의 목표가 수렴되어 아세안이라는 지역연합체로 발현되는 외교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아세안’ 협력을 언급할 때, 지역연합체로서의 아세안과 개별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협력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언급하는 ‘대아세안’ 협력은 ‘지역연합체’ 그 자체, 또는 ‘지역연합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아세안 역내 협력’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협력을 의미한다.<sup>11)</sup> 한편 ‘아세안’을 지역 개념의 ‘동남아’와 혼용해 사용하는 연구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연합체’로서의 아세안을 의미할 때만 ‘아세안’을 사용

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개별 양자 ODA 사업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화상대국과 아세안 간의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사업들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다만 개별국에 대한 역내 교역과 투자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긴밀히 연계되는 만큼, 무역·투자의 경우 개별국의 총합을 대아세안 협력으로 간주하였다. 아세안-대화상대국 공동성명에서도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무역·투자 총합을 대아세안 협력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하고 지역 개념을 지칭할 때는 ‘동남아’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세안은 총 11개국과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맺고 있으며, 8개국과는 부분 대화상대국 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를, 6개국과는 개발 동반자 관계(Development Partnership)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대화상대국의 대아세안 협력 비교 분석(3장)은 이미 CSP를 수립한 6개국 중 대아세안 협력을 활발히 추진 중인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한국으로 한정한다.<sup>12)</sup> 사례 연구를 이 5개국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CSP 수립 자체가 아세안이 이 국가들을 핵심적인 대화상대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CSP 격상 이후 이들 국가의 대아세안 협력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평가를 살펴보는 인식 조사(4장)에서는 완전 대화상대국 11개국을 포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1. 아세안의 대화상대국(2024년 10월 기준)

완전 대화상대국(DP)	부분 대화상대국(SDP)	개발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li> <li>• 캐나다</li> <li>• 중국*</li> <li>• 유럽연합(EU)</li> <li>• 인도*</li> <li>• 일본*</li> <li>• 뉴질랜드</li> <li>• 한국*</li> <li>• 러시아</li> <li>• 영국</li> <li>• 미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li> <li>• 모로코</li> <li>• 노르웨이</li> <li>• 파키스탄</li> <li>• 남아프리카공화국</li> <li>• 스위스</li> <li>• 튀르키예</li> <li>• 아랍에미리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li> <li>• 프랑스</li> <li>• 독일</li> <li>• 이탈리아</li> <li>• 네덜란드</li> <li>• 페루</li> </ul>

주: 알파벳 순으로 표기, \* CSP를 맺은 국가들을 의미함.  
 자료: ASEAN Secretariat, "External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20.).

12) 사례 연구에서 인도를 제외한 이유는 인도의 대아세안 협력이 다른 5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아세안-인도 CSP 수립은 양측 간 협력의 성숙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인도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에서 중요한 국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학술논문, 아세안 사무국 문서, 대화상대국 정부 문서, 논평 및 기사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세안 3대 공동체 청사진, 분야별 행동계획과 아세안 협력 가이드라인, 분야별 실행계획(work plan) 등을 분석하여, 아세안 차원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화상대국 관계 문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대화상대국과의 정상 공동성명, 외교장관회의 의정서, 협력 행동계획(POA) 등을 분석해, 각 대화상대국별 협력 기조와 중점 협력 분야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아세안-대화상대국’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세안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아세안 관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대화상대국의 역할 인식 및 평가’와 ‘한-아세안 관계 평가’의 두 가지 항목으로 진행되었다.<sup>13)</sup>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및 아세안 외교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sup>14)</sup> 이 외에도, 국내 아세안 외교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국내 관계자들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를 향후 협력 과제 도출에 반영하였다.

### 3. 연구 구성과 한계

본 연구는 한-아세안 CSP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개별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기조와 전략을 살펴본다.<sup>15)</sup> 아세안 회원국이 어떠한 유인으로 어떠한 공동목표를 갖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러한 공동목표가 아세안이라는 지역연합체를 통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13)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4장 1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14) 익명을 요구한 면담자들의 경우,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15) 2장은 원외 연구진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배기현 교수가 작성하였다.

한다. 이어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아세안이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대외관계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논의한다.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전략 분석은 대화상대국인 한국이 아세안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아세안이 대화상대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2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CSP 관계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협력 수요와 함께,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한국)이 '아세안+1'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먼저 최근 아세안의 주요 정책 및 협력 가이드라인 문서를 분석해, 아세안이 지역협의체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한국)이 아세안과 CSP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아세안의 각 분야별 수요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각 대화상대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식과 특징을 분석해, 한국이 벤치마킹할 부분을 도출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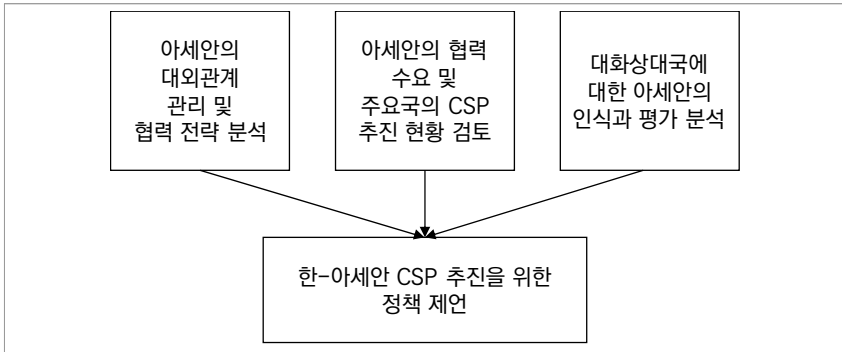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본다.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틀로 구성되었다. 첫째, 아세안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인식 및 평가를 위해 △ 대화상대국 역할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 △ 아세안의 가장 큰 협력 수요와 이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협력 수준 평가, △ AOIP 주류화를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기대, △ 대화상대국에 대한 신뢰도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아세안 관계 평가를 위해 △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효율성 및 강·약점 평가, △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평가, △ 한-아세안 협력 가시성(visibility)에 대한 인식, △ 분야별 협력 수준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 내에서 한국이 지닌 입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



후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강화해야 할 전략적 이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자 했다.

결론인 제5장에서는 2~4장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SP 추진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아세안+1 협력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주요국의 CSP 추진 현황,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을 분석해,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각 대화상대국의 협력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식을 비교·평가하고 CSP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아세안 협력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점도 이 연구가 지닌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엘리트 설문 조사의 특성상 조사의 표본 수가 크지 않고, 조사의 주체가 한국 기관이라는 점을 밝히고 진행했다는 점은 응답의 대표성과 객관성 부분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본 확보와 정밀한 설계를 통해 더욱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제2장

K

PM

# 아세안의 대외관계 기조와 작동 방식: 대화상대국 관계를 중심으로

1.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와  
대외관계 기조
2.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
3. 소결 및 함의



본 장은 아세안과 주요국 간 협력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세안이 한국과 같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살펴본다. 즉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이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물론 아세안의 대외정책은 사안마다, 시기마다, 대상국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세한 특징과 변이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 및 핵심 목표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본 장은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지향점 가운데 여러 층위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주로 추적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메커니즘이 아세안의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다루고자 하는지를 1절에서 논의한다. 2절에서는 1절에서 다룬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가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다룬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지침과 아세안이 주창하는 지역외교의 핵심 가치가 왜 만들어졌고 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절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 1.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와 대외관계 기초

### 가. 비대칭적 국제 지역 질서와 아세안 회원국 공통의 구조적 불안

현실 세계의 국제 거버넌스 질서는 물질적 힘과 능력의 측면에서 격차가 뚜렷한 국가들이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와 동학으로 설명되곤 한다.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소수의 강대국이, 그다음 층에는 다수의 여러

주요국, 중견국들이, 그리고 최하층에는 다수의 약소국이 위치하는 상황 말이다. 식민시대를 경험한 약소국의 경우,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피라미드에서 약소국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도자들이 국제 체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자국이 위치한다고 인식하는 이른바 중견국들<sup>16)</sup>과 달리, 20세기 중반 이후 탈식민지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정책 방향이나 강대국/글로벌 거버넌스에 오래 몸담고 있던 국가들이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국제 체제 또는 거버넌스의 성격을 스스로 바꿀 기회가 적기 마련이다. 국제관계의 여러 변화와 결정이 그들의 손을 떠났거나 그들의 적극적 참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곤 하기에, 작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며 외부 변화에 무작정 휩쓸리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제 시스템의 위계적 무정부 상태가 야기하는 불안은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탈식민지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정치세력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건설을 진행 중인 나라의 엘리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관계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Bae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7)</sup> 첫째, 강대국과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을 때 이들의 국민은 깊어진다. 비대칭적 힘의 구조 때문에 강대국은 국가 건설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약소국은 자국민에게 영토 및 경제적 안보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 제공자 역할을 하는 강대국의 갑작스러운 지원 철회나 축소는 해당 엘리트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오면, 해당 정부 엘리트들의 불안은 커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적 힘의 질서의 불확실성은 또 다른 상반되는 성격의

---

16) Keohane(1969), p. 296.

17) 본 보고서 pp. 26~29의 내용은 Bae(2015), pp. 705-70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물질적 능력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정부 엘리트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강대국이 자국의 내정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더 우려하게 된다. 강대국은 약소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의지에 따라 자국이 선호하는 제도나 정책을 약소국에 강요하거나 글로벌 수준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약소국의 엘리트 사이에서 외부 강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율성 상실의 우려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부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건설 중인 비강대국 엘리트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자조와 자립에 무게를 두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자조가 규범인 위계적 무정부 상태에서 강대국의 후원이나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강대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신뢰를 쌓길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립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때로는 전략적이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더 큰 파트너와 협력해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이나 연계성은 원치 않은 개입 또는 최악의 경우 침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비대칭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지는 잠재적 후원자와의 지속가능한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자조와 자립을 택한 지도자들에게는 외부의 강압에 떠밀려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만, 오히려 외부의 지속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외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상황의 국가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거나, 주요 안보위협에 시달리는 약소국 엘리트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 간 관계를 관리하는 데 믿을 만한 제도와 규칙이 부재한 무정부 상태에서 주요국이 지속적인 지원을 멈추거나 후원 역할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안보와 성장에 필요한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엘리트들은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대국의 꾸준한 관여와 약속이행을 확보하는 데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떤 우려가 더 지배적이며, 어떤 접근법이 더 유리할지는 각 국가가 처한 다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불안은 비대칭적 힘의 관계에 놓인 약소국의 대외관계에 일관된 제약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약소국 엘리트들에게 서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sup>18)</sup>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함께 다루고자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세안이 설립된 이후 여러 측면에서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적 위치와 지정학적 가치 역시 변화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여기서 논한 구조적 불안은 동아시아 위계적 질서 내 아세안의 외교적 위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sup>19)</sup>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대외관계에 끼쳐온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논한 국제지역 질서 내 비대칭적 힘의 구조는 동남아 국가들이 강대국/주요 이웃국들과의 대외관계에서 공통되게 다루고자 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는 국가 엘리트들이 아세안을 건설하고, 가입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일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나. 동남아 역내 구조적 제약과 아세안 회원국 간 공동목표: 자유성과 중심성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시아 역내 비대칭적 힘의 구조로 인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을 공유해왔다. 동남아는 식민 역사, 문화,

---

18) 관계구조적 불안과 관련한 연구로는 배기현(2021) 참고.

19) 물론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지만, 최소공통분모의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외교 행위자로서 아세안의 자기 정체성은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

통치 유형, 지리적 조건 등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에도 역내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 건설에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이 안전한 유대 관계를 구축할 만큼 신뢰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엘리트들은 독립 이후로도 줄곧 이로 인한 우려와 불안을 다루고자 했다. 위의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국가 중에는 자조를 중시하며 강대국의 개입을 경계하는 입장이 우세한 곳도 있었고, 오히려 강대국의 관여를 받아들이고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남아에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난 외교적 특징은, 외교 엘리트들이 독립 초기부터 이와 같은 비대칭적 질서에 의한 우려를 역내 다자 협상 테이블에 주요 의제로 가져와서 다루고자 했다는 점이다.

특히 아세안은 탈식민 시기 ‘약한 신생국’이라는 인식된 정체성과 힘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불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유용한 공간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집단적인 지역 연합체로서 아세안은 군사력, 경제력 등의 물질적 역량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국제 체제에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는 누리기 어려운 외교적 영향력을 회원국들에 제공할 수 있었다.<sup>20)</sup> 즉 강대국/주요국과의 관계구조에서 오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차원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결정은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안이란 다자체를 활용하여 얻고자 기대한 핵심 이익은 역내 ‘자율적인 중심(autonomous center of the region)’으로 아세안을 구상한다는 집단적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이 목표는 아세안 관찰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오랫동안 주목해온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 목표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목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원칙인 ‘자율성’은 구조적 불안을 다루기 위한 직접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자조, 자력갱생 대외정책은 현대 외교에서 점점 실효성을 잃고 있

---

20) Leifer(1989).

다. 특히 이 경우 강대국/주요국이 지역으로부터 발을 빼거나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커지는 다른 측면의 구조적 불안을 다루기 어렵다. 주변으로부터의 관여가 ① 기대하는 수준으로, ② 예측 가능하고, ③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강대국의 철회로부터 커질 수 있는 불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불안을 다루고 약소국이 두려워하는 주변화를 예방하는 길 중 하나는 역내 외교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지역 협력체를 만든다는 것은 역내 행위자가 해당 협력체의 회원자격을 관리하거나 협력 의제를 설정하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아세안이라는 연합체는 이런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에게 유용하다.<sup>22)</sup> 즉 아세안이라는 다자 협의체가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국가 건설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강대국 정치로부터 주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다자주의의 규범적 가치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차원의 다자 협의체 구성은 외부 세력을 설득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에도 수월했다.

다만 동남아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한 목표가 국가 수준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강대국/주요국의 관심을 묶어둘 수 있는 방식의 외교라는 점에서,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직접 역내 다자주의를 관리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세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 지역주의 담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아세안 중심성’이란 표현은 동남아 엘리트들의 목표이자 이들이 정립하고 싶어하는 다자주의 실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Caballero-Anthony에 따르면, 기존 문헌과 담론에서 이야

21) Hamanaka(2014).

22) Natalegawa(2018).

23) Bae(2015), p. 23.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논의는 기존 문헌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고. 부엔수세소(2021), 번역: 우진하(2021); Kraft(2012); Fukunaga(2014); Stubbs



기하는 아세안 중심성이란 역내 다자협력 과정에서 아세안이 운전석에 앉아 길을 안내하고, 비아세안 국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국제행위자들 간의 다자적 대화와 외교에 장을 제공해주며, 동남아 지역의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아세안의 집단적 기대를 반영한다.<sup>24)</sup>

정리하면, 아세안 국가 엘리트들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집권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다루기 위해 역내 이슈를 다루는 다자 협의체를 만들고자 했다. 자율성과 중심성, 이 두 가지 공동의 목표는 아세안 창립 이후 국제질서의 격변을 겪으면서 점차 강화되었으며, 아세안의 제도적 진화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2.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

이번 절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마련한 집단적 대외관계 기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들의 대외관계 메커니즘이 위의 절에서 다룬 '자율성'과 '중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시아 역내 다자주의 외교에서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상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들과의 협력 방식을 어떻게 제도화하고자 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이 각각의 대화상대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의 내용과 그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치, 즉 비배타성(또는 개방성) 규범에 대해 기술한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의 또 다른 집단적 목표인 자율성을 위해 아세안이 집단

---

(2014); Acharya(2017); Tan(2017); He(2019).

24) Caballero-Anthony(2022). 외교관의 시각은 Natalegawa(2018) 참고.

적으로 택한 입장과 외교방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가. 아세안 중심성을 위한 범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수립

앞에서 논의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 가운데에서도, 아세안의 ‘중심성’은 아세안 외교 엘리트들이 강대국/주요국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우려와 불안을 다루는 데 핵심적인 목표로 간주된다.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협력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이 목표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이 협력관계 메커니즘에 일관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아세안의 대외정책은 각 역외국 또는 지역과의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기보다 아세안이 우선시하는 협력 주제와 분야(sector)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즉 외교에서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아세안은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따로 두지 않는다. 물론 대일본, 대호주, 대미국 외교정책도 명시적이지 않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아세안 수준의 교섭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이슈에 한정적으로 대중 교섭 관련 정책 및 전략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25)</sup>

지역 기반의 대외정책 대신,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차원에서 대화상대국 및 대외기구와의 관계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sup>26)</sup> 해당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겠다.

### 1) 아세안 수요를 위한 협력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면, 기본적으로 대외국 또는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대화와 사업은 아세안이 선호하는 이슈와 사

25) 그러나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의 전략 또는 협상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에 알 수 없다.

26) Müller(2023), pp. 67-72. 이와 더불어 다음을 참고. Bae(2017).

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물론 대화상대국은 언제든지 원하는 협력사업과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논의와 교섭 시,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아세안 협력에 관한 핵심 문서들과 대화상대국의 제안이 얼마나 부합하며 양립 가능한지를 협의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아세안 리더 및 고위관료들의 공동선언문, 공동체 구상 문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련해 놓은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Blueprints) 등이 포함된다. 아세안이 2019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역시 최근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협력 프레임을 짜고자 할 때 근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일본과 처음으로 AOIP에 관한 협력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으며, 2022년 호주, 2023년 한국, 미국, 중국, 뉴질랜드와 연이어 AOIP에 관한 협력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우선순위는 각 대화상대국과의 양자 협의에 따라 중복되거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 2-1. 아세안 협력에 관한 주요 가이드라인 문서

문서 명칭	문서 종류
Bangkok Declaration(1967)	선언문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1971)	선언문
Declaration Bali Concord I(1976)	선언문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1976)	협약
ASEAN Free Trade Area(1992)	협정
ASEAN Vision 2020(1997)	선언문
Hanoi Action Plan 1999-2004(1998)	행동계획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2000)	선언문
IAI Work Plan I(2002)	실행계획
Declaration of Bali Concord II(2003)	공동체 선언문
Vientiane Action Programme 2004-2010(2004)	행동계획
Cebu Declaration(2007)	선언문
ASEAN Charter(2008)	헌장

표 2-1. 계속

문서 명칭	문서 종류
Cha-am Hua Hin Declaration on the Roadmap for the ASEAN Community 2009-2015(2009)	선언문
IAI Work Plan II(2009)	실행계획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2010)	실행계획
Declaration of Bali Concord III(2011)	선언문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2012)	선언문
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25(2015)	선언문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25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ASEAN Socio-Cultural Blueprint 2025 (2015)	청사진
IAI Work Plan III(2016)	실행계획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2016)	기본계획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AOIP)(2019)	선언문
IAI Work Plan IV(2021)	실행계획
ASEAN Declaration on Mainstreaming Four Priority Areas of the AOIP(2022)	선언문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V(2023)	선언문
ASEAN Community Vision 2045(협의 중)	선언문

자료: ASEAN Secretariat Website(검색일: 2024. 9. 30.).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핵심 문서들은 주기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갱신된다. 그리고 정기적인 아세안 회의와 행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하고 축하하며 주요 대외협력국 및 기관들에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2003년 제2차 Bali Concord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2009년 로드맵을 선포하며 한 번 더 강조된다. 이후 2011년 제3차 Bali Concord에서 아세안 공동체 내의 세 가지 축이 설정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아세안은 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한 번 더 드러낸다. 2015년 아세안은 공동체 건설을 선언문으로 공표하지만, 문서를 들여

다보면 아세안 공동체 건설 완료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만 2015년에는 세 가지 축에 대한 공동체(2025년까지의) 청사진을 동시에 발표하며 그전까지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 핵심 문서를 근거로 각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ies)들은 해당 이슈와 산업에 필요한 주요 사업계획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왔다(표 2-2 참고).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아세안은 공동체 비전을 업데이트하는 선언문을 준비 중이며 청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대화상대국들은 아세안과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시작하고 협의할 때 이 핵심 문서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한다. 특히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화상대국들은 아세안 문서가 제공하는 아세안 통합에 필요한 협력 리스트 중에서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각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양쪽의 교섭을 통해 대화상대국-아세안 간의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이 역시 대화상대국과 아세안 리더 수준에서 협력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작성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하는 아세안 방식의 작업을 거친다.

표 2-2. 아세안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ies) 주요 문서

문서 명칭	협력 분야/문서 종류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1995)	경제/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1995)	경제/협정
ASEAN Plan of Action of Science & Technology 1996-2000	과학기술/실행계획
ASEAN Declaration on Transnational Crime(1997)	안보/선언
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1998)	경제/기본협정
Plan of Action on ASEAN Cooperation in Tourism(1998)	관광/행동계획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1999-2004	에너지/행동계획
ASEAN Declaration on Cultural Heritage(2000)	문화/선언
ASEAN Declaration on Joint Action to Counter Terrorism(2001)	안보/선언

표 2-2. 계속

문서 명칭	협력 분야/문서 종류
ASEAN Plan of Action of Science & Technology 2001-2004	과학기술/행동계획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2002)	환경/협정
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04-2010	경제/행동계획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04-2009	에너지/행동계획
ASEAN Peatland Management Strategy 2006-2020	환경/행동계획
ASEA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2007)	인권/선언
ASEAN Plan of Action of Science & Technology 2007-2011	과학기술/행동계획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2009) ASEAN Investment Comprehensive Agreement(2009)	경제/협정
Cha-Am Hua Hin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on Education to Achieve Caring and Sharing Community(2009)	교육/선언
Ha Noi Declaration on the Enhancement of Welfare and Development of ASEAN Women and Children(2010)	복지/선언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0-2015	에너지/행동계획
Declaration on ASEAN Unity in Cultural Diversity(2011)	문화/선언
ASEAN Tourism Strategic Plan 2011-2015	관광/전략계획
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11-2015	경제/행동계획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2012)	경제/협정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the Violence against Wome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ASEAN(2013)	인권/선언
Hue Declaration on Culture for ASEAN Community's Sustainable Development(2014)	문화/선언
ASEAN ICT Masterplan 2020(2015)	ICT/기본계획
ASEAN Regional Plan of Ac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2015)	인권/행동계획
Kuala Lumpur Declaration on Ageing(2015)	인권/선언
Kuala Lumpur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2015)	교육/선언
AEC 2025 Strategic Action Plan for Trade in Goods; Strategic Action Plan for Services; Investment Work Programme; ASEAN Standards and Conformance Strategic Action Plan; ASEAN Competition Action Plan; 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Consumer Protection(2016)	경제/행동계획
ASEAN Work Plan on Education 2016-2020	교육/실행계획
ASEAN Strategic Plan for Information and Media 2016-2025	언론정보/행동계획

표 2-2. 계속

문서 명칭	협력 분야/문서 종류
ASEAN Tourism Strategic Plan 2016-2025	관광/행동계획
Vision and Strategic Plan for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2016-2025	농업/선언 및 계획
ASEAN Framework Action Plan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016-2020	개발/행동계획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6-2020	에너지/행동계획
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Consumer Protection 2016-2025	경제/행동계획
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16-2025	경제/행동계획
ASEAN Plan of Action of Science & Technology 2016-2025	과학기술/행동계획
AEC 2025 Trade Facilitation Strategic Actionn Plan(2017)	경제/행동계획
ASEAN Declaration on Innovation(2017)	과학기술/선언
Joint Statement on Promoting Women, Peace and Security in ASEAN(2017)	인권/합의문
ASEAN Consensu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e Rights of Migrant Workers(2017)	인권/선언(원칙합의문)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Disaster Health Management(2017)	보건/선언
ASEAN Enabling Masterplan 2025(2018)	인권/청사진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ASEAN Vaccine Security and Self-Reliance(2019)	보건/선언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	ICT/행동계획
ASEAN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2019)	경제/협정
ASEAN Declaration on Industrial Transformation to Industry 4.0(2019)	경제/선언
Economic Ministers' Statement on Strengthening ASEAN's Economic Resilience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Disease(2020)	경제/선언
ASEAN Guideline on Gender Mainstreaming into Labour and Employment Policies towards Decent Works for All(2020)	인권/가이드라인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2020)	경제/협정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2020)	ICT/기본계획
The Narrative of ASEAN Identity(2020)	문화/선언
ASEAN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 Framework 2021-2025	여성/기본계획
ASEAN Framework Action Plan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021-2025	개발/행동계획
Work Plan on the Implementation of ASEAN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2021-2025	경제/실행계획
APAEC 2021-2025	에너지/행동계획

표 2-2. 계속

문서 명칭	협력 분야/문서 종류
ASEAN Work Plan on Education 2021-2025	교육/실행계획
ASEAN Master Plan on Rural Development 2022-2026	개발/기본계획
Da Nang Declaration on Media: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for a Resilient and Responsive ASEAN(2023)	언론정보/선언

주: 아세안 사무국에서 각 공동체별 핵심 문서로 추려서 정리한 내용 중에서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문서 또는 기술적 하부 문서 등을 제외한 내용이다.

자료: ASEAN Secretariat website(검색일: 2024. 9. 30.).

## 2) 아세안이 형식적으로 주도하는 교섭 방식 고수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내용’ 교섭과 관련하여 일종의 사회적 방침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은 협의의 ‘방식’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는 광의의 ‘아세안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화상대국과 중요한 협력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화와 교섭 과정에 주목한다.

우선 아세안은 아세안+1, 아세안+3, 아세안+8 등 대부분의 아세안 주도 회의가 아세안 역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역내 아세안 외교의 암묵적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아세안 중심성’ 또는 아세안의 다자 외교 리더십을 논하는 기존 문헌들이 주목하는 아세안 외교 양식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에서 오랫동안 아세안 고위관료로 활동한 Buensuceso 전 주아세안 필리핀 대사는 각종 대화상대국과의 협의체에서 아세안이 의장을 맡아 시간관리, 어조 및 용어, 참가국의 규모 등을 아세안의 재량에 맡겨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아세안 중심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sup>27)</sup> 개최지가 어디냐, 의장이 누구냐 등에 대한 결정은 개별 회원국의 직접적인 실익을 직접 반영한다고 보기보다는 역내 다자주의의 중심이고 싶어 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집단적 목표를 실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다.

27) 부엔수세소(2021), 번역: 우진하(2021), pp. 189~191.



또한 아세안은 대화관계와 관련한 주요 문서 드래프팅 역할을 직접 맡고자 한다. 정상 간의 선언과 이를 반영하는 행동계획 등은 각 대화상대국과의 +1 협력에 성문화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고 마감하는 교섭과 대화의 과정은 아세안을 둘러싼 다자 외교에서 핵심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안(zero draft)을 만드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아세안에 의해 주도된다. 대화상대국이 자국에서 개최하는 특별 정상회의의 경우 정도를 제외하고,<sup>28)</sup> 아세안 역내에서 개최하는 대부분의 회의에서 발표되는 주요 약속과 합의사항은 아세안 측에서 초안부터 마무리까지 주도하여 작성한다. 물론 대화상대국과의 교섭과 협의는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대화상대국이 먼저 제안한 협력이나 외교구상에 대한 문서에 대해서도 대화상대국이 협력문서의 초안을 먼저 만들어 제안하지 않는다. 대화상대국은 'concept paper'의 형태로 제안하며, 이를 받은 아세안은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초안을 만든다. 이후 아세안과 대화상대국은 이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한다. 아세안에는 각 대화상대국 관계를 조율하는 조정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교섭 과정에서 조정국은 아세안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아세안+3, 아세안+8과 같은 협의체 수준에서도 아세안 의장이 아세안 10개국의 의견을 대신하여 발언하고 교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세안은 내부에서 기본적인 공동의 입장을 합의하고 대화상대국과의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아세안 내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외 교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룰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조치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동남아 역내 다자주의에서는 아세안의 중심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아세안이 이 과정을 주도한다고 해서 협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대화상대국을 압박하거나

---

28) 여러 관련 실무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화상대국에 아세안을 초대하는 특별 외교회의의 경우 초안 작성에 대화상대국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섭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이 위와 같은 형식적인 아세안의 역할과 협력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는 한, 대화상대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의견과 입장을 환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상대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적 인풋을 넣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하며, 기능적인 분야의 경우는 오히려 대화상대국이 적극적으로 리드해주길 기대한다. 오히려 Bae가 지적하듯이, ‘아세안 방식’이 제안하는 원칙과 충돌하거나 아세안이 지지하는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사안을 제외하면, 아세안을 둘러싼 다자협력은 실제 사업에서 대화상대국 주도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sup>29)</sup> 이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에도 함의를 제공한다.

### 3) 아세안+1 메커니즘 우선 정책을 통한 대화상대국 간 영향력의 균형 추구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의 대외관계는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아세안과 비아세안 협력국/기관이 실질적인 대외관계의 핵심 층위로 두고 있는 것은 아세안+1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3, 아세안+8 등의 층위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각 메커니즘이 고유의 협력 의제와 특징을 가지고 역내 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력사업을 가시화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층위는 아세안+1로 좁아지고 있다.

이는 제도 디자인의 제약이나 지정학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세안 측의 선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아세안 회원국들의 핵심 공동목표는 아세안이 역내 협력의 중심추로 자리를 잡는 것인 만큼, 아세안의 입장에서 역내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아세안과 큰 상관이 없거나 아세안을 배제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반가워

---

29) Bae(2022).

30) 물론 Plus One 메커니즘은 아세안뿐 아니라 각 대화상대국 역시 동남아 지역외교에서 핵심적으로 공을 들이는 층위이기도 하다.

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협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통해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타국/타 기관과 공유하게 될 경우 중심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은 역내 여러 참여국들이 다방면으로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다자주의보다는, 아세안과 개별 대외국/기관과의 양자적 관계를 중심으로 역내 협력의 주도권을 가지는 형태의 다자주의를 우선하게 된다.

Bae는 이를 두고 아세안이 지향하는 ‘허브와 바퀴살(hub and spoke)’ 스타일의 대외관계 관리 방식으로 칭한 바 있다.<sup>31)</sup>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아세안은 여러 대화상대국과의 연결고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Bae에 따르면,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비강대국의 연합체인 아세안의 입장에서 각 바퀴살 간의 연결고리를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작업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각 바퀴살끼리 친해지기보다 오히려 아세안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생산적인 경쟁을 벌이는 편이 아세안의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sup>32)</sup>

이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대화상대국들 중 특정 국가의 정책 영향력이나 외교관계의 수준이 타국과 비교하여 커지는 상황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1 메커니즘은 유용하다. 특히 이러한 선호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외교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 원칙과도 닿아있다.

아세안 외교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자처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규범과 문화는 아세안 수준의 외교에도 영향력을 끼치곤 하는데, ‘동적 평형’은 인도네시아의 ‘자유로우며 행동에 기반한(free and active)’ 외교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 시절 아시아 역내 외교의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외교 고위관리들이 만들어서 유행시킨 표현이다. 이 아이디어를 주창하는 외교 관리들에 따르면, ‘동적 평형’ 외교는 어느 한쪽 세력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지기보다 역내 세력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적극적으로 영향력

---

31) Bae(2017), p. 250.

32) *Ibid.*, pp. 249-251.

을 행사하며 참여하는 지역 질서를 지향한다.<sup>33)</sup>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질서이기도 하다. 규범적인 이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역내 다자주의에서 실천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특정한 일국과 더 가까워지는 상황은 아세안이 중심성을 유지하며 대외관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세안 외교의 이 같은 특징은 2020년대 들어 역내 대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가 확산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부 아세안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세안 측에 최초로 CSP를 제안한 국가는 중국이었다.<sup>34)</sup> 아세안이 처음으로 이 제안을 받았을 당시, 아세안 내부에서는 그 의미와 아세안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sup>35)</sup> 내부적 검토를 거치고 나서 아세안은 이를 수용했고 중국정부와 교섭을 시작했다. 아세안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중국과 유사한 시기에 호주정부의 CSP 격상 제안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세안은 양측과의 교섭과 CSP 체결의 타임프레임을 유사하게 가져갔다. 마침내 아세안은 2021년 10월 대화상대국 중 호주와 CSP 수립을 최초로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곧이어 한 달의 격차를 두고 같은 해 11월 중국과의 CSP를 발표하였다.

이는 외교관계 격상이 일방과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중요한 두 개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격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외 세력의 관여와 협력 수준을 공식적으로 균형 있게 조절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관리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발표가 있고 난 후, 아세안과 여타 대화상대국 간의 CSP는 탄력을 받아 확산되기 시작했다. 2022년 인도와 미국이, 2023년 일본이 아세안과 CSP를 수립했다. 아세안은 오랫동안 핵심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과도 2024년 10월 CSP를 수립하였다.

외교 실무자들은 CSP로의 외교관계 격상은 뚜렷한 국제법이나 외교 규칙에

3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0); Anwar(2014).

34) 익명, 아세안 사무국 직원 인터뷰(2024. 7. 9., 자카르타).

35) 익명, 아세안 주제 외교관 인터뷰(2024. 7. 10., 자카르타).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등의 제도화된 절차나 기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한다.<sup>36)</sup>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해당 외교관계를 돌아보고, 대내외적으로 외교관계의 성장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의 관계 심화를 정치적으로 다짐하고 결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외교적 랜드마크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sup>37)</sup>

최근 CSP로 대표되는 핵심 대화상대국과의 Plus One 관계 격상은 일부 대화상대국의 제안으로 시작되고 다른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아세안+1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반기는 아세안의 선호와도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오히려 G2 간 힘의 균형과 질서 변화의 향방이 불확실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주요 대화상대국이 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세안으로서는 반가운 일일 것이다.

## 나. 아세안 중심성을 위한 비배타성·개방성 추구

아세안 국가들이 주요 비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역내 투자와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그들과의 외교에서 중심성을 획득하고 이를 확립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시한 두 번째 방침은 배타적인 블록화 대신 협력을 원하는 주요국들을 모두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동남아 외교 엘리트들은 포용적 지역 또는 열린 지역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협력의 의지가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다자주의를 만들고자 했다. Goh는 동남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러한 시도를 전방얽기(omni-meshment)라고 이름 붙이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주요 외교행태로 지목하기도 했다.<sup>38)</sup> 특히 아세안은 이 과정에서 비아세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에 아

---

36) 익명, 대화상대국 전 외교관 인터뷰(2024. 6. 24., 장소 익명). 해당 인터뷰 이외에도 여러 계기에 만난 외교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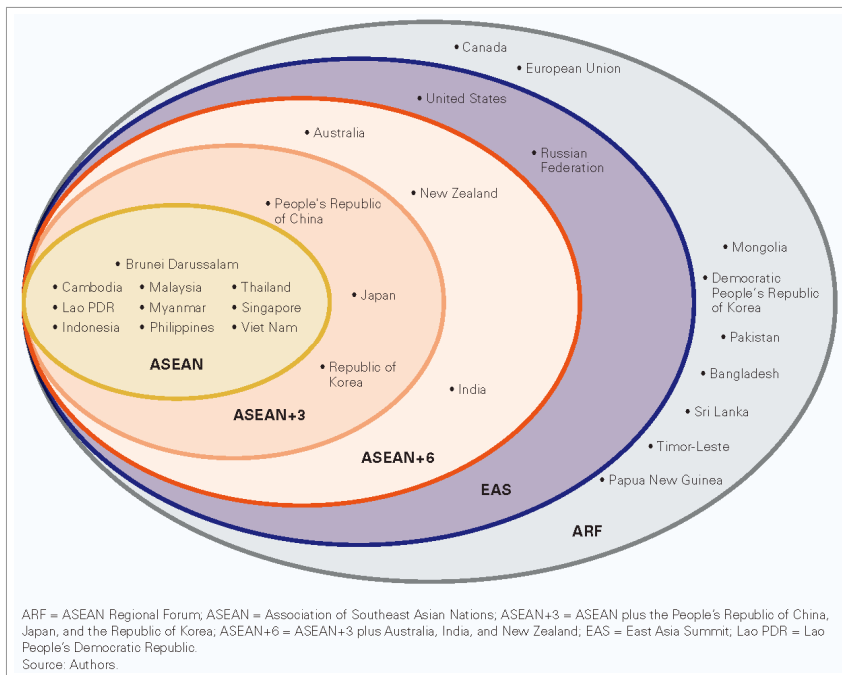
37)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Davies(2018).

38) Goh(2007. 8.), Goh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아세안과 주변 주요국 간의 외교와 협력 방식을 다루고

세안이 반드시 포함될 뿐 아니라 중심적 역할을 아세안이 맡는 형태의 협의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그림 2-1]은 역내 다자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주요 다자협의체는 여러 층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은 핵심 의제와 참여국에서 차별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의체가 아세안을 공통분모로 두고 있으며,<sup>39)</sup> 아세안이 의제 설정과 교섭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2-1. 아세안 주도 협의체



자료: ADBI(2014), *ASEAN 2030: Towards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p. 190.

있다. 예를 들어 Stubbs(2002), Chong(2010), Katsumata(2014).

39) 예외적으로 1980년대 후반 설립된 APEC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일부만 가입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되살아난 역내 경제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2021년 설립된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미국이 주도한 경제협력구상 역시 아세안이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대신 아세안의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이 역내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세력 균형, 동맹, 그리고 양자 외교를 특징으로 했다. 다자적 지역구상도 틈틈이 출현했지만, 대부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되기 마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시기를 지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변화에도 역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제도적 유산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키워간 다자협력체는 아세안이 유일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신현실주의자들은 대안이 부재한 동아시아 상황에서 아세안의 부상은 미·중, 중·일 경쟁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sup>40)</sup>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역내 환경에서 아세안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다자 외교의 중요한 축을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역내 무대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여러 다자협력력 구상의 성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냉전 이후 대외적 혼란을 겪던 중국정부를 동아시아 역내 다자주의의 장으로 초대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포용적 기조와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sup>41)</sup> 이들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선제적으로 중국을 다자외교의 장으로 초대했고, 이후 중국의 급부상 기간에도 중국의 성장을 역내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환영하고 중국의 외교 구상에 지지를 표명해 왔다. 이 같은 아세안의 입장은 중국정부 지도자들이 가질 만한 타국 견제에 대한 의심 또는 봉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계다가 느슨하지만 합의에 기반한 소통을 지향하는 ‘아세안 방식(ASEAN Way)’<sup>42)</sup>은 제도 디자인의 측면에서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을 논하는 장치보다 레짐의 차별점이 뚜렷한 국가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sup>43)</sup>

---

40) Jones and Smith(2006).

41) Acharya(1999); Ba(2006); Johnston(2003); Severino(2006); Khong and Nesadurai(2007).

42) ‘아세안 방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절에서 다룬다.

43) Koremenos, Lipson, and Snidal(2001).

특히 미·중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질 때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고 중재의 역할을 제공할 수도 있다.<sup>44)</sup> 비구속적이고 회피적인 특징 때문에 자주 비판받는 ‘아세안 방식’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강대국 간 불신과 두려움을 다루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다자외교 내의 주요한 외교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sup>45)</sup>

아세안은 이러한 외교 양식을 확립하는 역할을 주도하면서 역내 일국 또는 일부에 대한 배타적 견제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의 변화 또는 핵심적 국제 이슈에 대해 아세안의 공통 입장과 기초를 밝히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들은 일관적으로 역내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역구상과 담론이 커지면서 아세안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구상(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역시 아세안의 해당 입장과 기초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이란 범위는 태평양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자 한 ‘아시아-태평양’ 구상과 아세안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구상을 넘어,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을 아우르는 (미국 및 일본 주도) 새로운 공간 구상을 반영한 지역 단위이다. AOIP는 기존의 ‘아시아’라는 지리적, 심리적 경계를 넘고자 하는 해당 지역 협력구상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집단적 의견 또는 생각을 담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주변 국가들 역시 연이어 자국의 인도-태평양 관점 또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세안 버전의 구상은 특히 열린 지역성과 아세안이 만든 질서에 대한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아세안은 지정학적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AOIP 선언을 통해 기존 지역 다자질서 및 아세안 공동체 건설 과정을 강화하

---

44) Bae(2021), p. 573.

45) *Ibid.*, pp. 571-572.



고 포용적 인태지역 구상을 목표로 두고자 했다. 또한 아세안은 기존 아세안 방식과 규범, 즉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기존 협의체와의 보완성 등을 아세안의 인태 구상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자 했다.<sup>46)</sup>

요약하면, AOIP는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서 ‘아세안 방식’과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쟁이나 편 나누기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아세안의 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다. 아세안 자율성을 위한 로컬 외교규범 마련

앞 소절에서 역내 외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목표를 반영한 대외관계 관리 메커니즘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본 절에서는 또 하나의 공동목표인 자율성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데 유용한 아세안의 방침을 알아본다. 대외관계를 다루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한 또 하나의 외교활동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거버넌스와는 구별된 지역 거버넌스의 외교규범과 원칙을 확립하고 주변 주요국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적용하려는 일관된 노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주창하는 지역 규범의 꾸러미는 소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역내 외교 담론에서 논의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자율성’이란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

‘아세안 방식’ 관련, 그 의미, 그 역할, 그 진화과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 기존 문헌이 상세히 다루고 있다.<sup>47)</sup>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Acharya의 글이 간결하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의 글을 바탕으로 ‘아세안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sup>48)</sup> Acharya에 따르면,

---

46) ASEAN(2019).

47) 예를 들어 다음 참고. Caballero-Anthony(1998); Haacke(2003); Woon(2012).

‘아세안 방식’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규범들의 총합이며,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쪼개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실제 외교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아세안 방식은 타국에 대한 불간섭주의, 회원국 주권 우선주의, 평화로운 방식의 분쟁 예방 및 관리 등을 외교의 원칙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 내용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세안의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회원국들은 두 가지 중요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하나는 1971년 아세안의 ‘평화, 자유, 중립의 지대(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에 관한 선언이고, 또 하나는 이 선언의 내용을 더 높은 수준의 아세안 외교 원칙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1976년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이다.

ZOPFAN의 P(eace)는 무력투쟁 또는 전쟁이 없는 상황, F(reedom)는 외세의 지배 또는 통제로부터의 (회원국들이 누리는) 자유, N(eutrality)은 어느 편을 들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표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TAC에서는 모든 국가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 보전을 핵심 가치로 두고, 당사국들 사이의 내정 불간섭과 비폭력 갈등 관리를 조약 수준의 외교 원칙으로 성문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방식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서 아세안이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역내 외교규범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세안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합의(consensus)와 협의(consultation)를 바탕으로 비적대적인(non-confrontational)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특징은 1967년 아세안 설립 당시의 방콕 선언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sup>49)</sup>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드러운 관계 맺기를 추구하고 명분과 면을 살리는 동남아의 의사소통 문화를 들어 설명한다. 또는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모임의 이타이

---

48) Acharya(2001).

49) ASEAN Secretariat, “About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0.).

나 와해를 막기 위해 느슨하고 유연하며 천천히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형식적 측면에서의 아세안 방식은 동남아 역내 다자협의체를 가로지르는 주요한 외교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아세안은 법인 기구로 진화하면서 ZOPFAN과 TAC을 통해 마련한 ‘아세안 방식’의 구성요소를 그들의 헌장(ASEAN Charter)에도 포함시키며, 그 내용의 법적 의미를 강화했다(글상자 2-1 참고).

#### 글상자 2-1. 아세안 헌장 내 ‘아세안 방식’

##### ASEAN Charter

##### Article 2-2.

ASEA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 (a) respect for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equali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identity of all ASEAN Member States;
  - (b) shared commitment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enhancing regional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 (c) renunciation of aggression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action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 (d) reliance on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 (e)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ASEAN Member States;
  - (f) respect for the right of every Member State to lead its national existence free from external interference, subversion and coercion;
  - (g) enhanced consultations on matters seriously affecting the common interest of ASEAN;
- (이하 생략)

자료: ASEAN Charter(검색일: 2024. 7. 20.).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다자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위와 같은 아세안 방식을 아태지역, 또는 최근의 지역 용어에 따라 인태지역이라고 불리는 확장된 지역 다자외교의 규범으로 확립시키는 작업을 우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세안은 동아시아 역내 여러 층위의 다자협의체를 구상하거나 동남아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심화하고자 하는 주변 주요국들과의 교섭에

서 아세안 방식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협력의 우선 조건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주도하는 기존 협력체에 가입하려는 비아세안 국가들에 TAC 가입은 회원자격의 조건이다. TAC는 가입국들 사이의 내정 불간섭, 주권 우선 원칙을 규정하는 조약인 만큼, 해당 규범이 비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때 (역내) 국제관계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자율성과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sup>50)</sup> 즉 글로벌 규범, 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역내 강대국이 주도하는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동남아 지역 고유의 외교규범을 미리 다듬어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세안이 대외관계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Bae가 지적했듯이,<sup>51)</sup> 역내 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국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추종(followership)을 얻고자 다가올 때, 아세안 국가들은 주요 대외국의 리더십이나 역할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조건으로 역내 고유의 규범에 대한 존중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주요국/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인 것이다.<sup>52)</sup>

아세안을 통한 이와 같은 대외 외교 방식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특성을 역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강대국들은 국제/지역 거버넌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 및 경제력과 같은 물질적 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인정과 지지에 기반한 권위(authority)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권위는 물질적인 능력만으로 자동 생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리더국과 주변국 간의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하다.<sup>53)</sup>

Bae에 따르면, 협상의 내용은 물질적 이익과 비용의 교환에 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리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와 리더국이 추종을 기대하는

50) 배기현(2017), 「아세안 50주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아세안 리더십을 중심으로」, p. 190.

51) 이 보고서의 pp. 51~52는 Bae(2021)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도 이 내용의 일부가 발표되었다.

52) Bae(2021), p. 570에서 재인용.

53) Goh(2013).

주변국의 그것(가치와 제도)이 얼마나 양립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 역시 강대국의 권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 간의 교류와 관계가 심화할수록, 각국은 쌍방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상호존중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양국의 사회적 기대는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국가가 잠재적 추종국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추종국의 신뢰와 지지는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리더국의 권위를 약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추종국은 그들의 지지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리더가 원하는 질서에 대한 입장 변경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즉 권위는 고정되어 있거나 물질적 힘에 종속적이라기보다, 지속적 협상을 통해 재생산되는 것이다.<sup>54)</sup>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위계질서의 낮은 자리에 위치하던 동남아 신생국들은 한동안 이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들 국가의 엘리트들은 자유주의적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기보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통용되는 외교의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아세안 방식’은 오랜 기간 역내에서 지지를 받으며 공고해졌으며, 적어도 외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역내 외교의 사회적 규칙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특히 동남아 내에서 리더십을 얻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세안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종의 하부지역 질서 규칙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 권위에 대한 협상의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다.<sup>55)</sup>

---

54) Bae(2021), p. 569.

55) *Ibid.*, pp. 568-572.

### 3. 소결 및 함의

본 장은 아세안의 입장에서 대화상대국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이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지향점 가운데 여러 층위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관계 관리 지침을 통합적으로 마련하고 모든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협력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며, 교섭 형식에서도 아세안이 정한 프로토콜을 반영한다. 협력의 효율뿐 아니라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 유지를 위해 여타 다자 협의체보다 아세안+1 메커니즘을 최우선으로 두며, 특정 대화상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계의 동적 평형을 관계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주도의 역내 다자주의뿐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의 CSP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세안은 특정 대화상대국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을 대화상대국 외교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직접 만든 절차적, 내용적 원칙을 ‘아세안 방식’이라는 규범 꾸러미로 만들고, 이를 수용할 것을 대화상대국에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대외관계 협력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중심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집단적 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정책적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6)</sup> 첫째, 아세안 고유의 대외관계 목표와 방식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이해 여부와 정도는 협력관계 진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한국과 같은 대화상대국의

---

56) 이 연구의 종합적인 정책적 함의는 마지막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장의 목표는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관계 관리지침 및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알고 관계를 관리하고 교섭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사이에는 정책 효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성과 중심성이라는 목표는 아세안이 수십 년 동안 고수한 가치이며, 아세안의 대외관계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구상되고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에 기반한 대외관계는 배타적으로 질서를 구성하려는 강대국 또는 주변국의 시도를 달가워할 수 없다. 또한 ‘아세안 방식’과 조화롭지 않은 글로벌 가치에 대한 주변국의 종용이나 요구 역시 반가워하기 어렵다. 이는 아세안 대외관계의 근저에 깔려 있는 집단적 목표와 상충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세안 대화상대국들은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아세안 전 아세안 회원국 대사의 글은 아세안 대외관계에 대한, 이 같은 근원적 이해의 고갈에 대한 푸념일지 모른다.<sup>57)</sup>

한-아세안 관계가 진화하는 동안 양자 간 관계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은 주목하고 인정할 만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아세안 대외관계 작동 메커니즘과 그 기원에 대한 이해는 아세안을 이해하는 한국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과 한국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양립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충하는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4장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아세안 관계자 일부가 지적하는 행정부 교체에 따른 한국 외교 방향의 잦은 변화와 무관하게 대아세안 외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의 CSP 관계 수립과 확산 노력은 아세안을 둘러싼 대화상대국 간의 영향력 균형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CSP

---

57) 부엔수세소(2021), 번역: 우진하(2021).

관계는 기능적 협력 강화뿐 아니라 아세안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와 지정학적 고민을 반영하며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도 아세안과의 CSP 관계를, 한국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태 전략 실행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미 한국정부가 제시한 인태 전략에서 대아세안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태 전략을 다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아세안 외교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통한 ‘연대’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태 ‘전략’하에서 아세안과의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아세안 외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기능적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외교에 대한 한국의 인태 전략은 현상유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아세안과 CSP 관계 및 AOIP 협력을 통해 외교관계의 실질적 격상을 추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장



# 아세안과 CSP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협력 수요
2. CSP 국가들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과  
특징
3. 소결: 주요국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 평가



이번 장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신규 협력 수요를 검토하고, 아세안과 CSP를 맺은 국가들의 CSP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 동향을 살펴본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후속 비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 대한 협력 수요를 전망한다. 이후 아세안과 CSP를 맺은 주요 4개국(미국·중국·일본·호주)의 CSP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가장 최근에 아세안과 CSP를 맺은 한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5개국의 협력 방식을 비교·평가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아세안의 협력 수요

아세안은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블록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세안 공동체’ 통합을 추진해왔다.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당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를 통해 공동체의 실현 시기를 2025년으로 제시하고 3대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sup>58)</sup> 아세안은 3대 공동체 추진을 위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 등 범분야(cross-sectoral)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다.<sup>59)</sup>

비전 2025에 채택된 공동체별 청사진, MPAC 2025, IAI IV 등 주요 이행 체계의 추진이 완료되는 2025년이 다가옴에 따라, 아세안은 2022년 Post-2025

---

58)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는 ‘쿠알라룸푸르 선언’으로도 불리며, 동 비전 선언은 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② 아세안 정치 안보 공동체 청사진 2025, ③ 아세안 경제 공동체 청사진 2025, ④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2025 등 네 개 이행계획으로 구성된다.

59) 연계성 협력은 MPAC로 이행 중이며, 개발격차 해소 협력은 IAI IV 2021-2025,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및 협력 체계인 ASCN은 2018년 출범 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비전 수립을 위한 고위급 T/F를 구성하고 차기 공동체 비전 구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Post-2025 공동체 비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회복력 있는, 혁신적인, 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아세안’의 초안과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한 ‘아세안 협약(ASEAN Concord) IV’을 채택했다.<sup>60)</sup> 아세안 협약 IV의 첫째 축인 ‘아세안의 중요성(ASEAN Matters)’은 아세안의 제도 개선, 안보, 비전 2045 이행 관련 협력 이슈가 주를 이룬다. 둘째 축인 ‘성장의 중심’에는 경제 및 사회·문화 관련 다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는데, △ 연계성, △ 식량안보, △ 에너지 전환, △ FTA 및 RCEP 이행, △ 산업 프로젝트, △ 금융, △ 디지털 전환, △ 전기차 생태계, △ 표준, △ 보건, △ 인적자원, △ 환경, △ 교육 등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셋째 축인 ‘AOIP 이행’은 AOIP의 4대 중점분야(해양, 연계성, SDGs, 경제)에 기반한 다수의 포용적 협력 관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표 3-1. 아세안 협약 IV의 3대 축별 추진과제

구분	실행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아세안의 중요성 (제도 강화 및 정치·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보호</li> <li>• 아세안 정상회의 의사결정 과정 지원을 위한 절차 및 규칙 개선</li> <li>• 상주대표위원회(CPR) 포함 아세안 기관 강화</li> <li>•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포함 아세안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li> <li>• 역외 협력 시 아세안 주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아세안 단결성과 중심성 강조</li> <li>•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안의 회복력 및 역량 강화</li> <li>• 불법 마약 근절 협력 강화</li> <li>• 동남아 비핵지대화(대량살상무기 포함)</li> <li>• 국제법에 따른 남중국해 평화·안보·안정·안전·항공·항해의 자유 보장</li> <li>• 국제법에 따른 남중국해 행동 강령의 효과적·실질적 달성</li> </ul>
성장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의 중심지로서 지역 입지 강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역내 연계성 강화</li> <li>• 식량안보 및 영양 관련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li> <li>• 공정·포용적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안보를 위한 상호연계 확대</li> <li>•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아세안+1 FTA 업그레이드, RCEP의 완전·효과적 이행</li> </ul>

60) 아세안 협약 IV의 3대 축은 ① 아세안 사안(ASEAN Matters, 10개), ② 성장의 중심(Epicentrum of Growth, 31개), ③ AOIP 이행(Implementation of AOIP, 8개)으로 구성된다.

표 3-1. 계속

구분	실행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경제,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li> <li>• 경제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해 아세안 산업 프로젝트 기반 이니셔티브 가속화</li> <li>• 역내 지급결제 연계성 강화 및 현지 통화 거래 활성화</li> <li>• 역내 금융 안정성 유지 및 금융통합 심화, MSME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 확대</li> <li>• 아세안 거시경제정책 믹스 강화, 역내 거시경제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li> <li>•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통합 및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디지털 격차 축소,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발전 촉진</li> </ul> </li> <li>• 아세안 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li> <li>•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역내 표준 조화 로드맵 수립</li> <li>• ASEAN 청색 경제 프레임워크 선언 및 효과적 이행</li> <li>• AEC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이행 지원</li> <li>• 역내 보건 아키텍처 강화, 역내 건강 증진</li> <li>• Future of Work 관련 인적자원 개발 가속화</li> <li>•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보호 및 역할 강화</li> <li>• 존중, 평등, 집단주의의 사회적 조화 등 가치 증진을 위한 가족의 역할 강화</li> <li>• 이주노동자 보호</li> <li>•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역내 청년 역량 강화</li> <li>•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기후변화, 연무,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li> <li>• 재난 및 위험 관리 협력 강화,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역량·역할 강화</li> <li>• 농촌개발, 빈곤 퇴치</li> <li>• 교육 전(全) 단계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유아교육 강화</li> <li>• 교육시스템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li> <li>•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그린(Green) 아세안 실현</li> <li>•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확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포함</li> <li>•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li>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 및 재해 복원력 강화 협력 확대</li> <li>• 역내 통합 확대, 역내 개발격차 축소, 역내 경쟁력 강화: IAI 추진</li> <li>• 아세안 공동체 추진 중 역내 소지역 협력 관련 아세안의 단결성, 중심성 강화</li> </ul>
AOIP 이행 (AOIP, MP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중심 경제·안보 협력으로 아세안 및 인태지역의 평화·안보·안정·번영 보장</li> <li>• AOIP 4대 중점 분야 협력 이행</li> <li>• MPAC 2025, AOIP 이행을 통한 아세안 및 인태지역의 포용적 경제협력 추진</li> <li>• 아세안 중심 개방적, 포용적, 투명한, 규칙 기반 역내 질서 유지, 국제법 준수, 대화 상대국 및 역외국과 협력 강화</li> <li>•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UN 헌장·아세안 헌장·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핵심원칙 준수</li> <li>• AOIP의 목표·원칙·4대 중점 분야에 근거한 대외협력 추진</li> <li>• 인태지역 협력 추진 시 아세안 중심성을 핵심 원칙으로 고수</li> <li>• AOIP 4대 중점 분야 협력으로 미래 도전과제 및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li> </ul>

자료: ASEAN(2023), "Jakarta Declaration on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 (ASEAN Concord IV)."

2023년 아세안 협약 IV 발표에 이어 아세안은 2024년 10월 제44차 정상회의를 통해 연계성, 회복력 강화를 중심 테마로 향후 협력 의제를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계성 부문의 우선 협력 분야로는 ① 경제 통합 및 연결, ②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 ③ 디지털 전환, ④ 문화·예술 등을 채택했다. 회복력 부문의 우선 협력 분야는 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이행 전략, ② 아세안 중심성, ③ 환경협력, ④ 여성·아동, ⑤ 보건 등으로 구성된다.

표 3-2. 제44차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협력 의제

구분	우선협력 분야	주요 의제
연계성	① 경제 통합 및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연계성 증진에 관한 아세안 선언 채택</li> <li>지재권 협력에 관한 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 검토 완료</li> <li>중-아세안 FTA 3.0 추가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협상 완료</li> <li>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FTA) 2차 의정서 발효</li> </ul>
	② 포용적,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개발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편성 전략 승인</li> <li>아세안 전력망 및 역내 다자 전력 거래 관련 후속 협상 마무리 진전</li> <li>아세안 생태관광 표준 채택</li> </ul>
	③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아세안 단일창구(ASW) 연구 완료</li> <li>역내 디지털 무역 표준 로드맵 채택</li> <li>역내 지역표준 고유기업식별번호(UBIN) 이행 로드맵 채택</li> </ul>
	④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중소 문화기업 육성에 관한 선언</li> </ul>
회복력	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이행 전략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 개발에 관한 아세안 정상선언 채택</li> <li>- 2025년 말레이시아 의장국 수립하 전략계획 채택 목표</li> </ul>
	② 아세안 중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성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EAS 정상성명 2024 채택</li> <li>지역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 채택</li> </ul>
	③ 환경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9) 기후변화에 관한 아세안 정상성명 채택</li> </ul>
	④ 여성·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아세안 여성 정상회의: '포스트 2025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돌봄 경제와 회복탄력성 강화' 회의 개최 및 관련 선언 채택</li> </ul>
	⑤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세안 생물안전성 및 생물안보에 관한 정상선언 채택</li> </ul>

자료: CSIS(2024), "CSIS Special Edition Commentaries: Analysis of 2024 ASEAN and related Summits," Jakarta.

제4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의장 선언문과 함께 공동체 비전 2045, AOIP,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공급망 연결성 강화, 생물안전과 생물안보 강화 등 별도의 정상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최근 큰 관심을 받는 Post-2025 협력의 경우 ‘아세안 비전 2045: 회복력 있는, 혁신적인, 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아세안’과 주요 공동체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합의했다.<sup>61)</sup> 2024년 10월 제45차 아세안 정상회의 후 채택한 제44~45차 의장 선언문에는 아세안 공동체 2025 관련 이행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이 수록되었다. 우선 아세안 공동체 2025 이행과 관련해 각 분야별 로드맵에 수록된 이행안을 거의 다 완성한 것으로 평가했다.<sup>62)</sup> 통상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선언이 개요 부문 이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부문별 협력안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선언문은 제45차 정상회의가 아세안 공동체 2025 완성과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추진을 위한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문별 협력안에 앞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관련 협력 및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성과와 협력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요 협력 분야로 △ 여성·아동, △ 환경, △ 보건, △ 지속가능개발 등 사회·문화 협력안과 △ IAI, △ AOIP, △ 아세안 연계성, △ 소지역협력 등 범분야(cross-sectoral) 협력안들이 배치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향후 아세안 이 사회·문화 및 범분야 협력을 역내 협력의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부문별 협력안의 경우 기존의 협력안에 최근 이슈를 추가한 형태인데 정치·안보 부문의 경우 범무협력과 같은 비전통안보 분야의 신규 협력 이슈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 공동체 부문은 교역·투자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전통적 협력안과 함께 디지털, 청색 경제(Blue

61) 아세안 공동체 Post-2025 수립은 HLTF-ACF(High-Level Task Force on ASEAN Community's Post-2025 Vision)가 담당하며, 아세안 경제통합은 HLTF-EI(High-Level Task Force on ASEAN Economic Integration)가 담당하고 ASCC Post-2025 전략 계획 수립 임시 작업반,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등도 자체 분야의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62) 각 부문별로 정치·안보 공동체 99.6%, 경제 공동체 96.0%, 사회·문화 공동체 99.0%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

Economy), 순환경제 관련 이니셔티브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사회·문화 공동체 부문은 포괄적인 형태로 다수의 협력안이 포함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 보건, 젠더, 환경 부문 협력안이 주를 이룬다. 선언문 말미에는 대외관계, 다자 협력, 해양, 국제 이슈 등에 대한 이행안과 논평이 추가되었다.

표 3-3. 제44-45차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선언문 요약

분야	주요 내용
아세안 공동체	정치·안보 공동체 99.6%, 경제 공동체 96.0%, 사회·문화 공동체 99.0% 달성
Key Deliver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통합과 연결(공급망, 지재권, ACFTA 3.0, AANZFTA 2차 개정)</li> <li>•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농업, 산림, 전력망, 예코투어리즘, 포용적 금융)</li> <li>• 디지털 미래로 변화(ASEAN Single Window, 디지털 교역표준, DEFA,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 인증제도, 그린이코노미)</li> </ul>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Community Vision 2045: Resilient, Innovative, Dynamic and People-Centred ASEAN</li> <li>• 고위급 TF, Ad Hoc Working Group을 통해 비전 2045 및 전략 계획 수립 준비</li> <li>• ASEAN Future Forum 2024(아세안 미래 포럼 2024)</li> <li>• AEC 전략 계획 2026-2030</li> <li>• ASCC Post-2025 전략 계획</li> <li>• MPAC 2025 →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li> </ul>
환경협력	기후변화, 플라스틱 재활용, 생물다양성
여성·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아세안 여성 지도자 회의</li> <li>• Post-2025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돌봄경제 강화 및 회복력 촉진</li> <li>• 제8회 아세안 아동 포럼</li> </ul>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증진에 대한 정상 선언</li> <li>• AIDS 종식 협력</li> </ul>
AO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한 역내 평화, 안전, 안정, 번영</li> <li>• 미래 지향적 아세안 및 아세안 중심의 지역 아키텍처를 위한 AOIP 선언</li> <li>• AOIP 관련 모든 파트너와 협력</li> <li>• 아태 및 인도양 지역 협력 확대</li> </ul>
지속가능개발	아세안 지속가능개발 및 대화센터(ACSDSD), SDGs에 대한 아세안 포럼 등 지속 가능개발 관련 아세안 내 협력
IAI	개발격차해소 IAI Work Plan IV(2021-2025), IAI Work Plan V
소지역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분야별 협의체와 소지역협력체 간 협력 증진</li> <li>• 아예아와디-파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 성장지대(BIMP-EAGA),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 삼각지대(IMT-GT),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성장 삼각지대(SIJORI) 등 협력</li> </ul>

표 3-3. 계속

분야	주요 내용
연계성	• MPAC 2025 협력, 아세안 공급망 협력
스마트시티	• ASCN 협력, ASEAN 공동체 비전 2045, ASEAN 연계성 전략 계획에 포함
아세안 빌리지 네트워크	• 제2차 아세안 빌리지 네트워크 미팅 개최
아세안상	• 아세안 청년 기구 수상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로드맵 이행 점검, 2023년 아세안 대표부 및 대사 임명 • 완전 가입국 역량 강화 지원, IAI 수원국 지위 부여 • 2024년 아세안 고위급 회의에 동티모르 옵저버 참석 • 각종 아세안 협약에 동티모르 가입의 중요성 강조
정치·안보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C</li> <li>• SEANWFZ</li> <li>• 생화학무기금지 기구(OPCW)</li> <li>• ADMM+ 협력, 제2차 아세안평화유지훈련, 사이버안보, 국방교육, 국경관리 등</li> <li>• UNCLOS 해양 협약</li> <li>• 법무협력, 아세안 법무장관회의(ALAWMM)</li> <li>• ALAWMM과 대화상대국/외부 파트너 간 협력, ASEAN-Japan Work Plan on Law and Justice</li> <li>• 형사법무 상호 법무 지원 가이드라인(ASEAN MLAT)</li> <li>• 상호 법무 지원(MLA) 템플릿 구축</li> <li>• 아세안 검사, 변호사, 조직 역량 강화 등 협력 확대</li> <li>• 아세안 인권 국가간위원회(AICHR) 5개년 워크플랜 2021-2025</li> <li>• 아세안 평화화해기구(ASEAN IPR), 여성평화안전(WPS) 선언 등</li> <li>• 아세안 인권선언, 아세안 인권 다이얼로그</li> <li>• 아세안 해양포럼(AMF), 확대 AMF(EAMF)</li> <li>• 우주협력</li> <li>• 초국가 범죄</li> <li>• 마약</li> <li>• 비핵화협약</li> <li>• ASEAN-IAEA 핵안전 과학기술 협력</li> <li>• 아세안국방장관회의(ADMM), ADMM+</li> <li>• 인신매매</li> <li>• 지뢰</li> </ul>
경제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2024년 4.5% 전망, 무역 8.3% 감소, FDI 0.2% 감소</li> <li>• ATIGA 업그레이드</li> <li>• 아세안 세관협력(ACTS)</li> <li>• 아세안 세관개발 전략계획(SPCD) 2026-2030</li> <li>• 아세안 서비스 증진 프레임워크(ASFF)</li> <li>•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5차 개정안</li> <li>• SDGs 협력</li> <li>• MSME 지원, 아세안 포괄적 비즈니스진흥 실행계획 2023-2027</li> <li>•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li> <li>• 디지털 전환, 컴퓨터 비상대응, 디지털 통합지수,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I)</li> <li>• 상호인증협력 AAMRA AMS 6개국 우선 이행</li> <li>• E-Commerce 가이드라인</li> <li>• 아세안 자연인 이동협정</li> </ul>



표 3-3. 계속

분야	주요 내용
경제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li> <li>• 사이버안보 협력</li> <li>• 관광협력</li> <li>• 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 바이오에너지</li> <li>• 과학기술혁신(STI) 협력</li> <li>• 아세안 불공정 계약기준 가이드라인 채택</li> <li>• 전통의약 정책 및 법률 도입</li> <li>• 아세안 탄소중립 전략, 순환경제, 청색경제</li> <li>• 청색경제 TF, 아세안 청색경제 이행계획 2026-2030 개발 추진</li> <li>• AEC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ATIGA에 포함</li> <li>• 아세안 에너지협력 실행계획 2026-2030</li> </ul>
사회·문화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li> <li>• 스포츠</li> <li>• 아세안 직업안전 및 보건 네트워크</li> <li>• 공공부문 워라밸, 정신건강, 웰빙 증진</li> <li>• 바이오 안전 및 안보</li> <li>• 아세안보건장관회의 Post-2025</li> <li>• 포스트 팬데믹 보건 협력</li> <li>• 여성, 소녀 폭력 대응</li> <li>• 젠더 부문 SDGs 이행</li> <li>• 여성 참정권 보장</li> <li>• 교육, 재난대응, 환경 부문 공무원 역할 확대</li> <li>• 장애인, ASEAN Enabling Master Plan 2025 중간 평가</li> <li>• ASEAN ICT Forum</li> <li>• 아세안 농촌개발 마스터플랜</li> <li>• 환경, 생물다양성</li> <li>• 아세안 생물다양성 계획</li> <li>• 아세안 초국가연무협약(AATHP), 아세안 초국가연무조정센터(ACC THPC)</li> <li>• 연무감축로드맵 2023-2030, 이탄지관리 전략 2023-2030,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li> <li>• 재난대응(ASEAN SHIELD), 재난대응 역량 강화</li> <li>• 인도양 쓰나미 20주년</li> <li>• 미안마 평화, 안정</li> <li>• ASCC 연구개발 플랫폼</li> <li>• 미디어</li> <li>• 노동, Green Jobs Forum</li> <li>• 아동 노동 금지</li> <li>• 이주노동자 인권</li> <li>• 캐나다-아세안 보건협력</li> <li>• 금연</li> <li>• 아세안공공보건비상조정시스템(APHECS)</li> <li>• 아세안젠더주류화전략프레임워크(AGMSF)</li> <li>• 여성, 평화, 안전 아세안 계획</li> </ul>
대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li> <li>• POA, PCA 개정 (캐나다, 중국, 인도,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미국)</li> <li>• 대화상대국, 외부 파트너에 대한 대외지향적 협력 유지 발전</li> <li>• Post-2025 대화상대국 관계 검토</li> <li>• CPR과 대화상대국 간 협력 증진</li> </ul>

표 3-3. 계속

분야	주요 내용
대화상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인도, 캐나다 정상회의</li> <li>일본 CSP 격상(2023), 캐나다 SP, 한국 CSP, 뉴질랜드 CSP 의향</li> <li>2023년 일-아세안 50주년, 2024년 호주-아세안 50주년 등 특별정상회의</li> </ul>
부분대화상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라질, 모로코,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 포함</li> </ul>
국가 간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EAN-UN POA 2026-2030</li> <li>ASEAN-GCC+China</li> </ul>
A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협력계획 2023-2027</li> </ul>
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말레이시아 KL EAS 개최</li> <li>EAS와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협력(ARF, ADMM+)</li> <li>EAS Plan of Action 2024-2028</li> <li>CPR과 비아세안 대사 협력</li> <li>아세안 통합과 중심성</li> </ul>
A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주도적 안보 포럼, ARF 하노이 실행계획 II(2020-2025)</li> </ul>
해양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동남아시아 해양 안정 유지화 진흥에 대한 아세안 외교장관 선언</li> </ul>
국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 평화, UNSC 준수, ARF 협력</li> <li>남중국해 이슈</li> <li>미얀마 5대 선결과제 협력</li> <li>우크라이나 상황</li> <li>중동 상황</li> </ul>

자료: ASEAN(2024), "Chairman's Statement of the 44th and 45th ASEAN Summits Vientiane, Lao Pdr, 9 October 2024."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수립과 이행에 대한 아세안의 경제협력 수요는 크게 ①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② 디지털 전환, ③ 탄소중립 분야로 파악된다.<sup>63)</sup> 먼저 아세안은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업그레이드를 논의 중이다. 아세안은 A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해 역내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sup>64)</sup>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위해 회원국 간의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MPAC 2025를 추진해 왔는데, Post-2025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아세안 협약 IV 및 제44~45차

63)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64) 위의 자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공급망 연계성 개념이 주요 협력안으로 채택되었다. 아세안 연계성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연계성(Supply Chain Connectivity) 개념이 추가되기 시작했으며,<sup>65)</sup> 제44~4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공급망 연계성 관련 정상 선언문이 별도로 정식 채택되어 주요 협력안으로 논의되었다. 아세안은 동 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 FTA 업그레이드, 상품·서비스 이동 자율화, 인프라 투자 확대, 순환·저탄소 경제, 최신 기술(AI,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주제를 협력 분야로 채택했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을 수립해 향후 ‘아세안 경제 공동체 전략 계획(ASEAN Economic Community Strategic Plan)’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핵심 이행 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했다.<sup>66)</sup>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세계 최초의 지역 디지털 경제협정인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을 추진 중이다. DEFA의 9대 핵심 분야는 ① 디지털 교역, ② 국경 간 전자상거래, ③ 디지털 결제 및 전자송장, ④ 디지털 ID 및 인증, 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보호, ⑥ 온라인 안전 및 사이버보안, ⑦ 인재 이동 및 협력, ⑧ 신규 이슈 협력, ⑨ 경쟁정책으로,<sup>67)</sup> 2023년 12월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말까지 협상 타결과 포괄적 이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DEFA 협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회원국들이 있는 만큼, DEFA 협상 참여를 위한 회원국의 역량 강화(특히 디지털 규범 및 규

65) 2020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특별 대응 계획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아세안 경제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 on strengthen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upply chain Connectivi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을 채택하였다.

66) ASEAN(2024. 10. 9.),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Jakar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6.).

67) ASEAN(2024), pp. 44-45 참고.

제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의 평가이다.<sup>68)</sup> 그 외에도  
 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격차 축소, 데이터 이동,  
 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협력 수요도 높은 편이다.

아세안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탄소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저탄소경제(Low Carbon  
 Economy) 등 다수의 탄소중립 관련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아세안 탄소중립 전략(ASEAN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을 발표  
 한 바 있으며 녹색 경제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전략은 ①  
 녹색 산업 성장, ② 녹색 기술 보급화를 위한 역내 상호 운용성 강화, ③ 세계적  
 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강화, ④ 기후 전환을 추진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  
 며, 아래 8대 전략과 16대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표 3-4. 아세안 탄소중립 전략의 8대 전략별 핵심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주요 의제
① 녹색 가치사슬 통합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제조업 가치사슬 녹색 전환</li> <li>•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li> <li>• CCS(탄소포집·저장)/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내 정책 및 제도 마련</li> </ul>
② 역내 순환경제 공급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IGA(아세안상품무역협정)를 업그레이드해 순환 품목(Circular products)* 추가 * 중고/재활용제품, 가치 있는 폐기물(Valuable waste) 등</li> </ul>
③ 녹색 인프라와 시장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전력거래, 물리적 상호연계, 정책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 전력거래 메커니즘(기업전력구매계약(CPPA), 신재생에너지면허(REC)), 전력망 상호연결 및 역내 우선순위 사업(3자 연결) 독려를 위한 기술표준 조화</li> </ul> </li> <li>• 역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상호운용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으로 연결된 아세안 회원국 간 전기차, 수소차, 유연연료 차량(flex-fuel vehicle)의 국경 간 인프라(충전 플러그/소켓, 프로토콜 등) 표준화</li> </ul> </li> </ul>
④ 상호 운용 가능한 탄소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MRV(측정, 보고, 인증) 표준 및 정책 조화를 통한 글로벌 유동성 및 역내 탄소 흡수 재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탄소 크레딧 도입 및 원활한 탄소 크레딧 수출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역내 MRV 프레임워크 개발</li> </ul> </li> </ul>

68)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표 3-4. 계속

우선순위	주요 의제
⑤ 신뢰 가능한 표준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에너지 효율 및 보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컨, 조명 등 고효율 장치에 대한 역내 공통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 마련을 통한 시장 확대</li> </ul> </li> <li>•국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역내 온실가스(GHG) 인벤토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 추적이 가능한 내부보고 데이터베이스 개발</li> </ul> </li> <li>•기업 기후보고 관련 프레임워크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후보고 프레임워크 및 원칙 표준화</li> </ul> </li> </ul> <p>*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p>
⑥ 녹색 자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아세안 택소노미(분류체계) 채택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복잡성 간소화 및 글로벌 인정을 위해 일관되고 균일한 아세안 택소노미 채택 추구</li> </ul> </li> <li>•혁신적,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한 리스크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그린/지속가능 연계 채권, 수쿠크 표준 등 리스크 감축 관행 및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등을 장려</li> </ul> </li> <li>•그린 펀드매니저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현지 펀드 개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내 그린투자펀드 운영과 현지 펀드 개발 장려를 위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li> </ul> </li> </ul>
⑦ 녹색 인재 개발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 기술 분류체계 수립 및 자연인 이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기술에 대한 자격기준 조화, 녹색 기술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재 공급/수요 격차 해소</li> </ul> </li> </ul>
⑧ 모범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에서 모범사례 공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가격 등) 공정전한 구상과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 지원</li> </ul> </li> <li>•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관련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 인프라(에너지 효율 빌딩) 개발 및 스마트시티 기술(폐기물관리, 신호 등 체계) 채택 관련 모범사례 공유</li> </ul> </li> </ul>

자료: ASEAN(2023), "ASEAN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 Jakarta.

탄소중립 협력 사업의 대다수가 신재생에너지, EV 생태계, 에너지 전환, 저탄소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아세안의 미래산업 협력에서 탄소중립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에도 국제적인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역내외 협력

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구축을 위한 아세안의 정치·안보 협력 수요는 크게 강대국 경쟁 관리를 위한 아세안 중심성과 AOIP 협력, 국제법에 따른 해양안보질서 확립, 초국가적 비전통안보 협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중심성 및 AOIP 관련 협력은 아세안 통합, 지역안보 대응, 강대국 간 관계 조정, 지역 아키텍처 운영, 국제무대에서 위상제고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는 다차원적 틀로 발전하고 있다.<sup>69)</sup> 한국은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대화상대국들도 역내 정치·안보, 경제 등 포괄적 분야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AOIP 협력을 지지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정치·안보 협력에서는 아세안 중심성 및 AOIP 관련 협력 수요가 중심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안보 협력은 아세안이 지속 채택해온 UN 헌장, 아세안 헌장, TAC, 비핵화와 더불어, 남중국해 긴장 관리가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통안보 관련 협력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세안의 비전통안보 협력은 초국가 범죄, 테러,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안보 등을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초국가 범죄, 마약, 인신매매 등은 오래 논의되어온 이슈이나 상대적으로 사이버안보는 최근에 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이다.<sup>70)</sup>

사회·문화 공동체의 경우 워낙 범분야 이슈들이 걸쳐 있는 만큼, 아세안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간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1)</sup> 통합적인(holistic) 접근의 필요성은 2024년 ASCC의 Post-2025 비전 수립 실무 그룹 회의에서 종종 강조된 내용이다.<sup>72)</sup> 제44~45차

69) 자카르타 현지조사(2024. 9. 11.) 시 ASEAN Think Tank Summit(ATTS) 참관 내용.

70) 대화상대국과의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 사례로는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센터(AJCCBC)’를 통한 일본의 기차제 제공과 태국의 운영이 대표적이다.

71) ASEAN Secretariat(2024. 9. 24.), “Development of ASCC Post-2025 Strategic Plan calls attention to strong cross-pillar response and coordin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5.).

72) ASEAN Secretariat(2024. 5. 31.),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Post-2025 Strategic Plan Development highlights holistic stakeholder collaboration,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5.).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공동체 협력안은 교육, 스포츠, 노동(이주, 아동), 보건, 여성, 재난대응, 장애인, 환경, 연무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한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가 '인간 중심'을 지향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문화 공동체 협력안의 비중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이행 방향을 감안하면 사회·문화 공동체 관련 협력은 ① 교육, ② 보건, ③ 환경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 관련 협력안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경제 공동체 협력에서도 역량 강화 관련 협력 수요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교육 부문의 범분야(cross-sectoral) 협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 분야는 원래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수의 대화상대국과 협력 성과가 급증한 분야로 향후 전염병 대응과 보편적 의료보장(UHC) 등 보건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도 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이니셔티브는 물론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사업을 다수 진행해왔다. 또한 환경 협력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미래기술 분야와도 연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 공동체 협력안과 범분야 협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협약 IV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 공동체 발전 외에도 아세안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이행 재원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아세안은 아세안 협약 IV 및 제44차 정상회의에서 202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수립을 대표 협력안으로 채택했는데,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아세안의 절차·규칙 개선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202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발표 이후에도 아세안의 내부 절차·규칙 개선 및 재원 조달과 관련된 협력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CSP 국가들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과 특징

### 가. 미국

#### 1) 미-아세안 CSP 협력 개요와 특징

미국은 1977년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관계를 맺었지만, 지역협의체 차원의 협력을 본격화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이다. 오바마 정부는 정상회의 정례화(2009년)와 EAS 가입(2011년)을 시작으로 대아세안 외교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으며,<sup>73)</sup> 2015년에는 미-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트럼프 정부 들어 정상급 외교가 약화되긴 했으나,<sup>74)</sup> 바이든 정부는 대아세안 정상외교를 재가동하고 2022년에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였다.

미국은 CSP 공동성명에서 총 9항에 걸쳐 ① 아세안 주도 다자제도와 AOIP 존중, ② 해양안보협력, ③ 인적 교류 증진, 사회·문화 협력, 인적개발, 인권 및 성평등 제고, ④ UN SDGs 달성 지원, ⑤ 경제·기술 협력, ⑥ ADMM+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조(HADR),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 안보협력 강화, ⑦ 메콩 소지역 개발 및 역내 개발격차 해소 등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sup>75)</sup> 이어 미국은 2023년 9월 AOIP에 대한 미-아세안 협력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존에 마련된 미-아세안 행동계획(POA 2021-2025)에 CSP 협력에 대한 부속서를 추가하였다.<sup>76)</sup> 부속서 내용은 AOIP의 협력 분야와 연계해

73) 미국과 아세안은 2009년부터 'ASEAN-U.S. Leaders' Meeting', 2013년부터 'ASEAN-U.S. Leaders' Summit'을 개최해왔다.

74) 대아세안 외교를 중시했던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017~19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연이어 불참하며(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참석했으나, EAS에 불참), 아세안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기도 했다.

75) The White House(2022. 11. 12.), "ASEAN-U.S. Leaders' Stat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U.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0.).

76)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United States strategic partnership(2021-2025),"



① 해양협력, ② 연결성 제고, ③ SDGs, ④ 경제협력의 4대 분야로 구성되었다.

행동계획의 CSP 부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세안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전략과 프레임워크 이행을 지원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아세안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미국의 대아세안 협력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데, 미국은 대체적으로 아세안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미국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후 ASEAN-USAID IGNITE<sup>77)</sup>(2018-2024)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ASEAN-USAID PROSPECT<sup>78)</sup>(2018-2023)를 통해 정치·안보 공동체와 사회·문화 공동체를 지원해왔다. IGNITE과 PROSPECT 이니셔티브하에 추진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IGNITE 및 PROSPECT와 함께 USAID의 3대 이니셔티브로 꼽히는 API (ASEAN Prosperity Initiative) 또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이행 역량 강화를 돕도록 설계되었다.<sup>79)</sup> POA 2021-2025 부속서에 담긴 CSP 행동계획도 아세안 정상 선언이나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ies)에서 제시한 협력 전략, 로드맵, 프레임워크, 실무 그룹(working group) 이행 지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CSP 부속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안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유지와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공동체의 경우 아세안 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디지털 경제 역량 강화 등 기존에 미국이 주력했던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0.).

77) IGNITE(Inclusive Growth in ASEAN through Innovation, Trade, and E-Commerce)는 아세안 단일창구,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혁신, MSME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78) PROSPECT(Partnership for Regional Optimization within the Political-Security and Socio-Cultural Communities)는 초국가적 범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보건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 거버넌스, 성평등 및 인권,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한다.

79) 주요 지원 사례로는 필리핀 세관과 아세안 단일창구 간의 연계 지원, 아세안 세관신고 문서 관리 포털 개발, 인도네시아의 DEFA 협상 역량 강화 등이 있다. "Deepening Engagement Through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Celebrating Achievements of ASEAN-USAID IGNITE, PROSPECT, API Projects"(2024. 2.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6.).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범 및 정책, 디지털 인력 양성,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도 언급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경우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문화 공동체의 경우 SDGs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언급되었지만,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산림·해양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80)</sup>

미국은 CSP 격상을 계기로 미-아세안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국방·안보 및 경제·통상을 넘어, 에너지, 보건, 양성평등·여성 역량 강화, 교통,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며, 고위급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sup>81)</sup> 아울러 미국은 아세안과의 민관 협력 심화를 위해 2023년 12월 워싱턴에 미-아세안 센터를 개소하였다.<sup>82)</sup> 미-아세안 센터는 ① 미-아세안 간 관료 교류 증진, ② 중소기업과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간 교류 강화, ③ 문화·교육 교류 활동 확대, ④ CSP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연구, ⑤ 미-아세안 공동 비전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sup>83)</sup>

2024년 미국은 CSP 이행을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에 사상 최대 연 예산인 12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아세안 협력 재원도 확대하고 있다.<sup>84)</sup> USAID는 아세안 사무국과 지역개발협력협정(RDCA: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을 맺고 5천만 달러(2021~25년) 규모의 아세안 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2023년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금 운용 연

80)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United States strategic partnership(2021-20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0.).

81)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기존에 운영되던 장관급 협의체로는 국방장관, 경제·통상이 있다.

82) U.S. Department of State(2023. 12. 14.), “Under Secretary Allen Opens the U.S.-ASEAN Center in Washington, D.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2.).

83)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84) *Ibid.*

장(2024~29년)을 결정하였다.<sup>85)</sup> RDCA 기금은 아세안공동체 발전과 미-아세안 행동계획(POA)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기금이다. 한·중·일이 아세안 협력기금을 따로 설립해 신탁기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 반해, 미국은 RDCA의 기금 관리를 전문 컨설팅 업체에 맡겨 IGNITE, PROSPECT, API<sup>86)</sup>를 운영하게 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주목된다.<sup>87)</sup>

USAID는 기존의 대아세안 3대 협력 프로그램인 IGNITE, PROSPECT, API가 종료됨에 따라, 2024년 3월 신규 프로그램인 ASEAN-USAID Partnership Program(2024-2029)을 발족시켰다.<sup>88)</sup> 기존에 IGNITE와 API가 경제 공동체를, PROSPECT가 정치·안보 공동체와 사회·문화 공동체를 지원했다면, 신규 프로그램은 세 개 공동체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세 개 공동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미국이 CSP 격상 이후 아세안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USAID는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사무국과 협의해 매년 이행계획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sup>89)</sup> 이는 아세안의 당면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접근으로 여겨진다.

## 2) 주요 협력 현황

### 가) 무역·투자·인프라

미국은 아세안과 CSP를 맺은 대화상대국 중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

85) “Chairman’s Statement of the 11th ASEAN-US Summit”(2023. 9.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0.).

86) API(ASEAN Prosperity Initiative)는 아세안이 승인한 정책을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87) IGNITE은 Nathan(2023년 CADMUS로 합병), PROSPECT는 DAI가, API는 IBI(International Business Initiatives)가 USAID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관리했다.

88) “ASEAN, United States advanc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2024. 7.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6.).

89) 아세안사무국 PCPMD(Programme Cooperation Projects Design and Management Division)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국가이다. 대신 미국은 2006년 미-아세안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협정(TIFA: ASEAN-U.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rrangement)을 체결하고 무역·투자 공동위를 설립해 양측 간의 무역·투자 증진을 논의해왔다. 미국의 무역·투자 협력은 미-아세안 간의 교역 장벽 개선보다는,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과 아세안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2023년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금 동원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기금은 동남아의 중소기업 대출과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분 투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sup>90)</sup> 또한 USAID는 무료 웹 기반 기술 교육 플랫폼인 ‘아세안 중소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sup>91)</sup> 무역원활화 지원사업은 IGNITE의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구축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통관 양식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의 세관 절차 간소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sup>92)</sup>

미국은 CSP 격상 계기에 ‘인프라·연결성을 위한 미-아세안 플랫폼(U.S.-ASEAN Platform for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을 발족시키며,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 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인프라 개발은 고품질 인프라 투자 촉진, 교통 연결성 증진, 스마트시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프라·연결성을 위한 미-아세안 플랫폼’은 동남아의 ‘고품질 인프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MPAC 2025을 포함한 아세안 연계성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sup>93)</sup> 2023년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에서는 80억 달러 규모

90)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91) 상기 프로그램은 2022년 미-아세안 비즈니스위원회와 협업하여 ‘아세안 중소기업 아카데미 2.0’으로 재출범되어 운영 중이며, ‘비즈니스 연속성 및 복원력’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 매출 증대,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US-ASEAN Business Council, USAID, ASEAN launch SME Academy 2.0 to support ASEAN Economic Recovery”(2022. 4.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92)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93)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의 인프라 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다. 상기 자금은 아세안 탄소중립 목표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의 기후 자금과 50억 달러의 디지털 인프라, 교통, 의료, 스마트 시티 투자 자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미국은 인프라 사업 자문 기금(TAC: Transaction Advisory Fund)을 통해 고품질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94)</sup>

인프라 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스마트시티로, 미국은 2018년부터 '미-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CP)'을 통해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아세안 전역에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미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건설보다는, 도시의 핵심 서비스 개선 역량 강화, 순환 경제, 탄소중립 실현 등 도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95)</sup> 미국 정부기관, 국립 연구소, 도시 당국, 대학, 민간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민관 산학연 방식을 띠고 있으며, 아세안 연구기관·대학 간의 협업 및 미-아세안 도시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sup>96)</sup>

최근 미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교통 연계성 강화이다. 미국은 2022년 '미-아세안 교통 대화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2023년 '교통' 고위급 회담에서 △ 항공·지상·해양 교통 시스템 강화, △ 전기차 생태계 구축, △ 역내 연계성 강화 등에 대한 협력 방향을 밝혔다.<sup>97)</sup> 미국은 미-아세안 교통 파트너십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미-아세안 전기차 이니셔티브(U.S.-ASEAN EV Initiative)를 내세우고 있다. 이 사업은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개발, 전기차 도입, 전기차 솔루션·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역투자청은 상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3년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시장 분석 연구와 전

---

94) 위의 자료.

95) 중점 협력 분야로는 △ 탄소중립, △ 순환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기업이 정신 교육, △ 친환경 건물 혁신, △ 통합 도시 서비스, △ 에너지 모델링, △ 스마트 운송, △ 스마트 물 관리 등이 있다.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Program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96)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Program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97)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기차 기술 표준 워크숍을 지원하였다.<sup>98)</sup> 미국의 전기차 협력 확대는 아세안에서 전기차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나) 디지털 및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는 미국이 디지털 부문 협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동남아 디지털 경제 시장의 급성장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와 함께,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는 IGNITE의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2018년 아세안의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및 행동계획(DIFAP: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nd Action Plan, 2019-2025) 채택을 지원하고 후속 이행 작업도 지원 중이다.<sup>99)</sup> 미국은 IGNITE의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발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세안 디지털 통합 지수(ADII: ASEAN Digital Integration Index)’ 개발을 지원하였다.<sup>100)</sup> 미국은 2021년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개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sup>101)</sup> 후속 조치로 ① ICT 인프라, ② 데이터 정책 및 규제, ③ 디지털 연결 및 포용성에 중점을 둔 ‘미-아세안 디지털 실행계획(U.S.-ASEAN Digital Workplan 2023-2025)’을 채택하였다.<sup>102)</sup> 미국의 디지털

---

98) “ASEAN - US Electric Vehicle Workshop on Technical Standards”(2023. 1. 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 9. 27.).

99) DIFAP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 무역원활화(seamless trade), △ 디지털 무역·혁신 지원 및 데이터 보호, △ 디지털 결제 원활화, △ 디지털 역량 강화, △ 기업가 양성, △ 정책 조율 등을 골자로 한다. ASEAN Secretariat(2019),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00) U.S. Mission to ASEAN(2022. 4. 2.),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01) “ASEAN-U.S. Leaders’ Statement on Digital Development”(2021. 10.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02)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지원은 전자상거래 촉진 외에도 아세안의 디지털 인프라와 생태계 개발, 디지털화 과정에서 아세안 기업과 근로자의 기술 숙련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2024년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촉진’을 위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 아세안의 AI 로드맵 및 이행계획 개발, △ 아세안 디지털 고위급회의 산하 AI 거버넌스 워킹 그룹(WG-AI) 지원, △ DEFA 추진을 위한 AI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진 등 AI 표준 및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밝혔다.<sup>103)</sup>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실질적인 협력 센터 건립이나 기금 지원보다는 과학·공학자 지원 양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특히 여성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IGNITE의 여성 과학·공학자 양성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USAID는 2014년부터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종사하는 아세안 여성들을 위한 과학상을 수여해 왔으며,<sup>104)</sup> 2021년에는 아세안 여성들의 STEM 분야 진출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은 애리조나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세안 기업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협력 프로그램(U.S.-ASEAN STIC: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을 운영 중이다.<sup>105)</sup>

#### 다) 기후환경·에너지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는 미국의 실질 협력사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미국은 2021년부터 미-아세안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왔으며,

---

103) “ASEAN-U.S. Leaders’ Statement on Promoting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2024. 10.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4.).

104) IGNITE 프로그램이 2024년 초에 종료됨에 따라, 여성 과학상 운영은 아세안 사무국의 과학기술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 U.S. Mission to ASEAN(2024. 2. 6.),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Innovation, Trade and E-comme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2.).

105) 해당 프로그램은 △ 워싱턴에서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연수, △ 원격 교육 및 벤처·연구 펀딩 지원, △ 연례 지역 콘퍼런스 참여로 이뤄진다. Arizona State University, “U.S.-ASE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 (STIC) Program”(검색일: 2024. 6. 22.).

2023년에는 환경·기후변화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관급 협의체 신설은 환경·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아세안은 2023년 ‘환경·기후변화 실행계획(ASEAN-U.S. Environment and Climate Work Plan)’을 채택하였으며, 중점 협력 분야는 ① 기후목표 달성, 지역 완화 및 적응 강화, ② 저탄소 미래를 위한 혁신, ③ 기후 재원 동원, ④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지원이다.<sup>106)</sup>

미국은 ‘미-아세안 기후미래 이니셔티브(U.S.-ASEAN Climate Futures)’를 통해 다양한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sup>107)</sup> 먼저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파리협정 이행을 돕기 위해 350만 달러 규모의 ‘기후 솔루션 허브’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 국가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보고 및 업데이트를 위한 기술 및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과 단기 NDC 이행 및 장기 기후 전략을 지원한다. USAID는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NASA와 협력해 2023년 SERVIR-동남아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SERVIR 프로그램은 공개 이용이 가능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대비 및 대응, 식량안보, 수자원 및 토지 관리, 대기질 등 지역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한다.<sup>108)</sup> 또한 미국은 2022년 ‘미-아세안 산림 미래 이니셔티브(U.S.-ASEAN Forest Future Initiative)’를 발족시켰다. 이 이니셔티브는 10억 달러의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기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sup>109)</sup> 미 내무부와 국립공원청은 ‘보호지역 보존을 위한 미-아세안 동맹(U.S.-ASEAN Alliance for Protected Area Conservation)’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보호지역 관리 노하우를 전

---

106) “ASEAN-U.S. Ministerial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2023. 8.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07) 미국은 상기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최대 2,0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U.S. Mission to ASEAN(2022. 5. 19.), “Fact Sheet: U.S.-ASEAN Special Summ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108) *Ibid.*

109) “U.S.-ASEAN Special Summit: New Era in U.S.-ASEAN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수해 아세안의 산림 벌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sup>110)</sup> 그 외에도 미국은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설립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을 적극 지원 중이다. USAID의 ‘동남아스마트전력프로그램(SPP: Southeast Asia Smart Power Program)’은 저탄소 전력망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전력 거래를 확대하고 가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아세안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sup>111)</sup> 미 국무부도 Clean Edge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세안을 특정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수의 아세안 국가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sup>112)</sup> 미국은 앞서 언급했던 ‘미-아세안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아세안의 저탄소 실현을 지원하려 한다.

## 라) 국방·안보

해양안보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미국의 역할과 존재감이 가장 뚜렷한 분야이다. 미국은 2019년 대화상대국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한 국가로,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 5개국의 해양영역인식(MDA) 강화를 위한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SI: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2015-25년)를 추진해 왔으며,<sup>113)</sup> 태국과 함께 ADMM+의 해양안보 전문가연구반(EWG: Experts

---

110) *Ibid.*

111) USAID, “USAID Southeast Asia Smart Power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12) U.S. Department of State, “Clean EDGE Asia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

113) MSI는 △ 해양영역인식(MDA) 시스템 구축, △ 해양법 집행 훈련 및 장비 제공, △ 합동 해양 훈련 등을 골자로 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 협력 대상국이다. 동남아 5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MSI는 트럼프 정부가 인태 전략을 추진하면서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로 대상국이 확대되었다. MSI 예산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인력 교류·훈련까지 포함하고 있다.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Section 1263 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2.).

Working Group)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미국은 CSP 격상 이후 '신흥 국방 지도자 프로그램(Emerging Defense Leaders Program)'을 출범시키고, 매년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아세안 국가 군 고위급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sup>114)</sup>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해양 경비대의 '인도-태평양 지원 경비함 프로그램(Indo-Pacific Support Cutter)'이 대표적이다. '인도-태평양 지원 경비함'은 해양법 집행 기관들에 수색·구조 및 해양법 집행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동남아시아 훈련 팀을 별도로 구성해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을 위한 아세안의 어업 부문 실무 그룹(ASEAN Sectoral Working Group on Fisheries)을 지원하는 한편, IUU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미 노동부는 아세안 어업 부문 강제 노동 퇴치(ALFA: Addressing Labor Exploitation in Fishing in ASEAN) 이니셔티브(2021~26년)를 추진해 역내 IUU 어업 제재를 지원하고 있다.<sup>115)</sup>

미국은 아세안의 '반극단화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PCVE)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PROSPEC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왔다. 특히 PCVE 실행계획 지원은 아세안이 프로그램 시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필라(cross-pillar) 메커니즘 채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세안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116)</sup> PROSPECT 프로그램은 2023년에 종료되었으나, 인신매매,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리즘,

---

114)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15) U.S Department of Labor, "ALFA: Addressing Labor Exploitation in Fishing in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2.). 2015~20년에는 USAID가 '해양·수산 파트너십(The Oceans and Fisheries Partne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어획 문서화·추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The White House(2022. 9. 12.),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ASEAN Leaders Launch the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16)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불법동물·목재밀매 등에 대한 협력계획을 담은 미-아세안 간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 실행계획(SOMTC + U.S. Work Plan on Cooperation to Combat Transnational Crime 2023-2026)을 갱신하며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sup>117)</sup> 아울러 미국은 2018년 미-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정상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2019년부터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사이버안보 위협 도전과제와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sup>118)</sup> 2024년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사무국에 대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sup>119)</sup>

#### 마) 사회 개발·문화교류

미국의 대아세안 보건 지원은 전염병 예방·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미-아세안 보건 이니셔티브(U.S.-ASEAN Health Futures)’하에 아세안의 보건 시스템 역량과 회복력, 차세대 보건 전문가 양성, 연구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sup>120)</sup> 대표적으로 USAID의 아세안공중보건비상조정시스템(APHECS: ASEAN Public Health Emergency Coordination System)은 전염병 발생과 대응에 대한 회원국 간 조정·소통을 촉진하여 아세안 전역의 공중보건 비상 준비 및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PHECS는 전염병 협력 조율 및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가 보건 시스템 간의 협력을 촉진해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일된 접근

117) “Chairman’s Statement of the 11th ASEAN-US Summit”(2023. 9.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0.).

118) U.S. Department of State(2023. 11. 7.), “Co-Chairs’ Statement on the Fourth ASEAN-U.S. Cyber Policy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19) “FACT SHEET: Delivering on Our Commitments, 12th U.S.-ASEAN Summit in Vientiane, Lao PDR”(2024. 10.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4.).

120) U.S. Mission to ASEAN(2020. 4. 23.), “U.S.-ASEAN Health Fut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121)</sup> USAID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1년 베트남에 CDC 동남아 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아세안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원해왔다. USAID와 CDC는 아세안의 공중보건 및 신종 질병 센터(ACPHEED) 설립도 지원하고 있는데, 감염병 감시·대응, 보건인력 양성, 실험실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USAID는 공중 전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차세대 One Health Workforce’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아세안 정상들이 선언한 ‘One Health Initiative’를 지원하고 있다.<sup>122)</sup> 2024년에는 아세안의 결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아세안-공중감염 방어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다.<sup>123)</sup>

미국은 사회발전과 관련해, 아세안의 여권 신장과 여성 지도자 육성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의 성평등 주류화 전략 프레임워크(AGMSF: ASEAN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 Framework) 수립과 AGMSF의 이행 설계를 지원하였다.<sup>124)</sup> 2022년에는 미-아세안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 여성폭력 철폐에 대한 아세안의 지역행동계획, △ 인신매매에 대한 아세안 행동계획, △ 여성·평화·안보(WPS) 촉진을 위한 아세안 공동성명(2017) 이행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sup>125)</sup> 미국은 아세안의 여권 신장을 위해 2019년부터 아세안 여성 CEO 정상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아세안 무역사절단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Empower Asia(Empower stands for Export Market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Women’s

121) U.S. Mission to ASEAN(2024. 2. 2.), “ASEAN Public Health Emergency Coordination System (APHE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4.).

122)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123) “FACT SHEET: Delivering on Our Commitments, 12th U.S.-ASEAN Summit in Vientiane, Lao PDR”(2024. 10.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4.).

124) USAID, “Gender and Inclusiv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30.).

125) “Joint Statement of the ASEAN-U.S. Ministerial Dialogue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2022. 9.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Economic Rise)’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sup>126)</sup> 또한 USAID는 아세안여성 위원회(ACW)와 아세안 여성아동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ACWC)를 지원하여, WPS에 대한 아세안의 지역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sup>127)</sup> 미국은 2023년 10월 ‘미-아세안 장애인 권리 대화’를 발족시키고, 아세안의 장애인 권리 주류화 활성화 마스터플랜(ASEAN Enabling Masterplan on Mainstream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이행도 지원하고 있다.<sup>128)</sup> 한편 미국은 2013년부터 청년 교류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YSEALI: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을 운영 중이다. YSEALI는 동남아 청년들의 리더십 개발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출범하였으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 펠로우십, 지역 워크숍, 연구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3) 총평

미국은 CSP 격상을 전후로,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 확대, 미-아세안 센터 개소 등 대아세안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아세안 FTA의 부재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미-아세안 센터 개소는 미국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한·중·일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무역·투자 관련 이니셔티브들은 미국을 통해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길 희망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미국의 연계성 협력 또한 물리적 인프라보다는, 아세안 회원국 내 제도적

---

126) Empower Asia는 아세안을 포함한 여성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네트워킹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소유 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23. 2. 14.), “Remarks by under Secretary Lag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127) U.S. Mission to ASEAN(2024. 2. 2.), “Half the sky: Advancing Women’s Roles in Security and Sustainable Peacebuild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128) The White House(2023. 9. 5.),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3.).

및 디지털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CSP 격상 이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인프라 협력이 민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보증, 고품질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문,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닌 소프트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아세안 통합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이 합의한 전략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과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기후센터(ASCC)와 아세안 공중보건 및 신종 질병 센터(ACPHED)의 운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 통합 과정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가장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해, 특정 분야 협력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29)</sup> 미국이 경제협력의 범위를 다분야로 확대하지 않고 아세안 단일장구 구축, 디지털 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범분야적으로 성 주류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세안 사무국 및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ies)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식별하고, 선택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포럼 및 실무회의를 장기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sup>130)</sup>

RDCA 협력기금 팀 또한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공동체별 수요를 파악하고 상기 협력 수요를 충족할 사업을 연례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세안 사무국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sup>131)</sup> 다만 신탁기금 형태로 일정 규모의 협력기금이 계속 공여되는 것과 달리, 미국의 RDCA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지 여부가 지속되느

129)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130) 위의 자료.

131)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도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sup>132)</sup> 2024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중 견제를 위해 필리핀을 비롯한 개별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은 지속되겠지만, 지역연합체로서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정책이 ‘아세안 중심성’ 약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세안이 중국과 더불어 가장 중시하는 대화상대국이며, 아세안의 주요 당면과제인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개발협력 재원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높은 역내 투자, 미국 시장이 주는 교역 파트너로서의 이점, 풍부한 개발협력 자원 등은 대화상대국으로서 미국이 갖는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 나. 중국

### 1) 중-아세안 CSP 협력 개요와 특징

중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은 다른 주요국보다 늦은 편이나,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BRI) 전략 발표 후 양측의 협력 관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1991년 아세안과 첫 대화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일본, 호주, 미국, 인도보다 늦은 1996년 7월에 아세안의 완전한 대화상대국이 되었다.<sup>133)</sup> 이후 중국은 2003년 10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인도와 함께 가장 먼저 가입하면서 아세안과의 외교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sup>134)</sup> 또한 같은 해 대화

132) 이재현(2023).

133) ASEAN Secretariat(2012), “Joint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0.).

134) ASEAN-China Centre(2011), “China-ASEAN Cooperation: 1991-2011,” 온라인 자료(검색

상대국 중 처음으로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로 격상되었다. 이후 중국은 2021년 11월 중-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중-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었다.<sup>135)</sup>

중국은 CSP 격상 이전인 2018년 11월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기념하여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비전 2030(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Vision 2030)’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간 연계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중-아세안 MPAC 2025와 BRI 시너지 효과를 위한 공동성명(ASEAN-China Joint Statement on Synergising the MPAC 2025 and the BRI)’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성문화하였다.

CSP 격상 이후 중국은 앞서 발표한 중-아세안의 기존 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비전 2025와 AOIP에 기반한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하였다. 중국은 2022년 8월 중-아세안 행동계획(POA 2021-2025)에 부속서를 통해 중국의 오랜 대아세안 중점 협력 분야인 물리적 연계성 협력을 강조하면서 기존 연계성 사업에 기후변화 및 디지털 등을 접목시킨 협력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인적 및 제도적 협력사업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제 및 연계성에 치우쳐진 협력으로 비판받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POA 2021-2025 부속서를 분석해, 기존 협력과의 차별점 및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 방향성을 알아본다. 먼저 중국은 부속서 내 △ 평화, △ 안보, △ 번영, △ 지속가능한 발전, △ 친선으로 협력 분야를 구분하였다. 평화 부문에서 중국은 기존 POA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함으로써 역내 평화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안보의 경우, 중국은 보건안보

---

일: 2024. 7. 20.).

135) ASEAN Secretariat(2024), “Overview of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0.).



를 강조하면서 백신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아세안 보건 체제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협력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CSP 공동성명에서는 ‘공중보건 비상 대비 역량 사업(PROMPT)’ 등 아세안 공중보건의 제도적 역량 강화 사업만 언급되었으나, 부속서에서는 ‘보건안보’라는 큰 주제하에 R&D, 기술이전, 제도 지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변영 부문에서는 MPAC 2025와 BRI 간 연계성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공동성명의 중요성과 디지털 연계성을 재차 강조하고, 원자력 협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연계성은 아세안 국제무역을 위한 단일창구 시스템 지원을 위한 ‘스마트 관세, 스마트 국경, 스마트 연계성(3S: Smart Custom, Smart Borders, and Smart Connectivity)’ 협력과 ‘중-아세안 사이버 대화(ASEAN-China Cyber Dialogue)’ 지원을 통한 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성장 정보 교류 등이 강조되었다.<sup>136)</sup> 또한,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와 ‘중-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및 실행계획’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거 전자상거래에 국한되었던 협력을 디지털 경제, 스마트시티 개발, AI, 빅데이터, 5G 사용 등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 및 POA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뚜렷한 협력 방안은 다소 미미했다. 그러나 부속서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및 핵 기술 부분에 대한 정책 대화 및 정보 교류를 추가해 중국과 아세안 간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sup>137)</sup>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에서는 아세안 비전 2025와 UN SDGs, AOIP 등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2년 천명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의 공통부분인 △ 바이오, △ 순환, △ 녹색 경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아세안 맵그로브 보전 협력 파트너십과 5개년 중-아세안 재난관리 실행계획을

---

136) ASEAN Secretariat(2022),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2021 - 2025)," pp. 3-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5.).

137) *Ibid.*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선 부문에서는 중국이 2019년부터 시행한 중-아세안 영리데스 장학금(ACYLS) 사업과 중-아세안 청년 리더 사업 등 청년 중심의 교육 및 교류 사업을 강조하였다.

## 2) 주요 협력 현황

### 가) 무역 · 투자 · 인프라

중국과 아세안은 경제협력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으로 일컬어지는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중국은 일본과 비슷한 협력 양상을 띠었다.<sup>138)</sup> 2001년 중국이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을 공식 제안한 이후 양측은 2002년에 FTA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ACFTA를 발효하였다. ACFTA 이후 중-아세안 교역은 크게 증가해 중국은 2009년부터 명실상부한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139)</sup> 아세안 역시 2019년 중국의 제2대 교역 상대로 부상했으며, 2020년 EU를 제치고 중국의 제1대 교역 상대가 되었다.<sup>140)</sup>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역내 관세 인하 및 공급망 연결 강화 등에 따라 향후 중-아세안 무역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41)</sup> 중국은 FTA 체결과 함께 2004년부터 중-아세안 엑스포(China-ASEAN EXPO, 이하 CAEXPO) 개최를 통해 양측의 무역 및 투자, 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sup>142)</sup> 2023년에 20주년을 맞이한 CAEXPO는 ‘조화로운 공동체와 일대일로

138) 배기현(2017), 『일본과 중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경쟁과 수렴』, pp. 157~158.

139) The State Council(2022), “China remains ASEAN’s largest trading partner,”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 7. 21.).

140) ASEAN Briefing(2020), “ASEAN Overtakes EU to Become China’s Top Trading Partner in Q1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14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et to strengthen Asian supply chains?”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2. 18.).

142)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2023. 10. 7.), “The 20th China-ASEAN Expo and China-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 Conclude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7. 26.).

이니셔티브 발전'을 주제로 △ 전자상거래, △ 환경 보호, △ 에너지 협력, △ 청색 경제 등의 포럼을 열었으며, 약 2,000개의 기업이 참가해 양측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2013년 이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외전략인 '일대일로(BRI)' 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sup>143)</sup> 아세안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2022년 기준 아세안 전체 FDI 중 약 369억 달러인 15.3%를 차지한 가운데<sup>144)</sup> 중국은 그보다 못 미치는 186억 달러(6.9%)를 기록했으나 여타 서방국과 달리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중국의 BRI는 2009년에 아세안이 발표한 MPAC과 공통된 화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 기금은 아세안 주요 회원국에서 환영받았다. 중국은 MPAC이 주창하는 물리적 연계성, 제도적 연계성, 인적 연계성 중에서도 아세안 내 항만, 도로, 철도 등 물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과 산업단지 건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sup>145)</sup> 중국은 2009년 MPAC 발표 당시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력 기금(China-ASEAN Fund on Investment Cooperation) 조성과 150억 달러의 신용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2012년 중-아세안 연계성조정위원회 설립, 2013년 아세안과 항만 도시 협력 네트워크 건설 제안, 특별 중-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최 등 아세안에 물리적 인프라 협력을 가속화했다.<sup>146)</sup> 중국은 고속철도와 항만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데,<sup>147)</sup> 이는 BRI가 구상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 목표에 부합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2018년 체결한 '중-싱가포르 간 신(新)국제육해무역회랑(CCI-ILSTC)'으로, 고속철도 연결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을 넘어 디지털 연결에 따른 제도적 연계성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43) 남대엽(2022), 「중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의 역사와 특징」, pp. 45~46.

144) ASEAN Secretariat(2023),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3*, p. 183.

145) 김선진(2022), 「제6장 중국의 대아세안 인프라 자금지원 현황과 특징」, pp. 146~147.

146) 배기현(2017), 『일본과 중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경쟁과 수렴』, p. 160.

147) 양평섭 외(2018),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p. 62.

중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의 또 다른 축은 산업단지 건설이다. 2018년 9월 기준 일대일로 정책하 중국이 아세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0건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협력국으로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이 있으며, 그중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건설 뿐만 아니라 해당 특구에서 수도 프놈펜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프라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심화된 경제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48)</sup>

중국은 연계성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중국은 효과적인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해 2013년 중국수출입은행 주도하에 △ 인프라, △ 에너지, △ 천연자원에 초점을 맞춘 100억 달러 규모의 ‘중-아세안 투자 협력 기금(CAF)’을 공식 승인했다. 연이어 2014년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SRF)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아세안 연계성 사업 지원에 앞장섰다. 최근 중국은 아세안 연계성 사업 지원을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중-아세안 공동 개발 특별 차관(China-ASEAN Special Loan for Common Development)’을 설립했으며, 아울러 1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CAF를 수립하여 인프라와 청정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149)</sup>

#### 나) 디지털 및 과학·기술

최근 중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주요 화두는 디지털 및 과학기술 협력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8년 제21차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21년에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중-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 생물, △ 정보통신, △ 제조, △ 우

148) 위의 자료, pp. 68~69.

14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3), "Progress Report on China's Efforts to Build a Peaceful, Safe and Secure, Prosperous, Beautiful and Amicable Home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주, △ 디지털 경제, △ 해양 및 환경, △ 스마트시티 분야 내 공동 연구 및 주력 사업 개발이다. 중국은 2022년부터 중-아세안 과학기술 혁신 강화 사업(ASEAN-Chin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Enhancing Programme)을 통해 아세안에 1,000개 품목에 대한 선진화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제공했으며, 300명의 아세안 청년 과학자를 중국에 초청해 전문가 교류를 지원하였다.<sup>150)</sup> 최근 중국은 기후변화, AI, 디지털 경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의제이자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과학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은 중-아세안 인공지능 협력 포럼을 개최했으며, 동 포럼에서 아세안과 인공지능 개발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하였다.<sup>151)</sup>

양측의 디지털 협력은 디지털 인프라 건설과 전자상거래에 주력했으나, CSP 격상 이후 협력의 범위를 AI, 빅데이터, 5G 사용,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 등으로 확대하려고 한다.<sup>152)</sup>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대외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물리적 연계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연계성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일대일로의 주요 연선 국가인 아세안과는 비교적 일찍이 디지털 경제협력에 대한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중국정부와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아세안과 디지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일대일로의 일환인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구상 이후 2016년 ‘중-아세안 정보항(China- ASEAN Information Harbour)’ 건설 사업을 시작해 물리적인 디지털 연계성 구축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이후 2020년을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협력의 해’로 선정하여 ‘중-아세안 디지털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2021년 첫 중-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협력 파트너십 실행계획(2021~25년)’을 채택해 아세안과 디지털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150) ASEAN Secretariat(2022),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2021 - 2025),” p. 4.

1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3), “Progress Report on China’s Efforts to Build a Peaceful, Safe and Secure, Prosperous, Beautiful and Amicable Home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152) 조수영(2021), 「중국의 대ASEAN 디지털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pp. 1~17.

있다.<sup>153)</sup> 국제전략연구소(IISS) China Connects 데이터에 따르면, 2017~20년간 시행된 중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연계성 주요 사업 세부 분야로는 정보통신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G(30건), 데이터 센터 설립(23건), 핀테크(22건), 전자상거래(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보안정보시스템, 스마트시티, 위성기술 관련, 광섬유 케이블, 학계 교류 등이 있다.<sup>154)</sup> 중국은 특히 전자상거래 협력 부문에서 중국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중-아세안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측의 전자상거래 협약 체결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페이(Alipay)는 2018년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2018년 위챗(wechat)은 말레이시아 은행과 온오프라인 결제 기업을 공동 설립해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민간기업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력을 하고 있다.<sup>155)</sup>

#### 다) 기후환경 · 에너지

중국과 아세안은 2007년 중-아세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 협력을 해왔으며, 중-아세안 행동계획 2011~2015에 따라 수력 발전과 석탄 및 기타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광물 협력을 추진해왔다.<sup>156)</sup> 그러나 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2017년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생태문명’ 이념을 주창하고, 같은 해 첫 일대일로 포럼에서 발표한 ‘녹색 일대일로 지침’에

153) ASEAN Secretariat(2024), “Overview of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0.).

154) Zheng(2024), “China’s Digital Silk Road (DSR) in Southeast Asia: Progress and Challeng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4.), 재인용.

155) 조수영(2021), “중국의 대ASEAN 디지털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pp. 1~17.

156) Liao(2022), “Talking Green, Building Brown: China-ASEAN Environmental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BRI Era,” pp. 33-35.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 내 진행하고 있는 연계성 사업의 저탄소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sup>157)</sup> 아세안 10개국이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후 아세안 에너지 협력 행동계획(ASEAN Energy APAEC) 등을 채택한바, 중국의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의 수요에도 부합하였다.

중국은 기후환경 협력 분야에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이다. 양측 간 환경 협력은 200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2011년 중-아세안 환경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베이징에 중-아세안 환경 협력 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같은 해부터 중-아세안 환경 협력 전략 및 행동계획(Action Plan)하에 ‘중-아세안 녹색 사절 프로그램(China-ASEAN Green Envoys Program)’을 발족시켜 정부 고위급, 청년, 사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중-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채택한 환경 협력 행동계획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은 2022년 △ 기후변화 정책 대화 개최, △ 탄소 시장 및 저탄소 도시에 대한 대화 개최, △ 중-아세안 청정에너지 협력 센터 설립 합의, △ 첫 중-아세안 청정에너지 주간 채택 등 청정에너지 개발 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은 CSP 격상 이후 부속서에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대한 부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세부적인 사업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 대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원자력 협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라) 국방·안보

중국은 오랫동안 아세안과 비전통안보 중심의 국방·안보 협력을 펼쳐왔으나, 최근에는 군사협력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주도의 협력체인 ARF와 ADMM+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안보 의제에 관여해 왔다. 중국과 아

---

157) 강택구, 정기웅(2022), 『중국의 일대일로 저탄소 녹색발전 전략과 전망』, pp. 100~108.

세안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인해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이 여타 경제 및 사회 분야 협력보다 다소 미진했다고 평가받는다.<sup>158)</sup> 중국은 2010년 아세안과 ADMM+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한 최초의 국가지만, 주요 협력은 △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 군 의료, △ 해상안보, △ 테러 방지, △ 평화 유지 활동 등 비전통안보에 국한되었다.<sup>159)</sup> 그러나 중국은 2018년부터 중국에서 ADMM+ 관련 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사상 처음으로 아세안 9개국과 해군 군사협동훈련을 실시하면서 과거 비전통안보 협력에 국한된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받는다(표 3-5 참고).<sup>160)</sup> 이후 중국은 2023년 11월에 중국 잔장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함께 다자간 군사협동훈련을 시행하였다. 동 군사협동훈련의 경우, 2018년보다 참여 군인 수가 더 많다는 점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해군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군사 협력으로 해석된다.<sup>161)</sup>

표 3-5. 중국에서 개최된 ADMM+ 회의 주제

연도	주제	장소
2011년	1st ADMM-Plus EWG 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China	중국 베이징
2015년	ADMM-Plus EWG on Humanitarian Mine Action: Demining Operation Workshop	중국 난징
2018년	8th ADMM-Plus Experts' Working Group on Counter-Terrorism	중국 광저우
	ASEAN-China Maritime Exercise Middle Planning Conference	중국 잔장
	ASEAN-China Maritime Exercise Field Training Exercise	

158) 정구연(2022), 「제2장 아세안 국가들의 해징과 대미 대중 군사 외교」, pp. 44~49.

159) ASEAN-China Centre(2010), "First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open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7. 26.).

16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9),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Vision 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161) Storey(2023. 11. 30.), "China's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east Asian nations likely to rise in frequency and sca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표 3-5. 계속

연도	주제	장소
2019년	ADMM-Plus Experts' Working Group on Counter-Terrorism Initial Planning Conference for Table-Top Exercise and Field Training Exercise	중국 구이린
	ADMM-Plus Experts' Working Group on Counter-Terrorism Final Planning Conference	
	ADMM-Plus Experts' Working Group on Counter-Terrorism Field Training Exercise	
2023년	12th ADMM-Plus EWG on Humanitarian Mine Action (HMA)	중국 난징
	13th ADMM-Plus EWG on HMA	

주: 2020-22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대체함.

자료: ADMM(2024), "Past Meetings and Events (2006 - 2023)"(검색일: 2024. 7. 2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중국과 아세안 간 해양안보 협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과 대립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관련 고위급회의와 별도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2년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DoC)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8년 남중국해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하 CoC) 협상을 시작해 현재 협상 과정에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 국방·안보 분야 내 비전통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11월 최초의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sup>162)</sup> 이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인해 경색된 관계를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해 완화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역내 안보 참여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sup>163)</sup> 먼저 중국은 2011년 5억 달러 규모의 '중-아세안 해양협력기

162) ASEAN Secretariat(2012), "MoU-ASEAN-China-on-NTS-2017-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163) Morton(2011. 3. 31.), "China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oward what end?"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7. 26.).

금(China-ASEAN Maritime Cooperation Fund, 이하 CAMCF)'을 설립해 △ 동남아 해양 환경 예측 및 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 동남아시아 멸종위기 해양 종 및 생태계 보호 연구, △ 중-아세안 해양보호구역 생태 관리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sup>164)</sup> 또한 2015년을 '중-아세안 해양협력의 해'로 지정하고,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를 개소하여 해양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외 고위급회담 및 장관회의 등을 통해 초국가 범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 인력 교류 및 교육, 법 집행 협력 등을 실시하고 있다.<sup>165)</sup>

한편 중국은 CSP 격상과 함께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으로 일컬어지던 보건 분야를 안보 부문에 넣어 보건 분야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중-아세안 보건 장관회의와 보건 개발 고위급 회의, 중-아세안 보건 협력 포럼을 통해 보건 협력 관련 대화를 지속해 왔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총 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6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공중보건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중-아세안 공중보건 이니셔티브(ASEAN-China Public Health Cooperation Initiative)'를 발족해 △ 백신 공동 개발, △ 공중보건 역량 강화, △ 정보 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 마) 사회 개발·문화 교류

중국의 대아세안 사회·문화 분야 협력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① 중-아세안 센터를 통한 협력과, ② 중국 국제개발협력기구를 통한 협력이다. 1997년 중국은 중-아세안 협력기금(ACCF)을 통해

164) Hu Xin(2023), "Joining Hands with ASEAN Countries to Promote Cooperation and Governance in the South China S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

165) ASEAN Secretariat(2012), "MoU-ASEAN-China-on-NTS-2017-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상호투자, 메콩강 유역 개발, 무역, 관광, 교통 연결, 교육, 과학 및 기술, 환경 등을 지원해 왔다. 이후 중국은 중-아세안 센터를 설립하여 무역, 투자, 교육, 문화, 관광 부문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분절화되어 있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중국 국제개발협력 기구(CIDCA)’를 설립하였다. CIDCA는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국제 개발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이하 GDI)’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GDI는 ① 빈곤 완화, ② 식량안보, ③ 전염병 예방, ④ 개발 금융, ⑤ 기후변화 및 녹색 개발, ⑥ 산업화, ⑦ 디지털 경제, ⑧ 연계성 등 여덟 가지 분야 협력 의제이다. 중국은 GD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글로벌 개발촉진 센터를 설립하고, 남남협력 기금을 4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아세안은 GDI 이니셔티브하 관련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첫 GDI 프로젝트 50개 중 14개(28%)가 아세안에서 진행되고 있다.<sup>166)</sup>

최근 중국은 청년 교류와 교육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sup>167)</sup> 중-아세안 간 오랜 협력 분야인 청년 교류는 아세안+3 청년 장관회의, 란창-메콩 청년 우정 프로그램(GMS Youth Friendship Program)을 주요 협의체로 활용하고 있다. 양측은 아세안 토크(ASEAN Talk), 중-아세안 봉사자 포럼, 중-아세안 개발 포럼, 중-아세안 청년 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양측 청년이 거버넌스, 녹색 에너지, 반부패 등 주요 개발 협력 의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아세안 교육 협력 및 개발 이니셔티브(ASEAN-China Educ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하 ACCF의 대표 사업으로 ‘중-아세안 영 리더스 장학금(ASEAN China-Young Leaders Scholarship, 이하 ACYLS)’ 제도를 운용해 △ 연구 역량 강화, △ 공동 연구

166) Ha(2023. 3. 3.), “Why Is China’s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Well Received in Southeast Asi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7. 26.).

16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3), “The Practical Achievements and Global Contributions of th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pp. 5-6.

개발, △ 언어 역량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SP 격상 이후 추가된 이행계획 부속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아세안-중국 디지털 교육 동맹 이니셔티브, 디지털 교육 협력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해 아세안의 디지털 교육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3) 총평

중국의 대아세안 협력은 역내 지역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sup>168)</sup> △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에 맞추어져 있다. 중국은 중국 주도로 아세안의 물류 및 디지털 연결성을 통한 경제 통합, 역내 해양안보 및 군사협력을 통한 안보 통합, 역내 개발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역내 안보 안정화를 위해 중립적 노선을 취해온 아세안은 중국의 GSI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으나, 아세안 비전 2025, AOIP 등 아세안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BRI와 GDI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의 BRI는 아세안의 오랜 협력 수요이자 서방국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환영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기금 및 특별 차관 제도, 개발은행 설립은 아세안 회원국의 자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책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대화상대국보다 협력 우위를 갖는다.

그러나 중국의 대아세안 협력은 일대일로가 표방하는 제도적 연계성과 인적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이지 않다고 평가된다.<sup>169)</sup> 이는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아세안의 농촌개발 격차 해소, 재난관리 및 긴급구호, 환경 보호 협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중국의 협력이 경제 부문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

168) 시진핑 주석이 2022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제안한 '중국 주도의 글로벌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안보 구상'이다.

169) Yu(2024), "Chapter 3 China-ASEAN Cooperation Under the BRI," pp. 53-54.

은 아세안과의 CSP 격상 이후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받아들이고, 앞서 부족하다고 평가된 제도적 연계성 및 인적 연계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행동계획 부속서를 통해 양측의 중점 협력사업인 연계성 협력을 강조하면서 연계성 부문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넣은 디지털 연계성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및 인적 협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보건 협력이다. 보건 협력은 당초 사회·문화 분야에서 해오던 협력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세안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 성격의 지원 사업으로 변모했다. CSP 격상 이후 중국은 보건 협력을 보건안보라는 의제로 격상하고, 아세안과의 백신 공동 개발, 백신 기술 이전, 보건제도 지원, 보건인력 양성 등을 주요 협력 분야에 추가하였다. 이는 아세안의 오랜 협력 수요였던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깊이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물리적 연계성에 치우쳐져 있는 협력의 양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계성 협력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거나 인적 및 제도적 부문으로 접목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일본

### 1) 일-아세안 CSP 협력 개요와 특징

일본은 1973년 대화상대국 관계 수립 후 1977년 완전대화상대국 승격과 후쿠다 독트린<sup>170)</sup> 발표를 기점으로 무역·투자 및 ODA 중심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로, 대화관계 수립 30주년(2003년), 40주년(2013년), 50주년(2023년) 특별

170) 1970년대 일본은 아세안에서의 경제에 치중한 교류 형태로 인해 아세안 다수 국가에서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비판을 받고 불매운동과 반일정서가 확대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77년 후쿠다 독트린에 △군사 대국 포기, △마음과 마음을 잇는(Heart to Heart) 신뢰 구축, △동등한 파트너로서 평화·번영에 기여 등 3원칙을 제시하고 아세안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시작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아세안 협력 수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중장기 협력안을 채택해 각종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왔다.<sup>171)</sup> 일-아세안은 2023년 대화관계 50주년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양측 외교 관계를 CSP로 격상했다. CSP 격상 시기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중기 협력 체제인 '신뢰 받는 동반자인 일-아세안 우정과 협력에 대한 비전 선언과 이행계획', 10개년 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인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일-아세안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 설계 및 행동계획 2023~2033' 및 일-아세안 다자간 개발협력 채널인 '일-아세안 통합기금(JAIF: Japan-ASEAN Integration Fund) 3.0' 채택 등에서 관찰된다.

CSP 격상 전 기존 일-아세안 중장기 비전 선언은 아세안 공동체 협력 순서를 준용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순으로 구성해 왔으나, 대화관계 50주년 비전 선언에서는 이례적으로 첫 번째 협력축에 인적교류 협력이 주를 이루는 '세대를 초월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동반자(Heart to Heart Partners across generations)'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sup>172)</sup> '마음과 마음을 잇는(Heart to Heart)'이라는 표현은 1977년 후쿠다 독트린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협력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세대를 초월한(across generations)'은 향후 인적교류 협력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대화관계 50주년 비전 선언의 첫 번째 협력축에 인

171) 대화관계 30주년인 2003년부터는 비전 선언과 실행계획(POA)을 채택한 후 JAIF 출범(2006년), 일-아세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8년), 주아세안 일본대표부 및 협력기금관리팀(JMT: JAIF Management Team) 설치(2011년)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확충했다. 대화관계 40주년인 2013년부터는 아베 독트린을 발표하고 외교적으로 아세안과 밀착하고 '일-아세안 우정과 협력을 위한 비전 선언'을 통해 MPAC 2025, IAI 등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왔다.

172) 첫째 축인 '세대를 초월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동반자'는 청년·스포츠·문화·교육 등 22개 협력안으로 구성된다. 둘째 축인 '미래 경제·사회 상호 협력 동반자'는 경제·금융·연계성·기후변화·에너지·핵심광물·환경·재난관리·보건·디지털·우주협력·농업식품·사회문제 등 총 86개 경제·사회 협력안으로 구성된다. 셋째 축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는 아세안 통합·안보·인권·범죄 등 21개 외교·안보 협력안으로 구성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12. 17.),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usted Partners"(검색일: 2024. 6. 10.).

적교류 협력을 배치한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청년 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CSP 격상 시기 일본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방향의 변화는 장기 경제 협력 로드맵인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일-아세안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 설계 및 행동계획 2023~2033’에서 발견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역·투자에 기반한 제조업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나, 동 로드맵에는 향후 일-아세안의 경제협력 방향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발견된다. 동 경제 로드맵 행동계획의 4대 축은 ① 사이버 및 물리적 연계성 강화, ② 역동적 인적자본 공동 창출, ③ 국경을 넘어선 개방적 혁신, ④ 지속가능성 실현으로 구성된다.<sup>173)</sup> 동 로드맵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순환경제, 연계성, 차세대 산업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일본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방향이 이들 미래 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엿볼 수 있다.

CSP 격상을 계기로 JAIF의 재원과 지원 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2006년 Original JAIF 설립 당시 지원 분야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JENESYS)과 같은 고유 사업과 일-아세안 비전 성명 협력안 지원에 집중되었다. 2013년 대화관계 4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JAIF 2.0은 1억 달러로 재원을 증액하고 지원 분야를 해양·재난·테러·초국가 범죄 등 비전통안보 분야까지 확대했다. 2023년 JAIF 3.0 출범 시에는 1억 달러의 재원을 추가하고 AOIP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아세안 사무국의 AOIP 관련 분석 및 모니터링 역

173) 첫째 축인 사이버 및 물리적 연계성 강화 부문은 △ 디지털 경제육성, △ 연계성 지원 금융 협력, △ 무역·투자 환경 개선, △ 세관 협력, △ 차세대 산업공급망 개발, △ 인프라 개발, △ 사이버안보 등의 협력안이 채택되었다. 둘째 축인 역동적인 인적자본 공동 창출은 △ 상호 혁신을 위한 인적자본 교류, △ 연구자 교류 및 혁신 활동, △ 차세대 산업 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협력안을 담았다. 셋째 축인 국경을 넘어선 개방적 혁신은 △ 디지털 전환, △ 무역·투자 지원(JETRO), △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재권 협력, △ 스타트업 지원(JBIC, 일본센터) 등의 협력안을 포함한다. 넷째 축인 지속가능성 실현은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 공급망 탈탄소화, △ 순환경제, △ 웰빙, △ 재난·전염병 등의 협력안을 제시했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23. 8. 22.), “Future Design and Action Plan for Innovative and Sustainable ASEAN-Japan Economic Co-Creation 2023 - 2033”(검색일: 2024. 6. 19.).

량 강화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작했다. 2011년 설치된 JAIF 관리팀(JMT)은 JAIF 사업 모니터링은 물론 아세안 회원국들의 영문 제안서 작성 역량 부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JAIF 사업 중 아세안 측 제안 사업 비중은 95%에 달한다.<sup>174)</sup> 이렇듯 아세안 측 수요를 반영하려는 JMT의 노력과 업무 역량, JAIF의 폭넓은 지원 분야, 재원 등은 일본이 AOIP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SP 격상 시 도입된 상기 일-아세안 협력안들은 일-아세안 공동협력위(AJJCC: ASEAN-Japan Joint Cooperation Committee)를 통해 전반적인 중간 점검 과정을 거쳤다. 2024년 6월 개최된 제18차 AJJCC에서는 JAIF 3.0을 통한 AOIP 지원 및 비전 선언의 3대 협력축에 제시된 다양한 협력안의 지속 이행에 합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혁신, 청정에너지, 탈탄소, 청년 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sup>175)</sup> AJJCC를 통한 양측의 협력안 점검과 합의 사항들은 분야별 장관급 회의와 정상회의를 거쳐 협력 내용과 방식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속 진행될 예정이다.

## 2) 주요 협력 현황

동 소절에서는 2023년 CSP 격상 시기 채택된 ‘신뢰받는 동반자인 일-아세안 우정과 협력에 대한 비전 선언과 이행계획’, ‘일-아세안 경제협력 동반자를 위한 미래 설계 및 행동계획 2023~2033’ 등 주요 중장기 협력안에 제시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이 중점 추진 중인 협력 분야를 소개한다.

### 가) 연계성 및 인프라

일본은 ADB, JBIC 등 개발은행들의 차관 사업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 가

---

174) Miyuki Ishikawa JMT 협력관 인터뷰(2024. 9. 11., 자카르타).

175) ASEAN(2024. 6. 10.), “ASEAN, Japan to foster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Jakarta.



장 많은 인프라 관련 개발 금융을 지원해온 국가이다. 최근 일본은 전통적인 인프라 차관 협력 이외에 아세안 연계성 및 교통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들을 별도로 수립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CSP 격상 시기인 2023년에 아세안 연계성 및 교통 인프라 협력 이니셔티브를 신규로 채택해 기존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2023년 9월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인도태평양 포럼에서 ‘일-아세안 포괄적 연계성 이니셔티브(Japan-ASEAN Comprehensive Connectivity Initiative)’를 발표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①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② 디지털 연계성(디지털 인프라, 사이버안보), ③ 해양협력(해양법, 장비), ④ 공급망(식품, 유통), ⑤ 전력 연계성(에너지 마스터플랜, 송배전), ⑥ 인적·지식 연계성(청년학생 교육훈련, 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된다.<sup>176)</sup> 전통적인 주요 연계성 협력 분야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약 2조 8천억 엔에 달하며 하드 인프라 이외에 기술협력도 연계하는 다층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사회발전의 기반이 사람과 지식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향후 3년간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세안의 인적 자원 육성과 일-아세안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교통 인프라 협력 이니셔티브는 2003년 수립된 ‘일-아세안 교통 동반자 협정(AJTP: ASEAN-Japan Transport Partnership)’이 대표적이며, 일-아세안 교통 장관회의의 주요 협력 채널로 활용해왔다. CSP 격상 시기인 2023년에는 10년 장기 행동계획인 ‘루앙프라방 행동계획(Luang Prabang Action Plan)’으로 불리는 AJTP Action Plan 2024-2033을 채택했다. 동 계획은 ① 회복력 있는 공급망, ② 인적연계성, ③ 탈탄소 및 지속가능 교통, ④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교통, ⑤ 안전한 교통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sup>177)</sup>

176)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2023. 9. 6.), "Speech by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at the ASEAN-Indo-Pacific Forum" 참고.

177) ASEAN Secretariat(2023),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the Twenty First ASEAN and Japan Transport Ministers Meeting," p. 2 참고.

## 나) 디지털

일본과 아세안은 ‘일-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ADGMIN+J: ASEAN Digital Ministers’ Meeting Plus Japan)’와 ‘일-아세안 디지털 실행계획(ASEAN- Japan Digital Work Plan)’을 통해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인프라, AI 거버넌스,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sup>178)</sup> 특히 CSP 격상 시기에 채택된 ‘일-아세안 디지털 실행계획 2023’에는 ① 대화상대국 50주년 기념 일-아세안 오픈랜(Open RAN) 심포지엄, ② 디지털 연계성 및 인프라, ③ 디지털 전환, ④ 사이버안보, ⑤ 디지털 정책·규제·표준, ⑥ 일-아세안 ICT 펀드 등이 수록되었으며, 후속 계획인 ‘일-아세안 디지털 실행계획 2024’에는 역내 컴퓨터 비상사태 대응반(CERT: Regional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협력, 사이버안보·표준 협력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일본은 상기 실행계획에 채택된 협력 어젠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sup>179)</sup> 우라노스 생태계(Ouranos Ecosystem)<sup>180)</sup>의 상호운용 데이터 인프라(IDI: Interoperable Data Infrastructure), 디지털 라이프라인 개발계획(DLDP: Digital Lifeline Development Plan), ADX(Asia Digital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대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sup>181)</sup> 사이버안보 협력은 2009년 제1차

178) ASEAN Secretariat(2023),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usted Partners,” pp. 12-13 참고.

17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는 아세안의 3대 공동체 범분야(Cross-sectoral) 통합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일본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일본협회(JASCA: Japan Association for Smart Cities in ASEAN), 일-아세안 상호협력안(JAMP: Japan ASEAN Mutual Partnership) 등 협력 채널 구축은 물론 다수 일본 건설업체들이 직접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참여 중이다.

180) 우라노스 생태계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 4월 시작한 산학관 연계 데이터 이니셔티브로 기업, 산업계,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와 시스템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며, 산학관 협력을 통해 시스템 연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Ouranos)’에 착안해 ‘우라노 생태계’라고 명명했다. 경제산업성은 공간정보공유(드론), 자율주행정보공유, 탄소배출 가시화, 자원순환 가시화, 스마트빌딩 정보연계, 3차원 지도정보 공유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 연계를 시작으로 우라노스 생태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23. 4. 29.), “Japan’s Initiatives for Interoperable Data Infrastructures Officially Named “Ouranos Ecosystem””(검색일: 2024. 6. 19.).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정책 회의(ASEAN-Japan Cybersecurity Policy Meeting)’ 개최 이래 2023년까지 16회에 걸쳐 회의체를 지속 운영해왔다.<sup>182)</sup> 최근 가장 상징적인 사이버안보 협력 사례로는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센터(AJCCBC)’ 설립 및 운영 사업을 들 수 있으며, JAIF 지원으로 2018년 방콕에 설립한 후 태국의 전자거래개발원(ETDA: 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주관하에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지속 시행 중이다.

#### 다) 기후환경

2023년 일본과 아세안은 ‘일-아세안 환경 및 기후변화 장관회의’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차세대 GX(Green Transformation) 협력안을 담은 전략 계획 및 ‘아세안 기후 및 환경 전략 프로그램(SPACE: Strategic Program for ASEAN Climate and Environment)’을 채택했다.<sup>183)</sup> 또한 CSP 격상 시기에 아세안 및 호주 정상을 초청해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를 개최하고 태양전지 · 풍력 · 수소 · 탄소포집저장 등 차세대 GX 기술 및 표준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제로 배출 관련 협력에서는 아세안 ·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데,<sup>184)</sup> ERIA 산하에 ‘아시아 제로 에미션 센터(AZEC: Asia Zero-Emission

181) ASEAN Secretariat(2023),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usted Partners,” p. 12 참고.

182) 2023년 16차 회의에서는 ①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핸드북 발간, ② 사이버 사고 정보 공유 및 대응 기술 공유, ③ 사이버사고 대응 역량 강화, ④ 정보 인프라, 클라우드 보호 워크숍, ⑤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센터(AJCCBC), ⑥ 사이버안보 인식 영상 대회, ⑦ 산 · 관 · 학 사이버안보 커뮤니티 국제회의 등의 협력 이슈가 다뤄졌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23. 10. 6.), “Outcomes of the 16th ASEAN-Japan Cybersecurity Policy Meeting”(검색일: 2024. 6. 19.).

183) SPACE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 기후변화(투명성, 감축, 적응), ② 오염(플라스틱 오염, 전자폐기물 및 핵심광물 순환 파트너십), ③ 생물다양성(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모범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2023. 8. 24.), “Strategic Program for ASEAN Climate and Environment(SPACE)”(검색일: 2024. 6. 19.).

184)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는 2008년 일본의 지원하에 설립된 경제연구소다.

Center)’를 설립해 일본의 기술과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아세안과 차세대 GX 및 넷제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점은 향후 일본이 역내 환경 부문 협력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일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기업과 AZEC 협력국과의 유관 사업이 350여 개에 달하며 산업단체인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과 일본 Keidanren이 연합한 ‘AZEC Advocacy Group’이 민간기업 협력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185)</sup>

## 라) 정치·안보 협력

일본은 ARF, ADMM+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아세안과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을 폭넓게 추진해왔다. CSP 격상 시기 전후로 전통안보 협력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으나, 법무·사이버안보·초국가 범죄 등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안들이 신규 채택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2023년 CSP 격상 시기 ‘법무외교(Justice Affairs Diplomacy)’ 개념을 착안해 아세안과 G7을 초청해 ‘일-아세안 특별 법무장관회의’, ‘G7 법무장관회의’, ‘ASEAN-G7 법무장관회의’ 등을 개최했다. 특히 일-아세안 특별 법무장관회의에서 ① 초국가적 사안에 대한 규칙 기반 분쟁해결, ② 범죄 예방 및 형사 협력, ③ 규칙 기반(Rule of Law) 사안 협력 증진 등을 수록한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일-아세안 법무 고위급 회담(ASLOM-Japan: ASEAN Senior Law Officials Meeting + Japan)’을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sup>186)</sup> 일본과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협력은 연례 회의체인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정책 회의(ASEAN-Japan Cybersecurity Policy Meeting)’, ‘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전략(ASEAN Cybersecurity Cooperation Strategy) 2021~2025’를 기반으로 역량 강화 협력사업에 주력해왔다.<sup>187)</sup>

185)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보도자료 참고.

186) Ministry of Justice(2023. 7. 6.), “ASEAN-Japan Work Plan on Law and Justice,” pp. 2-5.

187) 대표적인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기관으로는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센터(AJCCBC: ASEAN-Japan Cybersecurity Capacity Building Centre), ADMM 사이버안보 및 우수 정보 센

CSP 격상 시기인 2023년에는 ‘국제 콘퍼런스: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공동체(ASEAN-Japan Cybersecurity Community)’ 및 16차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정책 회의(ASEAN-Japan Cybersecurity Policy Meeting)’를 개최하고 정보 인프라 보호 사례 연구, 역량 강화, 산관학 사이버 훈련 활동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협력 이슈를 논의했다. 동 시기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과 관련해서도 ‘일-아세안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실행계획(SOMTC+Japan Work Plan on Cooperation to Combat Transnational Crime) 2023~2027’을 채택해 테러·사이버 범죄·자금세탁·마약·해상범죄·인신매매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이행 중이다.

#### 마) 인적 교류

일본은 아세안과 청년 교류 협력을 가장 활발히 진행해온 대화상대국으로 청년·청소년 교류 사업을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미래 세대 양성 사업을 장기간 지속해왔다. 2023년 대화관계 50주년 비전 선언과 이행계획에 제시된 첫째 협력축에 청년·문화·스포츠·교육 등 인적교류 협력을 배치한 것도 일본의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인적교류 분야 협력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SSEAYP(Ship for Southeast Asian and Japanese Youth Program)와 JENESYS(Japan- 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이다. SSEAYP는 일-아세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으로, 1974년 첫 출범 이래 2023년 47차 사업(연 300명 규모)까지 시행되었다.<sup>188)</sup> 일본 초청 연수 프로그램인 JENESYS 사업은 2007년 시작해 거의 매년 실시됐으며 초청 인원 약 4만 명, 예산 약 3억 7,500만 달러가 투입된 대표적인 인적 교류 사업으로 CSP 승격 이후에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협력은 ‘일-아세안 문화·예술 협력 실행계획

---

터(ACICE: ADMM Cybersecurity and Information Centre of Excellence) 등이 있다.  
188) 2020~23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ASEAN-Japan Work Plan on Cooperation in Culture and Arts) 2022~2025'를 통해 이행되며, 일본재단(Japan Foundation)의 쌍방향 문화 교류 및 일본어 교육 사업인 'WA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스포츠 교류는 '일-아세안 스포츠 장관 회의(AMMS plus Japan: ASEAN plus Japan Ministerial Meeting on Sports)'와 같은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진행 중이며, '내일을 위한 스포츠(SFT: Sport for Tomorrow)', '일본 스포츠 비즈니스 이니셔티브(JSPIN: Japan Sports Business Initiative)', '일-아세안 스포츠 행동(ASEAN-Japan Actions on Sports)' 등 다양한 협력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sup>189)</sup>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교류는 '일-아세안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주도하에 국제 협동연구, 사쿠라 과학 교환학생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ASEAN-Japan Young Business Leaders' Summit, ASEAN-Japan Generation Z Business Leaders' Summit 등 미래 세대 교류 사업도 진행 중이다.

표 3-6. CSP 격상 시기 일본의 대아세안 주요 협력 정책 동향

분야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연계성 및 인프라	일-아세안 포괄적 연계성 이니셔티브	• 교통인프라, 디지털 연계성, 해양협력, 공급망, 전력연계성, 인적·지식 연계성
	일-아세안 교통동반자 협정 행동계획 2024~2033	• 공급망, 인적 연계성, 탈탄소·지속가능 교통, 안전한 교통
디지털	일-아세안 디지털 실행계획	• (2023) 대화관계 50주년 일-아세안 Open Ran 심포지엄, 디지털 연계성·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이버안보, 규제·표준, 일-아세안 ICT 펀드 • (2024) 역내 컴퓨터 비상사태 대응반(CERT), 사이버 안보·표준 • (기타) ASCN, 우라노스 생태계, 상호운용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라이프라인 개발계획, ADX,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센터(태국)
탄소 중립	아세안 기후 및 환경 전략 프로그램 (SPACE)	• 기후변화(감축, 적응), 오염(플라스틱, 전자폐기물, 핵심광물순환), 생물다양성

189) 일-아세안 스포츠 장관회의 5대 협력 분야는 ① 체육교사 및 코치 양성, ② 여성 스포츠 참여 확대, ③ 장애인 스포츠 육성, ④ 약물 방지, ⑤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구성된다.

표 3-6. 계속

분야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탄소 중립	아시아 제로배출공동체(AZ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전지, 풍력, 수소, 탄소포집저장 등 GX 기술 및 표준 도입</li> <li>ERIA 제로에미션(Zero Emission) 센터</li> <li>AZEC Advocacy Group, 350개 협력사업</li> </ul>
인적 교류	대화관계 50주년 비전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교류(SSEAYP, JENESYS)</li> <li>쌍방향 어학 교육(WA Project 2.0)</li> <li>일-아세안 문화예술협력행동계획</li> <li>일-아세안 스포츠 행동</li> <li>사쿠라 교환학생사업(과학·기술)</li> </ul>
외교 안보	법무 외교 고위급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국가적 사안 규칙기반 분쟁해결</li> <li>범죄 예방 및 형사 협력</li> <li>규칙기반 사안 협력 증진</li> </ul>
	일-아세안 사이버안보 정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인프라 보호, 역량 강화, 산관학 사이버 훈련</li> </ul>
	일-아세안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러,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마약, 해상범죄, 인신매매</li> </ul>

자료: 상기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3) 총평

일본의 대아세안 협력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5년 혹은 10년 단위로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포괄적 중장기 협력안과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속 채택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의 협력 전반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며, 앞으로도 역내외 환경 변화 및 협력 수요를 반영해 협력안 및 이니셔티브를 개정 혹은 신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23년 비전 선언에 ‘신뢰받는 파트너(Trusted Partners)’라는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 첫 번째 협력축에 인적교류 협력안을 배치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인 청년 인재 양성과 소프트파워 확대를 적극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연계성 등 대다수의 중요 협력 분야에 인적교류 및 교육 협력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인적교류에 대한 적

극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와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입어 한국과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일본에 비해서 장기적 차원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장기 인적교류 협력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세안과 오랫동안 장기(10년) 경제협력 로드맵을 운영해온 유일한 대화상대국으로, 2023년 CSP 격상 시 경제협력 로드맵을 개정해 이후 10년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동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스타트업·지재권·기후변화·탈탄소·순환경제·보건 등 다수의 미래 협력 어젠다를 채택했는데, 이는 일본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향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DX), 그린 전환(GX), 순환경제, 연계성 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에 제시된 일본의 대아세안 미래 경제협력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접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한국은 세부 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AOIP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CSP 격상 이전에도 이미 선언된 바 있으나, CSP 격상 시기에 맞춰 JAIF 3.0을 출범시키고 AOIP 관련 지원에 적극 활용하기로 한 점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세안측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원하는 JMT의 업무 방식은 대아세안 외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향후 한국의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사업 기획 과정에서 아세안 측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아세안 주요 협력 분야들은 대다수가 아세안과 협력하에 분야별 실행계획, 이니셔티브, 전략 프로그램 등을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아세안 연계성 협력의 경우 2025년에 아세안이 MPAC 2025의 후속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



으로 '일-아세안 포괄적 연계성 이니셔티브'를 신규 채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일본은 아세안의 MPAC와 일본 측의 의향이 반영된 포괄적 연계성 이니셔티브라는 두 가지 협력 채널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이 MPAC 협력을 이행해온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 한국은 유의미한 MPAC 관련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5년 신규 MPAC 발표를 기다려서 한국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대화상대국과의 경쟁이나 중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한-아세안의 입장을 반영한 연계성 협력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호주

### 1) 호-아세안 CSP 협력 개요와 특징

호주는 1974년 아세안과 처음 대화상대국 관계를 맺은 국가이자, 2021년 아세안과 처음으로 CSP를 맺은 국가이다.<sup>190)</sup> 호주는 CSP 격상을 계기로 201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오던 호-아세안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고, 'Aus4ASEAN (Australia for ASEAN)' 제하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다. 호주의 대아세안 장기(10년) 이니셔티브인 Aus4ASEAN은 ① 미래 사업(Future Initiative), ② 디지털 전환·미래 기술사업(Digital Transformation and Future Skills Initiative), ③ 장학사업의 3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사업' 필라는 AOIP 이행을 포함해 탄소중립, 디지털, 스마트시티, 인프라 협력을 지원하며, '디지털 전환·미래 기술사업' 필라는 직업기술훈련(TVET)과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학사업' 필라는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AOIP 4대 협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한다.<sup>191)</sup> Aus4ASEAN은 두 필라의 지원 분야

---

190) 호주는 2021년 10월 27일에, 중국은 2021년 11월 22일 아세안과의 CSP 체결을 공표하였다.

를 AOIP와 명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호주의 CSP가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Aus4ASEAN의 신규 이니셔티브 출범과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협력기금인 ‘아세안·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AADCP: 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을 ‘Aus4ASEAN Futures 기금(이하 Aus4ASEAN Futures)’으로 대체하였다. AADCP II(2009~22년)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이행을 위해 고안된 반면, Aus4ASEAN Futures(약 2억 400만 호주달러, 2022~32년)는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 영역에서 아세안과 호주가 공동으로 선정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sup>192)</sup>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CSP에 대한 행동계획을 기존 POA(2020-2024)에 부속서로 추가하였다. 부속서는 호-아세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총 4개 분야의 협력계획을 담고 있다. 첫째, ‘범필라(cross-pillar, 총 4항)’에서는 △ 코로나19 이후 아세안의 그린 회복을 위한 역량 구축 강화, △ 지역 에너지 안보 및 저탄소 기술 전환, △ 아세안 소지역 개발 지원을 통한 아세안 개발격차 축소 및 포용적 성장 촉진에 대한 협력 의지를 피력하였다. 둘째, ‘정치·안보 분야(총 3항)’에서는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한 아세안 중심성 강화, △ 호-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제안, △ ADMM+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안보 협력 강화 등을 언급하였다. 셋째, ‘경제 분야(총 4항)’에서는 △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 회복, △ AANZFTA 업그레이드, △ 중소기업의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 광물 협력을 명시하였다. 넷째, ‘사회·문화 분야(총 4항)’에서는 △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역량 강화, △ 아세안의 정신건강 증진 협력 강화, △ 디지털 경제·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 IUU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해양협력 등을 제시하였다.<sup>193)</sup> 호주의 CSP 부속서는

191) DFAT, “ASEAN-Australia CS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4.).

192) Aus4ASEAN, “Australia for ASEAN Futures”(검색일: 2024. 7. 4.).

193) ASEAN Secretariat,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Strategic Partnership (2020-2024), Updated with Annex”(검색일: 2024. 7. 4.).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기존의 기초를 이어가고 있으며, 범분야 협력 이슈로 ‘환경·기후변화’ 협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2024년 7월에는 기존 POA의 종료를 앞두고 CSP 이행을 위한 신규 POA(2025~2029)를 발표하였다. 큰 틀은 기존 POA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sup>194)</sup> 범분야 협력 이슈에 AOIP 이행 지원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POA 정치·안보 협력의 ‘비전통안보·대테러’ 항목을 ‘안보협력’ 항목의 하위 조항으로 통합시키는 대신, ‘핵 안보·핵 군축·핵 비확산’과 ‘초국가적 범죄’를 새로운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경제협력에서는 ‘ICT·디지털 통합’, ‘청색 경제’, ‘경쟁·소비자보호·지적재산권’, ‘관광’을, 사회·문화 협력에서는 ‘노동·이주 노동자’ 조항을 새로 추가해 최근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였다.<sup>195)</sup>

호주는 CSP 격상 이후 아세안에 대한 경제·외교적 아웃리치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40 동남아시아 경제 전략(Invested: Australia’s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4~6일에는 호-아세안 수교 50주년을 맞아 멜버른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은 호주의 대아세안 교역·투자 기회 확대와 함께, 아세안 3개 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당면과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별정상회의의 계기에는 ① 비즈니스, ② 기후·청정 에너지, ③ 신흥 리더 교류, ④ 해양협력의 4대 주제별 트랙으로 관련 부대행사들이 개최되었다.<sup>196)</sup> 특별

194) 호-아세안 CSP 행동계획은 크게 ① 정치·안보협력, ② 경제협력, ③ 사회·문화 협력, ④ 범필라(cross-pillar) 협력, ⑤ 아세안 제도 강화, ⑥ 이행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안보 협력은 ① 정치 대화, ② 안보협력, ③ 핵안보·핵 군축·핵 비확산, ④ 초국가적 범죄, ⑤ 해양협력, ⑥ 굿거버넌스·인권의 여섯 가지 항목, 경제협력은 ① FTA·RCEP, ② 지역경제통합, ③ 금융, ④ ICT·디지털 통합, ⑤ 에너지·광물, ⑥ 농업, ⑦ 과학·기술, ⑧ 청색 경제, ⑨ 경쟁·소비자보호·지적재산권(IPR), ⑩ 관광의 열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협력은 ① 재난관리·인도주의적 지원, ② 교육, ③ 인적교류·스포츠·예술·문화, ④ 사회통합·젠더 평등, ⑤ 노동·이주 노동자, ⑥ 보건, ⑦ 환경, ⑧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여덟 가지 항목, 범분야 협력은 ① AOIP, ② 연계성, ③ 스마트시티, ④ 사이버안보, ⑤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개발격차 해소(NDG), ⑥ 개발협력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ASEAN Secretariat(2024. 7. 26.),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20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8. 21.).

195) *Ibid.*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4대 주제는 호주가 CSP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호주가 중점을 두겠다는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아세안-호주 위크(Week)’를 개최해 호-아세안 간 민간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호주는 기존에 운영하던 호-아세안 카운실에 이어, 2024년 11월 ‘호-아세안 센터’를 개소해 아세안, 동티모르와의 비즈니스, 교류, 문화 증진을 촉진할 예정이다.

## 2) 주요 협력 현황

### 가)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지원, 무역 · 투자, 인프라

호주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은 아세안 경제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호주는 ‘제2차 아세안 · 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AADCP II, 2009~22년, 5,700만 호주달러)’을 통해 △ 경제 공동체 이행을 위한 사무국의 역량 강화, △ 아세안 경제통합에 필요한 정책 연구, △ 경제 공동체 추진 우선 협력 분야(규범 및 표준개발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제공해왔다. AADCP II는 경제 공동체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 사업 및 정책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는 한편,<sup>197)</sup> 법률 · 자문, 경제, 인적자원 전문가 등의 아세안 사무국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공동체 추진을 위한 아세안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경제 공동체 청사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비롯해, 아세안 관련 기관들과

196) 구체적으로는 대아세안 교역 · 투자 촉진을 논의하기 위한 ‘CEO 포럼’과 ‘중소기업 콘퍼런스 ·마켓 플레이스’가 개최되었으며, ‘기후 · 청정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는 아세안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및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호주, 아세안 10개국, 동티모르의 미래 세대 리더들이 참여한 ‘신흥 리더 대화’와 더불어, 해양과 관련해서는 ‘해양협력포럼’을 포함한 트랙 1.5~2 대화들이 개최되었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Outcome Summary Fact Sheet”(2024. 3.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7.).

197) 주요 지원 영역(stream)은 ① 기업 개발(corporate development), ② 경제 공동체 이행 모니터링 · 평가, ③ 소비자보호, ④ 농업, ⑤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⑥ IAI/NDG(아세안 개발격차 축소), ⑦ 금융통합, ⑧ 연계성, ⑨ 서비스, ⑩ 관광, ⑪ 투자, ⑫ 에너지 · 광물, ⑬ MSME · 민간부문 개발 등으로 구성되었다. DFAT, “ASEAN 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II (AADCP II) Independent Review Report (IR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8.).

회원국의 역량 개발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 아세안 연례 투자 보고서 발간, △ 농업·관광 부문 표준 개발, △ 경제 공동체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제도 개혁 지원, △ 아세안 전력망 구축 등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 프레임워크 개발 등이 있다.<sup>198)</sup> AADCP II가 Aus4ASEAN Futures로 개편된 이후에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sup>199)</sup> 아세안 탄소 중립 전략 수립, ASEAN Tariff Finder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sup>200)</sup> 최근에는 △ Post-2025 공동체 청사진 개발, △ MPAC 2025 성과 평가 및 2045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 등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호-아세안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The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 Initiative, 2018~24년, 500만 호주달러)를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관련 표준 수립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기 이니셔티브는 △ MPAC 2025, △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DIFAP), △ 아세안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등 아세안의 디지털 관련 이니셔티브 이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① 디지털 무역 표준 개발 연구 지원, ②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안자, 규제 기관, 표준 기관들의 역량 강화 지원, ③ 디지털 표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세 가지 필라로 구성된다.<sup>201)</sup>

호-아세안 양자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AANZ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한편, 2022년 뉴질랜드와 ‘지역무역개발기구(RT4D: Regional Trade for Development Facility)’를 설립해 AANZFTA와 RCEP의 이행을 지원하고

198) DFAT, “ASEAN 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II (AADCP II) Independent Review Report (IR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8.).

199) 호주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위한 연구를 지원해, 2023년 타결된 DEFA에 포함될 9개 핵심 분야 식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 ASEAN Secretariat(2023. 12. 14.), “Aus4ASEAN Futures: Delivering Tangible and Meaningful Outcomes for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30.).

201)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호주 APEC 연구센터(RMIT 대학교), 액세스 파트너십, 호주 표준협회 등 3개의 실행 파트너가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DTS) Initiative, “About Us”(검색일: 2024. 7. 4.).

있다. 호주는 RT4D 이행을 위해 2028년까지 4,6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 모니터링·평가·학습(MEL) 지원, △ 무역·성평등 인큐베이터, △ AANZFTA 당사국 간의 참여 확대 및 관계 구축 지원 등이 있다.<sup>202)</sup>

2023년에는 ‘2040 동남아시아 경제 전략’을 발표하고, 대동남아 투자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2040 동남아시아 경제 전략’은 10대 우선 분야(△ 농업 및 식량, △ 자원, △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인프라, △ 교육 및 기술, △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 헬스케어, △ 디지털 경제, △ 전문직 및 금융 서비스, △ 창조 산업)에 대한 투자 증진 계획을 담고 있다. 상기 전략하에 외교 통상부와 호주수출금융청(EFA)은 아세안 시장의 기회 모색 및 위험·규제 프로세스에 대해 조언할 민관 협력팀(Investment Deal Teams)을 구성해 호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sup>203)</sup> ‘2040 동남아시아 경제 전략’의 주목적은 호주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지만, 인프라, 재생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아세안 회원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P4I(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P4I는 2020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민관협의체로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 간 파트너십, 인프라 사업 자문(Advisory Service), 인프라 개발 노하우 등을 지원한다. P4I에 참여하는 정부·민관 기업들이 정책 규정, 사업 우선순위 및 계획 수립, 입찰 등 인프라 개발의 전 분야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며,<sup>204)</sup> 중점 협력 분야는 교통, 에너지, 전력설비, 통신 등이다. 호주의 대아세안 인프라 협력은 직접 투자·건설보다는, 인프라 사업 단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인프라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

---

202) Australian Aid, “The AANZFTA Implementation Support Programme: An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03) Prime Minister of Australia(2023. 9. 6.),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04) 참여 기관으로는 DFAT, EY(Ernst & Young), The Asia Foundation, Adam Smith International, Ninti One이 있다.

문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성 평등, 장애, 사회적 포용, 재난위험 감소, 기후변화 등 교차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의 표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sup>205)</sup>

아울러 호주는 2019년 ‘호-아세안 스마트시티 신탁기금(AASCTF: ASEAN-Australia Smart Cities Trust Fund, 2019~24년)을 설립해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왔다.<sup>206)</sup> 스마트시티 협력 역시 하드 인프라보다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재정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의 9개 도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분야는 △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 △ 스마트 홍수 경보·완화 시스템, △ 스마트 모빌리티, △ 스마트 디지털 시티 마스터플랜, △ 스마트 고형 폐기물 재무 관리 등이 있다. 호주는 도시별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AASCTF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sup>207)</sup> 이 외에도 호주정부는 2018~22년 동안 지역 스마트시티 혁신 액셀러레이터(Regional Smart City Innovation Accelerator, 5백만 호주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세안의 미래 도시 이니셔티브의 식별·개발·지원을 위한 아세안 도시 당국, 대학,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지원하였다.<sup>208)</sup>

## 나) 기후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은 호주가 CSP 격상 이후 강조하고 있는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호주는 2023년 9월 ‘기후변화·에너지 전환 고위급 대화’에

---

205) Australian Government, “Partnership for Infrastructure(P4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06) 총 2,000만 호주달러 규모로 외교통상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ADB가 관리하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램볼(Ramboll)이 시행하는 단일 기부자 신탁기금이다.

207) DFAT and ADB(2021), “ASEAN Australia Smart Cities Trust F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08) DFAT(2018), “ASEAN-Australia Smart Cities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이어, 2024년 3월 특별정상회의 계기에는 ‘기후변화·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을 열고 아세안의 기후목표 달성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원 조달과 투자 기회를 논의하였다. 호주는 Aus4ASEAN Futures를 통해 690만 호주달러 규모의 에너지 협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세안에너지센터와 아세안기후변화센터 설립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sup>209)</sup> 소지역협력 차원에서는 ‘호-메콩 파트너십’을 통해 ‘수자원·기후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호주는 양자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청정 에너지 창구(Climate and Clean Energy Window)’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sup>210)</sup>

호주는 환경 보호와 관련해 아세안과 ‘생물보호 연구연합(Bio-Protection Research Alliance)’ 파트너십을 맺고, 2022~27년간(1,400만 호주달러) 아세안의 침입종 대비·대응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sup>211)</sup> 또한 호주는 2022~23년 아세안-국제농업연구협의단(CGIAR)의 식량안보 혁신 프로그램 연구 개발(2,250만 호주달러)을 지원해왔다. 2023년 9월에는 ‘식량안보 및 영양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세안-CGIAR의 연구 활동 및 농업 과학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하였다.<sup>212)</sup>

#### 다) 정치·안보

호주는 2019년 ‘호-아세안 정치안보 파트너십(AASP: ASEAN-Australia Political Security Partnership, 2019~25년, 1,050만 호주달러)’을 맺고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정치안보

---

209) 호주는 Aus4ASEAN Futures 기금을 통해 690만 호주달러 규모의 에너지 협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24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 Outcomes Summa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10)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24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 Outcomes Summa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11) ASEAN FAW Action Plan, “Research Alliance on Bioprote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12) “ASEAN-Australia Joint Leaders’ Statement on Strengthening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Response to Crises”(2023. 9.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파트너십의 4대 핵심분야는 ① 해양안보, ② 사이버안보, ③ 여성, 평화, 안보(WPS), ④ 초국가적 범죄이다. 상기 파트너십은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아세안 부문별 기구와 기타 아세안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22~23년에는 상기 4대 분야에 대한 대화(Dialogue) 및 워크숍 개최, EAMF, EAS 관련 행사, 평화를 위한 아세안 여성 풀(ASEAN Women for Peace Registry) 운영 등을 지원해왔다.<sup>213)</sup>

호주는 상기 이니셔티브와 별개로,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인신매매 대응 사업(ASEAN-ACT: ASEAN-Australia Counter-Trafficking Program)’이다. 2003년 아세안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은 2006년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sup>214)</sup> 일관되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정치·안보 공동체를 지원하는 호주의 대표 사업이 되었다.<sup>215)</sup> ASEAN-ACT는 아세안 지역 전역의 인신매매 대응을 목표로 하며, 호주는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아세안 협약(ACTIP: ASEAN Conven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채택 및 2017년 ‘보홀 인신매매방지 이행계획(Bohol Trafficking in Persons Workplan 2017-2020)’ 수립에 기여하였다. ASEAN-ACT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왔으며, 2018~28년(8천만 호주달러 규모) 프로그램은 아세안 회원국의 형사사법 대응 및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216)</sup> 또한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밀수, 인신매매 및 관련 초국가 범죄에 관한 발리 프로세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ASEAN-ACT와 발리 프로세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sup>217)</sup>

---

213) DFAT, “2022-23 Sou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Progress Repor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5.).

214) 주요 협력대상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6개국이다.

215)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216) ASEAN-Australia Counter-Trafficking,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5.).

217) ASEAN-Australia Counter-Trafficking, “Australia’s Response to TIP,” 온라인 자료(검색일:

해양협력과 관련해서는 ‘Indo-Pacific Endeavor’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 및 군 의료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Indo-Pacific Endeavor는 호주 방위군이 지역안보 기여를 위해 실시하는 연례 활동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세안 10개국이 주요 협력 대상국이다. 2024년 프로그램은 △ 고위급 리더십 교류, △ 정보 교환, △ 스포츠 팀, △ 세미나, △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서남아 4개국(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스리랑카)이 참여했다.<sup>218)</sup> IUU 어업 대응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부(DAFF)가 1,440만 호주달러 규모의 ‘IUU 어업 대응 및 지속가능한 어업 증진 프로그램(2022~26년)’을 운영 중이다. 호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MCS) 역량 향상, △ 동남아 지역 어업 혁신기금(SEA-RIFF) 지원을 통한 IUU 대응 지역협력 활성화, △ 수산관리에서의 성 포용성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219)</sup> 2020~24년에는 해양자원 이니셔티브(Marine Resources Initiatives)를 출범시키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sup>220)</sup>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sup>221)</sup> 2021년 출범한 이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동남아에서는 4년간 약 2,050만 호주달러를 투자해 핵심기술 표준 및 메콩강 지역의 사이버·핵심기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다.<sup>222)</sup> 그 외에도 호주는 정치·안보 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세안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역량 강화(2020~23년), △ 아세안 인권 대화 및 활동 지원(2019~23년), 장애에 관한 아

---

2024. 7. 5.).

218) Australian Government-Defence, “Indo-Pacific Endeavour”(검색일: 2024. 7. 4.).

219) DAFF, “Combating IUU Fishing and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in Southeast Asia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5.).

220) DFAT,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5.).

221)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및 핵심기술 복원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222) DFAT,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5.).

세안 마스터플랜 개발 지원(2018~23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sup>223)</sup> 아울러 호주는 ARF, ADMM+ 등에 적극 참여해 아세안 중심성에 기여하는 한편,<sup>224)</sup> 최근에는 아세안 사무국에 총 860만 호주달러의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였다.<sup>225)</sup>

#### 라) 보건, 인적 개발

호주의 보건 관련 협력은 아세안 관련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과 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아세안이 수혜 지역으로 포함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1백만 호주달러를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일본과 함께 ‘아세안 공중보건 비상사태·신종 질병 센터(ACPHEED)’ 설립 지원(2,100만 호주달러 규모)을 약속하였다.<sup>226)</sup> 호주는 아세안을 대상으로 2018~22년 440만 호주달러 규모의 ‘호-아세안 보건안보 펠로우십’을 운영해 아세안 개도국의 역학 전문가 양성에 기여해왔다. 한편 호주 전염병 통제센터(CDC)는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세안 회원국이 주요 협력대상국이다.<sup>227)</sup> 최근 ‘원헬스(One Health)’ 접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sup>228)</sup> 호주는 2021년부

223) DFAT, “ASEAN-Australia CS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4.).

224) 호주는 2021~23년 브루나이와 함께 ADMM+ 군사의학 전문가 실무그룹(EWG)의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2024~27년 캄보디아와 함께 ADMM+ 사이버안보 전문가 실무그룹(EWG)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25) ASEAN(2023. 9. 7.), “Chairman’s Statement of the 3rd Annual ASEAN-Australia Summit” (검색일: 2024. 7. 4.).

226) ACPHEED(ASEAN Centre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는 아세안 자체의 ‘질병통제예방센터’로 2022년 아세안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었다.

227) 아세안 회원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이 수혜를 받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Asia Pacific Consortium of Veterinary Epidemiology(2020~22년, 3백만 호주달러), △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2019~22년, 420만 호주달러), △ Research for One Health System Strengthening(2018~22년, 780만 호주달러), △ Asia Pacific Leaders Malaria Alliance & Asia Pacific Malaria Elimination Network(2023~27년, 1천만 호주달러) 등이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 Indo-Pacific Centre for Health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28) 원헬스(One Health)란 인간, 동물, 환경 건강 간의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감염병 문제

터 ‘호-아세안 원헬스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sup>229)</sup> 원헬스가 호주 CDC의 대외협력 프로그램의 중점 분야이고 2023년 5월 아세안 정상들이 원헬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면서, 원헬스 분야에 대한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인적 개발 관련해서는 Aus4ASEAN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의 신진 지도자들이 호주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0개 이상의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호-아세안 카운실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차세대 리더 교류 프로그램(A2ELP: Australia-ASEAN Emerging Leaders Program)을 통해 호-아세안 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정식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동티모르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 3) 총평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은 아세안의 자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세안 기구와 관련 기관의 활동 지원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세안이 공동체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돕기 위한 연구 지원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협력이 활발한 분야는 경제 공동체 지원으로,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공동체 추진과 관련해 호주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sup>230)</sup> 이는 호주의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AADCP II(2009-2022)가 경제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AADCP II가 Aus4ASEAN Futures로 개편되면서 정치·안보 공동체와 사회·문화 공동체에 대한 협력사업도 증가할 전망이다.<sup>231)</sup>

---

해결을 위해 의학, 수의학, 환경과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9) Australian Government - Indo-Pacific Centre for Health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7.).

230)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의 또 다른 특징은 다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호주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잘할 수 있는 세부 분야를 선택해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에 집중하는 것이다.<sup>232)</sup> AADCP II(2009-2022)가 경제 공동체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된 점, 디지털 표준 사업, 인신매매 대응 협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아세안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가시화함으로써,<sup>233)</sup> 공공외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이 평하는 호주의 가장 큰 장점은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식별하는 데 적극적이고, 아세안의 우선순위를 수용하는 데 매우 유연하다는 점이다.<sup>234)</sup> 이는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 방식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호주는 아세안 사무국 및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y) 등 아세안 내부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선협력 분야와 사업을 식별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선 사업을 ‘컨셉 노트’ 형식으로 제안해, 아세안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제안서를 발전시킨다.<sup>235)</sup> 호주의 사업들이 아세안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고, 아세안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또한 호주는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데, 호주 기금을 통해 아세안 사무국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아세안 사무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는 정치·안보 공동체 통합 모니터링 부서에 고위급 인력 채용을 지원해 아세안 사무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sup>236)</sup>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 운영기관을 아세안 사무국

231)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232)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RSIS Sarah Teo 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233)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234)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8., 자카르타).

235)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236) 호주가 인력 채용을 지원한 이후, 일본도 유사하게 정치·안보 공동체 고위급 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치·안보 공동체 통합 모니터링 부서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아세안 사무국 정치·안보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 2024. 9. 11., 자카르타).

입찰을 통해 제3의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이는 꼭 호주 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도 호주 사업에 대한 아세안 사무국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화상대국과 비교할 때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범위와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는 아세안 자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적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수행할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아세안 공동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위급 관료를 역임했던 한 아세안 관계자가 “호주는 우리(아세안)와 일할 때 기존 구조(structure)를 활용한다.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sup>237)</sup>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 정책결정자들에게 호주가 일하기 편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 관측된다.<sup>238)</sup> 이러한 호주의 협력 방식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공공외교 측면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 마. 한국

### 1) 한-아세안 CSP 협력 개요와 특징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대화상대관계를 수립한 이래,<sup>239)</sup>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이 아세안과 본격적인 협력을 다지기 시작한 것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한국은 1997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1998년에는 EAS의 근간이 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의 발족을 제안하는 등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동참해 왔다. 이후 ARF, EAS, ADMM+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은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지평을

---

237) Farrelly *et al.*(2024), p. 22.

238)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8., 자카르타).

239) 1989년 아세안과 부분 대화상대국 관계를 수립하고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이 되었다.

넓히는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한-아세안 양자 협력도 심화되었다. 한국은 2004년 아세안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2006년과 2008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각각 체결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한-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한국은 2011년 한-메콩 장관급 협의체 신설, 2012년 주아세안대표부 개설, 2016년 한아세안협력기금운용팀(AKPMT)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오랫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는 한반도 사안에 대한 외교적 지지와 교역·투자 증진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17년 아세안을 특정한 최초의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아세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협력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다. 신남방정책은 3P(People·Prosperity·Peace) 정책을 통해 경제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던 안보와 사회·문화 협력을 대등하게 강조하는 한편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접근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3년에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제하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을 발표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확대하고 있다.<sup>240)</sup> KASI는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과 ‘자유·평화·번영’을 연계한 8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다. KASI는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환경·기후변화 등 글로벌·지역 공동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40) 물론 신남방정책과 후속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에서 의미하는 아세안은 지역연합체로서의 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 개별국에 대한 협력까지 포함한다.

표 3-7.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8대 중점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자유	①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평화	③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번영	⑤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 지역·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 자원 확충

자료: 외교부(2023. 4. 11.), 「한-아세안 연대구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4.).

한국은 KASI 추진의 일환으로 2022년 아세안에 CSP 수립을 제안했으며, 이후 한국과 아세안은 2024년 10월 관계수립 35주년을 기념해 양측 관계를 CSP로 격상하였다.<sup>241)</sup>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아세안 CSP 수립은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2025년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갱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처럼 기존 행동계획에 CSP 부속서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대신 ‘CSP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CSP 협력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규칙 기반 질서 수립과 아세안 안보 문제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강화하고자 △ 아세안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 협력 강화, △ 비전통안보 문제 대응 강화, △ 남중국해 관련 상공 비행의 자유 재확인 및 해양법 협력 강화,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8.15 통일 선언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약속하였다. 또한 한국은 CSP 격상을 계기로 2024년 11월 처음 대면으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41) 대통령실(2024. 10. 1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4.).



경제 부문에서는 △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산업, △ 탄소중립, △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바탕을 둔 양측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간 꾸준히 협력을 다져온 디지털 경제에 이어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을 강조하는 한편, 기후·환경 이니셔티브를 확대해 아세안의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할 것을 표명하였다. 한-아세안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청년 및 여성 기업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력 증진도 약속하였다. 아울러 아세안의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확대와 아세안의 소지역 협력 지원을 통해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 확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양측의 대응 방안이 언급된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 교육, 문화, 청년 교류 프로그램 투자 강화, △ 역량 강화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 재난 관리 및 보건, 양성평등 및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대응 협력, △ 문화예술, 문화유산, 언론정보, 관광 및 스포츠 협력 촉진, △ 전문가 교류를 통한 노동 및 고용 협력 등이 있다. CSP 공동성명에 담긴 주요 협력 과제들은 2025년 수립 예정인 신규 행동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주요 협력 내용

협력 분야	주요 분야
외교·안보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증진)	한-아세안 정상회의, ARF 등 다자간 협력 강화
	비전통적 안보 문제(사이버안보, 초국가 범죄 등) 대응 강화
	남중국해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 재확인
	해양 안전 및 해양법 집행 협력 강화, 국제법 및 평화적 분쟁 해결 존중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적 대화 재개 및 8.15 통일 선언을 포함한 한국의 노력 지원

표 3-8. 계속

협력 분야	주요 분야
경제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 구축)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창조 산업,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지원
	MPAC 2025 및 후속 문서 이행 지원을 통한 교통 연결성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ASEAN+3 거시경제연구소(AMRO), 아시아 채권 시장 이니셔티브를 통한 금융 협력 증진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촉진과 경제 통합 지원
	경제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 목표와 ODA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촉진
	MSMEs, 스타트업, 청년 및 여성 기업이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 증진 [한-아세안센터(AKC) 및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실(AKBC)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한-메콩, 한-해양 동남아, ACMECS 등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개발 격차 해소
	ASEAN+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한 식량안보 협력 강화
사회·문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 마련)	교육, 문화, 청소년 교류 강화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TVET) 확대
	재난관리, 공공 보건, 사회 복지, 고령화 사회,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색
	문화유산 보호, 예술·관광, 정보, 스포츠 협력과 교류 확대
	노동 및 고용 협력 강화, 전문가 교류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증진

자료: ASEAN Secretariat(2024), "Joint Stat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pp.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2. 16.).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정부는 KASI 추진 이래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늘려왔으며, 2027년  
까지 연간 기여액을 4,800만 달러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AKCF는 1990년 한-  
아세안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아세안 특별 협력기금(SCF)’을 기반  
으로 한다.<sup>242)</sup> SCF 설립 당시 100만 달러로 시작한 협력기금은 2024년 기준  
연 2,400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sup>243)</sup> 한-아세안 우호 증진과 아세안의 중요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기금 설립 초기에는 주

242) 2015년 별도로 운영되던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특별기금(FOCF, 1996년 설립)과 통합되어, 현재의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으로 재출범하였다.

243) 1990~2022년 한국의 AKCF 누적 기여액은 약 153억 달러 규모이다.

로 인적교류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다분야로 확대되어 2023년 기준 8개 섹터 내 2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표 3-9 참고).<sup>244)</sup>

표 3-9. AKCF 이행 사업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섹터	개수	사업 금액	비중
환경	3	24.8	26.0
교육 및 훈련	5	20.7	21.7
문화 관광	6	12.0	12.6
경제 회복	4	10.9	11.5
안전: 사이버안보	2	10.3	10.8
안전: 재난관리	2	7.6	7.9
연계성	2	6.1	6.4
평화	2	3.0	3.2
<b>총계</b>	<b>26</b>	<b>95.3</b>	<b>100.0</b>

주: 금액이 높은 순으로 배열했으며, 2024년 개시한 사업들은 반영되지 않았음.

자료: AKCF(2024), "AKCF Annual Report 2023"(검색일: 2024. 10. 3.), p. 15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 지원 분야는 △ 환경, △ 교육 및 훈련, △ 문화 관광, △ 경제 회복, △ 사이버안보, △ 재난관리, △ 연계성, △ 평화이다. 2023년 예산 기준 AKCF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섹터는 ‘환경’ 부문이며, 주요 사업은 △ 산불 복원 및 지역 상생과 시장 연계성 강화 사업, △ 청정공기 사업, △ 고형 폐기물 관리 사업 등이다. 기금 설립 당시부터 지속해오던 교육 및 훈련과 문화·관광 부문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KCF의 최근 사업은 ‘AKCF 프레임워크 2021~2025(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 2021-2025)’가 규정한 사업 원칙에 기반해, 다년도 교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기 프레임워크는 단발성 이벤트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교차 분야 접근법을 사업 원칙

244) AKCF(2024), "AKCF Annual Report 2023,"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3.).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공중보건, △ 교육 및 훈련, △ 문화 및 관광, △ 경제 회복력, △ 환경 및 안전을 우선 협력 분야로 지정했다. 동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65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산불 복원 및 지역 상생과 시장 연계성 강화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약 5년 동안 ① 산불 예방 체계를 개발·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과 ② 산림에 기반을 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생산성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과 ‘지역경제 회복’을 접목하였다.

또 다른 대아세안 특별 협력기금으로는 2012년에 설립된 한-메콩 협력기금이 있다. 동 기금은 메콩 5개국의 인프라, ICT,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7대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며,<sup>245)</sup> 2022년 기준 연 기여액은 500만 달러로, 2013~23년까지 누적 기여액은 총 2,576만 달러에 달한다. 2021년에는 ‘한-해양 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을 신설(2023년 기준 연 300만 달러)해 해양 동남아 4개국의 ① 환경, ② 관광, ③ 연계성, ④ 농수산업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BIMP-EAGA와 관련해 특별 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화상대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노력이 엇보인다. 정부는 AKCF와 마찬가지로 이들 협력기금의 규모를 2027년까지 두 배 증액할 예정이다.<sup>246)</sup>

## 2) 분야별 협력 동향

### 가) 무역·투자·인프라

무역·투자는 한-아세안 관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245) 7대 우선협력분야는 ① 문화·관광, ② 인적자원개발, ③ 농촌개발, ④ 인프라, ⑤ ICT, ⑥ 환경, ⑦ 비전통안보 관련 사업이다.

246)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 한-해양 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11. 11.),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4.).

있으며, 최근 제21차 이행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공급망·청정경제 등 신통상 이슈를 포함한 FTA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sup>247)</sup> 또한 한국은 한-아세안 FTA의 효율적 이행과 경제성장 경험 공유를 위해,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경제협력기금(AKEC: ASEAN Korea Economic Cooperation Fund)’을 운영하고 있다. AKEC는 10만 달러 이하의 단년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최근 한국 정부는 1년 단위 사업의 상한액을 20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sup>248)</sup>

한국은 2014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KBC: ASEAN-Korea Business Council)를 설립하고,<sup>249)</sup> 매년 정상회의 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교류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해왔다. 2019년부터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관련 교류 이외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ASEAN-Korea Startups Partnership)을 출범시켜 스타트업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스타트업 협력은 2022년 수립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ASEAN-ROK Startup Policy Roadmap)’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통해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계획을 논의하고 있다.<sup>250)</sup>

인프라 관련해서 한-아세안은 전통적인 인프라 협력은 물론, 아세안 공동체 이행 체계인 MPAC 2025, ASCN 등에 대한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체인 교통협력 포럼을 활용해 교통 인프라 협력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중장기 협력계획인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18~20/2021~25)’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개

247) 산업통상자원부(2024. 6. 12.),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열려」, p. 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7. 29.).

248) 주아세안대표부 상무관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249) 2014년 대화상대국 수립 25주년 계기 출범, 국별로 3인씩 총 33인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대한상위가 담당한다. 정상회의 혹은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정보 교환, 공동 프로그램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50)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 교육과 교류, △ 정책과 규제개선, △ 투자와 동반성장 등 3대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계획으로 구성되며, 2024년 6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결과 9대 중점 추진 계획 중 7개를 이행 완료했으며, AKCF와 협의하에 나머지 2개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2022. 6. 16.),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검색일: 2024. 7. 29.).

발 컨설팅, 타당성 평가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 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이었으며,<sup>251)</sup>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에서는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 관련 협력이 핵심 주제로 채택되었다.<sup>252)</sup>

한편 한-아세안 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개최해 MPAC 2025 지원을 위한 연계성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다양한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아세안 연계성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ASCN 참여는 물론 ‘K-City 네트워크’ 공모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및 해외 실증형 사업을 지원 중이다. 그 외에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관련 역량 강화 사업(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the Data-driven Smart City)’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의 설립과 각종 협력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성과 사업으로 2022년 4월 자카르타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금융기관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 아세안 금융당국과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아세안 지역에서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개발의 일환으로 ASEAN Green Map 사업을 추진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 중이다.<sup>253)</sup> ASEAN Green Map은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세안 금융분과 운영위원회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아세안 사무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sup>254)</sup>

---

251) 국토교통부(2023. 11. 10.),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p. 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7. 29.).

252) 국토교통부(2024. 7. 8.), 「아세안 10개국 한자리에... 9일부터 서울에서 교통협력·상생방안 논의」, p. 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7. 29.).

253) ASEAN Green Map 사업은 지속가능 금융생태계의 필수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비전 문서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주도로 사업 기간 2023~24년, 예산 8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프로젝트이다. AKCF(2023. 7. 11.), “[Project]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n ASEAN Green Map”(검색일: 2024. 7. 29.).

254)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고위급 관료 인터뷰(2024. 9. 2., 서울).

## 나) 디지털 및 과학·기술

디지털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은 2006년부터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해왔다.<sup>255)</sup> 한국과 아세안은 장관급 협의체를 활용해 매년 ‘한-아세안 디지털 실행계획(ASEAN-Korea Digital Work Plan)’을 수립·이행해 왔으며, 주로 사이버안보·혁신·인적자원개발·연계성 등을 중점 협력사업으로 채택해왔다. 2023년에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KADIF: Korea ASEAN Digital Innovation Flagship)’ 사업을 출범시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 기반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KADIF는 사업 기간 5년, 3천만 달러 규모의 AKCF 사업으로 ① 데이터 공동생태계, ② 초고성능 컴퓨터(HPC) 구축, ③ AI 경진대회, ④ 디지털 인재양성 거점 구축, ⑤ AI 솔루션 개발·확산 등 5대 과제를 골자로 한다.<sup>256)</sup> 아울러 한국은 AKCF 사업인 ‘아세안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촉진(ASEAN DEAL, 2023~25년)’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DEFA 협상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sup>257)</sup> 또한 AKCF로 ‘아세안 여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이커머스 역량 강화(IDEA, 2023~27년, 약 568만 달러 규모)’ 사업을 시행해,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sup>258)</sup> 2024년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0여 개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고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연계한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sup>259)</sup>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협력도 활발하다. 한국은 ‘한-아세안 공동과학기술 혁신위원회(AKJSTIC)’와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AKSTCC)’ 등의 채널

---

255) 본래 명칭은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였으나, 2021년부터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로 명칭을 바꿔 개최하고 있다.

2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ADIF(Korea-ASEAN Digital Innovation Flagship) 프로젝트」(검색일: 2024. 7. 29.).

257) AKCF(2024), “AKCF Annual Report 2023,” p. 43.

258) *Ibid.*, p. 43.

2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pp. 1~2 참고.

을 통해,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를 주력 협력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이 외에도 한-아세안 과학기술 훈련 프로그램, 한-아세안 온라인 과학기술 워크숍, 한-아세안 과학기술 우수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술 부문의 협력은 현장 기술지도 사업인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스마트 산업 표준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AKSCN),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네트워크(ASEAN-Korea Electrical Safety Cooperation Network)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 다) 기후환경

최근 들어서는 환경·기후변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21년부터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sup>260)</sup>를 개최해 왔으며, 2023년 3차 대화에서는 환경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수의 협력 어젠다를 채택했다.<sup>261)</sup> 정부는 KASI의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키고, 첫 시범 사업으로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사업(AKMMM: 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을 추진 중이다.<sup>262)</sup> AKMMM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AKCF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년 프로젝트(2023~26년, 예산 1,900만 달러 규모)로, 아세안 회원국의 메탄 배출 감소 촉진을 위한 기술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메탄 배출 감축 관련 제도, 정책, 규제 강화, △ 메탄 배출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 혼합 금융

260)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2020년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하고 2021년 7월에 수립되었으며,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일본, EU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수립된 회의체로 주요 협력 분야로는 △ 대기 오염, △ 해양환경, △ 산림, △ 순환경제, △ P4G, △ 기후변화 등으로 구성된다.

261) 환경협력 부문은 △ 대기오염, △ 산림, △ 해양환경, △ 순환경제, △ 그린ODA, 기후변화 대응은 △ 파리 협정이행,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 아세안기후변화센터, △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협력 등 다수의 협력 어젠다를 채택했다. 외교부 보도자료(2023. 8. 3.), 「제3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검색일: 2024. 7. 29.).

262)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2), p. 9 참고.



과 혁신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실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메탄 배출 감축 달성, △ 모범사례와 지식 공유 촉진 등을 통해,<sup>263)</sup>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국은 AKCF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아세안의 청정공기 (CASA: Clean Air for Sustainable ASEAN)’<sup>264)</sup>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통합도시고형폐기물관리(Integrated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IMSWM)’ 사업을 추진 중이다.<sup>265)</sup> 서울대의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AKECU)과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한 산림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AKECU는 AKCF 사업으로 조림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이행해왔으며, AFoCO는 조림, 산불 지역 복원,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이행해왔다.<sup>266)</sup>

#### 라) 보건, 인적개발, 사회·문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관련 협력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중·일 3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기여를 약속하고, 2020년 1백만 달러, 2021년 5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AKCF 500만 달러를 활용해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PCR 진단 키트를 비롯한 의료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아세안 코로나19 진단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sup>267)</sup> 그 외 한국은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과 이종욱 펠로우십을

263) AKCF(2024. 9. 5.), [Project] ASEAN-Korea Cooperation on methane Mitig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5.).

264) CASA는 사업 기간 2023~26년, 예산 1,100만 달러 규모의 아세안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으로 ① 대기오염의 원인과 건강 영향 분석, ② 대기오염 모니터링·위성 데이터 접근성 향상, ③ 대기오염과 건강 영향에 대한 대비 능력 강화, ④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정책 제언 사업으로 구성된다. AKCF(2023. 1. 1.), “[Project] Clean Air for Sustainable ASEAN (CASA)”(검색일: 2024. 7. 29.).

265) IMSWM 협력사업은 사업기간 2022~26년, 예산 730만 달러 규모로 폐기물 순환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AKCF(2023. 6. 1.), “[Project] Advancing ASEAN-Korean cooperation in Integrated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IMSWM)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검색일: 2024. 7. 29.).

266) AKCF(2024), “AKCF Annual Report 2023,” p. 54.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해 왔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양자 ODA 혹은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다른 주요 대화상대국이 아세안 차원의 보건 비상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sup>268)</sup>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서는 정부초청장학사업(GKS)과 같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포함해 아세안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과 직업훈련교육(TVET)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개별국이 아닌 아세안 차원의 장학 프로그램으로는 AKCF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추진한 ‘아세안 교수초청(HEAT: Higher Education for ASEAN Talents)’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세안 교수초청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 출신 현직 교수들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아세안 모빌리티를 위한 한-아세안 TVET’ 사업을 추진해왔다.<sup>269)</sup>

인적·문화 협력 부문에서는 한-아세안센터와 아세안문화원 주도로 다양한 교류 행사들이 추진되어 왔다. 2009년 국제기구 형태로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는 한-아세안 교역·투자 촉진,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복합 공간으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서 자국에 문화원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아세안센터는 매년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를 통해 청년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외교부는 ‘한-미-아세안 청년캠프(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프로그램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센터는 양측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아세안 관광역량 개발’ 워크숍

267) 한-아세안센터(2021), 「2020 한-아세안 통계집」, p. xxxx.

268) 미국은 아세안공중보건비상조정시스템(APHECS)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는 아세안 질병통제예방센터인 ACPHEED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69) 상기 사업은 아세안의 인적자원개발과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로, 산업계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대응형 TVET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아세안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CLMV 국가들의 TVET 국가 자격 프레임워크 및 품질 보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SEAN Secretariat(2020. 10. 1.), “ASEAN, ROK launch ASEAN Mobility training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문화원은 2019년 태국에 위치한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al Center)’과 MOU를 맺고 양측 간 문화교류 확대를 모색 중이다. 한편 아세안 사무국의 문화·정보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진행 중인데, AKCF를 활용한 ‘아세안 정체성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아세안 국민들의 ‘아세안 정체성’ 제고를 시도한 사업으로, 한국의 사회·문화 공동체 지원사업 중 하나로 사무국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sup>270)</sup>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한-아세안 차세대 영화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한-아세안 영화공동체 프로그램(2022~25년)’으로 통합해 영화 교류 및 역량 개발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sup>271)</sup> 2023년에는 ‘한-아세안 축구 인적교류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FIELD)’을 출범(2023~26년)시키는 등 아세안의 스포츠 역량 강화 지원도 확대하는 추세이다.<sup>272)</sup> 한국은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및 AKCF를 활용해 한-아세안 공유문화유산에 대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세안에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하는 ‘아세안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디지털 유산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이 있다.<sup>273)</sup>

270) 정치·안보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2024. 9. 11., 자카르타).

271) ‘한-아세안 영화공동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22년 AKCF 기금(33억 원 규모)을 지원받아 2022년 재개되었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한-아세안 영화공동체 프로그램’은 부산영상위·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 등이 공동 주관한다. 「부산과 아세안 영화인 교류 다시 시작한다...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프로그램’ 재개」(2023. 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7. 26.).

272) AKCF(2022. 11. 1.), “[Project] ASEAN-Korea Football Interpersonal Exchange and Leadership Development(FIELD) Programme”(검색일: 2024. 7. 29.).

273) 국가유산청 보도자료(2023. 9. 27.), 「문화재청장,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단과 정책간담회(9. 27.)... 성과 공유, 협력 강화 논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 마) 정치·안보

한국은 ARF, EAS, ADMM+의 창설 회원국으로 관련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초국가 범죄, 대테러, 인신매매 및 밀수, 마약,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등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왔다. 최근 활동으로는 ARF의 ICT 안보 회기간회의(2021~22년, 2022~23년) 공동의장국 수임과 ADMM+의 사이버안보 전문가 분과회의(2021~24년)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예로 들 수 있다. KASI와 CSP 공동성명 역시 아세안 주도 다자간 협의회를 통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아세안 양자 차원에서는 2021년 국방장관회의(비공식 개최)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sup>274)</sup>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은 △ 군 인적 교류 활성화, △ 군 의료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 체계 구축, △ 지뢰·불발탄 제거, △ 방산·군수·기술협력, △ 해양안보, △ 사이버안보, △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 대테러 역량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sup>275)</sup> 한국은 군사 교류 측면에서 ADMM+ 회원국 간 야외기동훈련(FTX)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코브라 골드, 코모도(Komodo), 카만당(Kamandang) 등 미국, 미국의 동맹국, 아세안 회원국이 포함된 연합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ADMM+ 해양안보분과 국제해상범죄 대응훈련을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바 있다.<sup>276)</sup> 또한 개별국 양자 사업 차원이긴 하나, 일부 국가에 퇴역함을 제공해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sup>277)</sup> 그럼에도 한국의 국방 협력은 아세안과의 군 교류에 적극적인

274) 2017~22년 서울안보대화 계기에는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개최).

275) 국방부 보도자료(2021. 11. 10.),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최초 개최 -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276) 국방부 보도자료(2019. 2. 22.), 「아세안 국가 등 18개국 연합해상훈련 계획 논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277) 한국은 1993년 퇴역군함 해외 양도를 시작해, 현재까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에 퇴역함을 양도 하였으며[「비전 동서남북」 퇴역 군함 해외양도, 지원 주체는 국방부이다](2024.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0. 15.), 202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퇴역함 추가 양도 계획을 밝혔다[「한

다른 주요 대화상대국에 비해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278)</sup>

비전통 분야 안보 협력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 가장 오래되고 활성화된 분야는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초국가 범죄 고위급 협의체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 강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9년에는 고위급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2021년부터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총 127억 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연수 센터를 구축하고, 매년 아세안 지역 경찰관을 초청해 불법마약,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등 신종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79)</sup> 한국은 초국가 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 고위급 실행계획(2019~23년)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계획의 이행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2005년 ‘국제테러리즘 대응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ADMM+ 관련 대테러 훈련에 참여해왔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마약 관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2024년 제2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계기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의 전면 시행 계획을 밝혔다.<sup>280)</sup>

2023~25년에는 ‘포괄안보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업인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ASEAN Cyber Shield, AKCF 기금 약 120억 규모)’를 추진 중이다.<sup>281)</su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ACS에는 총 2년간 연간 2회(5개월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2024년 1차 교육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이 참여하였다.

---

국·아세안, 35년만에 최고수준 ‘밀착’ (2024. 10.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15.).

278) 이재현(2024. 3. 8.), 「한국의 대 아세안 국방협력,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ADMM을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279) 경찰청 보도자료(2021. 11. 16.), 「제1차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초청연수 실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280) 관세청 보도자료(2024. 6. 5.), 「관세청, 아세안 10개국과 청장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28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2023. 1. 30.), 「아세안(ASEAN)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KISA가 주도한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재난 대응 부문에서는 2022년 제1차 재난관리 장관회의 계기에 재난위험경감 우수 정책 및 지식 공유,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 등 24가지 협력과제를 담은 재난관리 실행계획(2021~25년)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0~24년 총 470만 달러 규모의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 강화 교육(D-CAB: Disaster Risk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AMS)’을 추진 중이다.<sup>282)</sup> 아울러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요청으로, 소방청이 AKCF 기금을 활용해 ‘아세안 재난관리 자 자격인증 기준 및 표준화(ASCEND Project, 2020~2024)’ 사업을 운영 중이다.<sup>283)</sup> 그 외에도 한국은 아세안 지뢰제거 센터(ARMAC)의 ‘아세안 회원국 지뢰폭발사고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메콩 국가들에서 지뢰·불발탄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284)</sup>

### 3. 소결: 주요국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 평가

대화상대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각국 고유의 외교 방식과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연합체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대외관계 관리지침이 체계화하면서 아세안도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강대국과 중견국으로

282)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 첫 개최…“한국형 대응체계 전파”」(2022. 10.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7. 25.).

283) 2019년 소방청은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와 재난대응 경험·기술 공유 및 재난관리 전문가 육성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ASCEND 사업을 추진 중이다. ASCEND는 초청 연수를 통해 아세안 10개국 재난관리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상황평가, 정보관리, 물류관리, 현장대응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함양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소방청 보도자료(2023. 8. 31.), 「아세안 10개국 재난대응관계자 한국 찾았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284) ARMAC 지원은 AKCF 기금으로,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사업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양자 ODA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구성된 CSP 대상국은 여전히 주요 안건의 협력 방식, 범위, 깊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운전대를 잡고 있다. 특히 CSP 격상 전후 시기에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아시아 내 기존 다자협약체의 구심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유사입장국으로 구성된 진영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익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아세안의 통합 노력과 공동 발전 전략 설계가 지속되면서 역내에서는 여러 새로운 어젠다가 부상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 본 장은 주요국과 아세안이 CSP를 도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 방안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사성이 높은 CSP 관련 협력계획과 고위급 협의체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국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주요국의 차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아세안과의 핵심 협력 분야를 자국이 우선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등 ‘하드웨어’ 성격의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기보다는, 민간기업 및 근로자 역량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분야에 집중해 아세안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정부는 자국이 추구하는 ‘선진적 가치’가 강조되는 분야에 협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보건, 교육, 환경, 중소기업 등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아세안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제도를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CSP 도입 이후 발표된 부속서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방대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최근 미국정부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대부분 탄소중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아세안의 제도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아세안이 범지역 공동체 구축 체제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깊이 참여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은 아세안에서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수출시장 및 공급망 측면에서 아세안의 중요도가 높

아지는 점을 고려해 아세안과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자 간 상품 소개 및 기업 교류를 위한 중국-아세안 엑스포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 및 원조 등 자금 투입 차원에서 중국은 기존 대표 협력국인 일본의 경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아세안과의 연계성 관련 협력은 중국 내륙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류, 교통, 산업단지 등 물리적, 지리적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G, 핀테크 등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플랫폼 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은 기존 중국이 주도해 온 경제협력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아세안 내외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되고 아직까지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장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구축해 온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또는 세련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에서 일본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고품질화 및 특화를 통해 협력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연계성 관련 부문에서 양질(quality)과 다층적(multi-layer)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교통, 디지털, 녹색 등 다양한 인프라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 등 인적 교류,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등 타 협력국이 다소 수사적으로 강조해 온 분야에서 일본은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며 가시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및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청년 연수 프로그램(JENESYS)은 지난 16년 동안 누적으로 4만 명 이상을 초청한 바 있다. 일본은 아세안 내 협력 경험이 많은 기관을 적극 활용해 협력 어젠다를 설정 및 추진하는 특징도 보인다. ADB와 일본은 메콩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 전략을 함께 추진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일본이 지원하는 경제연구소 ERIA는 신재생에너지 등 일본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큰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성과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다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력 기능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한다. 호주는 아세안의 협정 이행, 기술 발전, 표준 개발 관련 지원 및 자문에 집중하면서 단기적 성과의 노출도가 다소 낮더라도 양국 간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교류 기회가 많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전략 및 정책의 제도적 이행 및 개선을 지원하면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202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의 설계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호주의 지원 규모는 미·중·일과 비교해 제한적이나, 자국이 장기적으로 집중할 특화 분야를 발굴해 재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 호주정부는 아세안 정책담당자들의 수요를 잘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정평이 있다. 더불어 최근 호주가 아세안이 핵심 대외 파트너인 점을 강조하는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는 점도 눈에 띈다. 미·중·일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형 사업 설계에서도 한국이 배울 점이 많지만, 호주의 섬세한 접근법도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상기 4개국의 협력 방식과 특징을 비교해 보면, 미국과 호주는 대규모의 자원 투입보다는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협력도 주력할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앞세워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안보 갈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ERIA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연계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되 '질 좋은 인프라' 가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국과 미국, 호주의 협력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되 중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으며, 아세안의 제도적 역량 강화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만한 양자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과 호주가 주력 협력 분야를 선택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는 반면, 한국은 투입 자원 대비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큰 틀에서의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세안의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며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협력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야의 범용성과 유연성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만한 시그니처 협력 분야와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 제4장



# 아세안의 대화관계 인식과 한-아세안 관계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함의



#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 가.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앞선 2~3장의 아세안-대화상대국 협력 분석에 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세안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1’ 협력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아세안 전문가들이 아세안의 협력 수요와 대화상대국의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한-아세안 협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아세안 회원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1’ 관계 인식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정영식 외(2020)이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으나, 신남방정책 평가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수립 수요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한국의 대화상대관계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sup>285)</sup> 대화상대국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인식을 조사한 해외 연구로는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Yusof Ishak Institute(이하 ISEAS)의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 이하 ISEAS Survey Report)’가 대표적이다. 2019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ISEAS Survey Report는 아세안 10개국의 여론 주도층 1,994명(2024년 기준)을 대상으로 △ 아세안 역내 협력 및 도전과제, △ 주요국의 역내 영향력과 리더십, △ 미·중 경쟁, △ 주요국에 대한 신뢰도 및 소프트파워 등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sup>286)</sup> ISEAS Survey Report는 동남아 주요 현안에 대한 아세안 지도층의 시각과 더불어, 경제·안보적으로

---

285) 정영식 외(2020)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수립을 위한 정책 용역 과제로 수행되었으며(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발주), 주아세안 회원국 공관을 통한 약식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286) Seah *et al.*(2024).

중요한 아세안 역외 국가, 이 국가들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기대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ISEAS Survey Report는 미·중 경쟁을 포함한 지역 질서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아세안-대화상대관계 이행 방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ISEAS Survey Report는 미·중·일 등 역내 주요 강대국에 중점을 두는 만큼,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 대한 아세안 측의 기대와 평가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287)</sup>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는 ① 아세안+1 대화상대관계(Dialogue Partnership)에 대한 아세안의 수요, ② 아세안 수요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협력 평가, ③ 주요국과의 비교를 포함한 한-아세안 관계 평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설문조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아세안의 구체적인 협력 수요에 대해 잘 대응한다고 평가받는 대화상대국들을 식별하고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하기 어려웠던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 전문가들의 인식과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관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문헌 검토를 수행하고,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현지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럼에도 본 설문조사는 조사의 주체가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본 수의 한계와 응답 편향성에 대한 가능성은 본 설문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

287) Hoang Thi Ha ISEAS 아세안센터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 나.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본 연구가 아세안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만큼, 설문조사는 아세안 회원국 내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 싱크탱크 네트워크(ASEAN ISIS: ASEAN 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사무국 역할을 해온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와 협업해,<sup>288)</sup> CSIS가 보유한 전문가 집단 풀(pool)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총 200명의 표본 확보를 목표로 아세안 10개국의 국제관계, 외교정책 등 연관 분야 전공 학자,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 외교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종사자 55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총 107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웹 서베이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로 진행되었다. 설문 내용은 CSIS의 설문 설계 전문가와 인도네시아 외교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구성되었다.

---

288) ASEAN-ISIS는 1988년 공식 출범한 아세안 지역 싱크탱크 네트워크로서, 아세안 역내 트랙2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4-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국제관계 · 외교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			
조사 지역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조사 인원	12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107개의 유효 표본 확보			
	브루나이	5명	캄보디아	8명
	인도네시아	23명	라오스	1명
	말레이시아	12명	미얀마	7명
	필리핀	13명	싱가포르	14명
	태국	15명	베트남	9명
조사 언어	영어			
조사 기간	2024. 7. 15.~2024. 8. 9.(4주)			
조사 기관	인도네시아 CSIS(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조사 방법	웹 서베이 플랫폼(서베이 몽키)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자료: 저자 작성.

설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설문 파트는 ‘아세안의 이해(interest) 증진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인식 및 평가’를 가늠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② 아세안이 당면한 중요한 협력 수요가 무엇인지, ③ 아세안의 특정 수요에 대해 어느 대화상대국이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설문 파트에서는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기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 강·약점과 가시성,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과 협력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자들에게 사전 동의(온라인)를 얻어 진행되었다. 응답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적과 직업군 외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도 익명화해 관리하였다.

표 4-2.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 항목
일반 사항	1. 국적 2. 직업군
아세안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인식 및 평가	1. 아세안으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을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action) 2. 아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 3.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 3-1. 해당 분야 협력을 가장 잘하고 있는 3대 대화상대국 4.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긴급한 지역 현안 4-1. 해당 현안 문제 해결에 가장 잘 협력하고 있는 3대 대화상대국 5. AOIP 이행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6. 인도-태평양 담론에 대한 접근·대응이 AOIP와 가장 유사한 국가 7.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
한-아세안 관계 평가 및 기대	1.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지식 수준 2.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reliability) 평가 3.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 4.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advantage) 5.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취약점(disadvantage) 6.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여부 6-1.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요인 7.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지속가능성 7-1.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이유 8. 한국의 대아세안 FDI 규모에 대한 인식 9.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규모에 대한 인식 10. 한국의 대아세안 ODA 규모에 대한 인식 11.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 12. 한-아세안 협력 강화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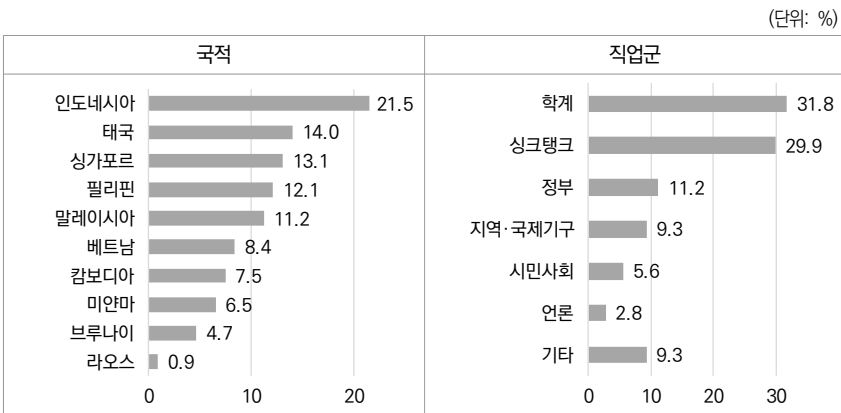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국별 비중은 인도네시아(21.5%)가 가장 높았으며, 태국(14.0%), 싱가포르(13.1%), 필리핀(12.1%), 말레이시아(11.2%), 베트남(8.4%), 캄보디아(7.5%), 미얀마(6.5%), 브루나이(4.7%), 라오스(0.9%) 순이었다. 라오스의 비중이 특히 저조한 이유는 2024년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라오스 외교 실무·전문가들이 각종 외교 행사 준비로 설문에 응할 여력이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본 설문조사는 국별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해 국별 선호도나 응답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대신 아세안 역내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응답자를 직군별로 분류해보면 학계(31.8%) 및 싱크탱크·연구기관(29.9%) 종사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정부 관계자(11.2%), 지역·국제기구(9.3%), 시민사회단체(5.6%), 언론(2.8%)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답한 응답자는 9.3%였다.<sup>289)</sup>

그림 4-1. 응답자 특성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 설문조사 결과

### 가. 대화상대국의 역할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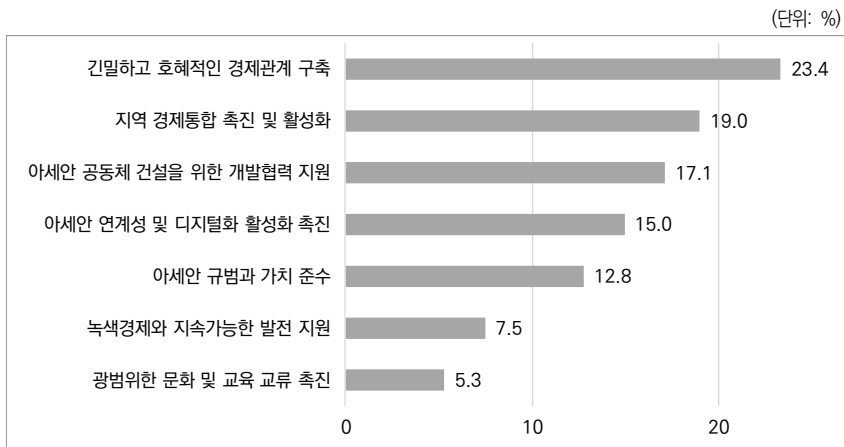
#### 1) 대화상대국의 협력 분야·방식에 대한 선호도

아세안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대한 지지 외, 아세안으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을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action)를 조사한 결과, 상위 3순위는

289) '기타' 직군별로는 국방 관계자, 외교 고문, 비즈니스·무역 종사자 등이 있다.

① ‘긴밀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 구축’(23.4%), ② ‘지역 경제통합 촉진 및 활성화’(19.0%), ③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개발협력 지원’(17.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세안 연계성 및 디지털화 활성화 촉진’과 ‘아세안 규범과 가치 준수’가 각각 4순위(15.0%)와 5순위(12.8%)에 올랐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 노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7.5%)을 기록하였으며, ‘문화·교육 교류’가 가장 낮은 순위(5.3%)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발전, 경제통합, 개발격차 해소가 아세안의 최우선 과제이며, 대화상대국의 협력 역시 상기 분야에 집중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정 이슈도 중요하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포괄적인 경제 관계 및 통합에 관한 관심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적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쳐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및 교육 교류 역시 경제적 현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긴급하게 평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2. 아세안으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을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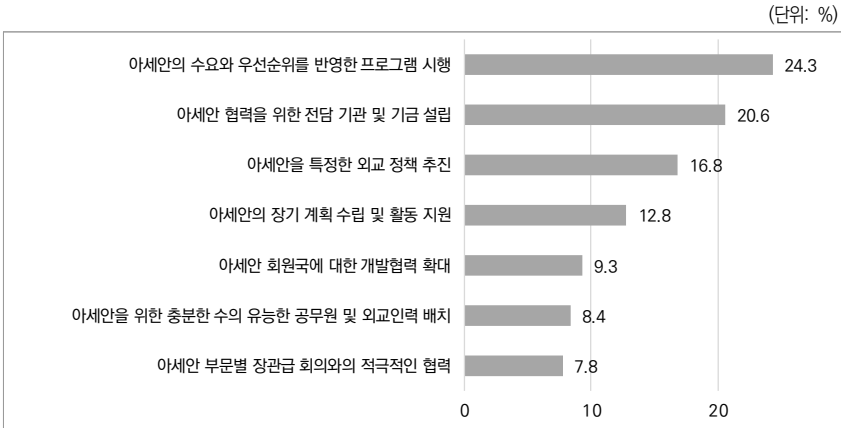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아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appreciated) 가장 효과적인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 시행’(24.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이 공동체 통합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아세안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지 조사에서 면담한 다수의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도 대화상대국의 협력 방식을 평가할 때 아세안의 수요를 식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sup>290)</sup> 2순위는 ‘아세안 협력을 위한 전담 기관 및 기금 설립’(20.6%)이 차지하였는데, 아세안이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담 기관과 기금 설립은 대화상대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협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아세안을 특정한 외교 정책 추진’(16.8%) 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경쟁 심화로 ‘아세안 중심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외교정책 추진은 아세안을 중요한 지역 행위자 및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아가 이러한 외교정책은 대아세안 협력 강화로 이어져, 아세안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장기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12.8%)은 4순위로 꼽혔는데, 아세안 통합 비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대화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반면 ‘아세안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및 외교 인력 배치’(8.4%)와 ‘아세안 부문별 장관급 회의와의 적극적인 협력’(7.8%)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한 협력 수단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세안이 기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세안은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90)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그림 4-3. 아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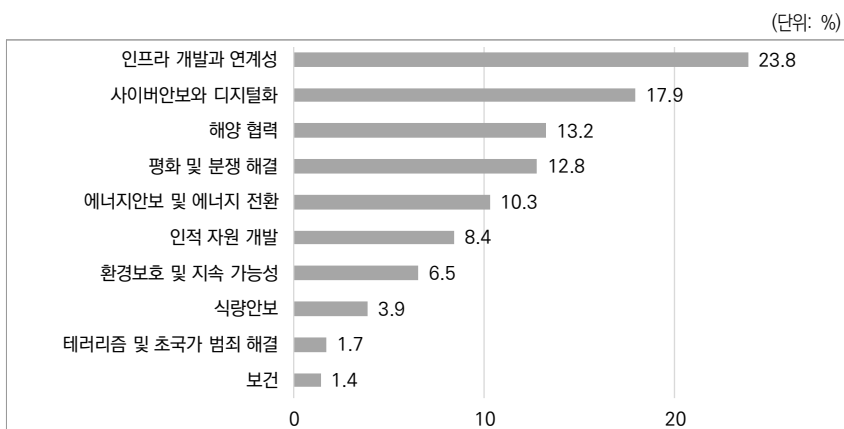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 아세안의 협력수요와 대화상대국 평가

본 설문은 아세안 전문가들이 아세안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 수요와 당면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기 과제와 이슈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로는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2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세안과 주요 협력국이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인프라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협력 분야로는 ‘사이버안보와 디지털화’(17.9%)가 선정되었다. 현재 아세안에서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협력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에도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산업 측면의 디지털 협력 수요도 큰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중요한 협력 분야로는 ‘해양 협력’(13.2%)이 선정되었다. 해양 협력에는 해양 산업 및 인프라 협력도 포함되나, 다음으로 중요한

협력 분야가 ‘평화 및 분쟁 해결’(12.8%)이라는 점과 여타 문항에 대한 답변에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하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 협력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 전환’(10.3%)과 ‘식량안보’(3.9%) 등 경제안보 이슈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주요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본격적으로 발발했던 2020년대 초반과 비교해 최근 자원 가격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및 식량안보 관련 이슈는 조사 시점에 민감할 수 있어 향후 협력 수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수요는 6.5%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아세안 이 대화상대국에 바라는 협력 행위에서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즉 아세안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이슈보다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이슈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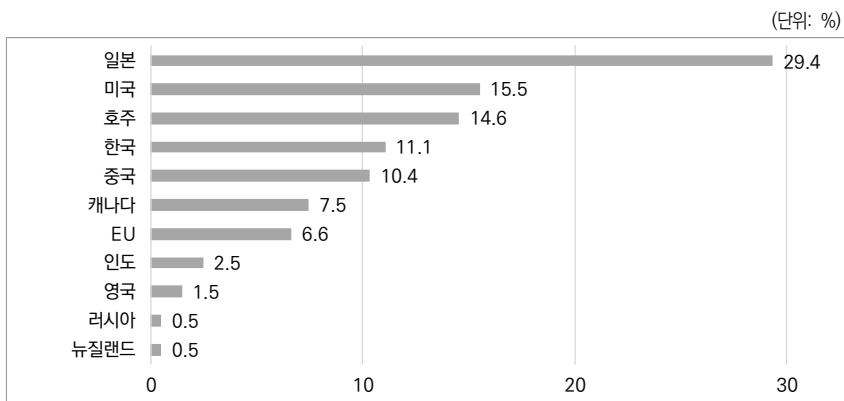
그림 4-4.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3개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응답자가 선정한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는 일본(29.4%), 미국(15.5%), 호주(14.6%)가 꼽혔다. 현지 조사에서 면담한 아세안 관계자들도 특히 이 세 국가가 아세안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지 수요가 큰 분야에서 협력의 효과도 클 수 있으므로 3대 국가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11.1%)이 4위를 차지한 점은 긍정적이며, 5위를 기록한 중국(10.4%)보다 순위가 높은 점이 눈에 띈다.<sup>291)</sup>

그림 4-5. (그림 4-4 문항에 이어)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가장 잘하는 대화상대국  
(가장 중요하다고 선정한 3대 이슈별로 3개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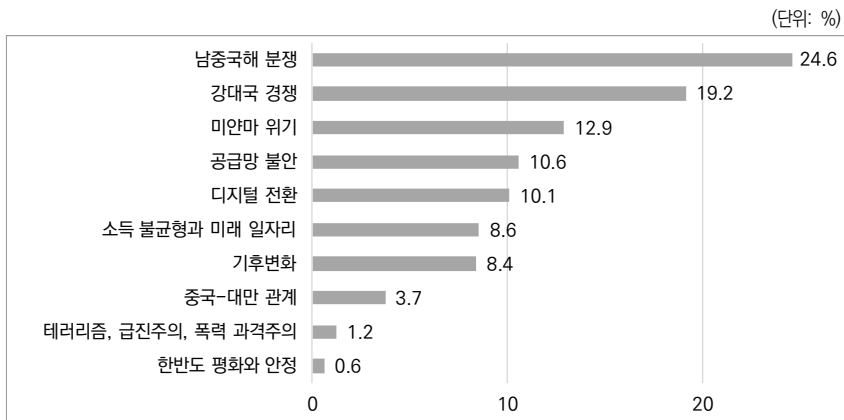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현재 아세안이 집중해야 할 가장 긴급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분쟁’(2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의 해양권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강대국 경쟁’(19.2%)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두 강대국의 마찰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아세안의 경제와 안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291) 본 문항에서 한국을 3대 국가로 선정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이 몇 번째로 협력을 잘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한국을 4위(40.4%)로 선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는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3순위 지역 현안으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 중인 ‘미얀마 위기’(12.9%)가 꼽혔다. 1순위, 2순위 과제에 비해 미얀마 위기가 여타 아세안 국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해당 이슈가 아세안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4년 9월 10~11일 개최된 아세안 싱크탱크 서밋(ATTS: ASEAN Think Tank Summit)을 참관한 결과, 아세안 전문가들은 미얀마 위기가 아세안 중심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sup>292)</sup> 앞서 협력 수요 조사에서는 경제 이슈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긴급 지역 현안으로는 1~3위 모두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정적인 지역 질서 유지가 역내 협력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아세안의 인식을 반영하는 듯하다. 한편 ‘중국-대만 관계’(3.7%)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0.6%)은 낮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아세안이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또는 ‘아시아’ 이슈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6.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긴급한 지역 현안(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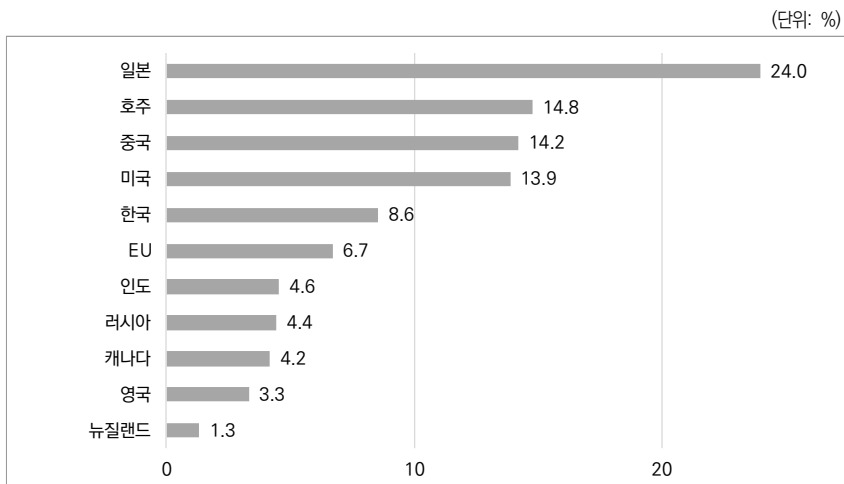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92) 자카르타 현지조사(2024. 9. 11.) 시 ASEAN Think Tank Summit(ATTS) 참관 내용.

아세안의 가장 긴급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협력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는 일본(24.0%)과 호주(14.8%)가 꼽혔다. 미국의 유사 입장국으로 쿼드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미·중 갈등의 당사국이 아닌 두 국가가 아세안이 직면한 안보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중국(14.2%)과 미국(13.9%)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아세안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안보 과제가 미·중 갈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두 당사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순위는 5위로 낮지 않지만,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에 언급한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sup>293)</sup>

그림 4-7. (그림 4-6 문항에 이어)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가장 잘하는 대화상대국 (가장 긴급한 3대 현안별로 3개국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93) 본 문항에서 한국을 3대 국가로 선정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이 몇 번째로 협력을 잘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한국을 5위(33.2%)로 선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 3) AOIP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역할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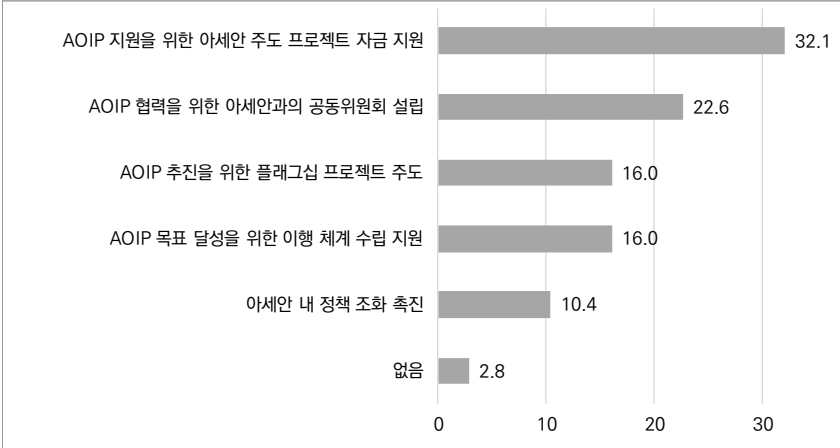
아세안은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AOIP를 통해 아세안 주도의 포용적 질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표명하고 AOIP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설문은 대화상대국이 AOIP의 이행에 대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OIP 이행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AOIP 지원을 위한 아세안 주도 프로젝트 자금 지원’(3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AOIP의 핵심이 ‘아세안 중심성’ 강화인 만큼, 아세안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4년 아세안 싱크탱크 서밋(ATTS)에 참석한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위해 아세안이 자체적인 AOIP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AOIP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294)</sup> 2순위 응답은 ‘AOIP 협력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동위원회 설립’(22.6%)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대화상대국과 협력 시 아세안이 함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AOIP 추진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도’(16.0%)와 ‘AOIP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체계 수립 지원’(16.0%)이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대화상대국의 정책 자문과 기술적 지원 또한 아세안이 AOIP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세안 내 정책 조화 촉진’(10.4%)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이 더 큰 우선순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94) 자카르타 현지조사(2024. 9. 11.) 시 ASEAN Think Tank Summit(ATTS) 참관 내용.

그림 4-8. AOIP 이행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역할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인도-태평양 담론에 대한 접근이나 대응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AOIP와 가장 유사한(converge) 상위 3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24.2%)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보다 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개념을 제시하고, 쿼드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인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1순위에 오른 것은 동남아 지역 전반에 걸친 일본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은 ISEAS Survey Report의 국가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해왔다.<sup>295)</sup> 일본은 오랫동안 개별국에 대한 ODA 및 아세안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며 동남아에서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러한 협력 레거시가 일본의 FOIP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sup>296)</sup> 또한 일본은 FOIP 전략 발표

295) 일본은 2019년 ISEAS Survey Report가 발표된 이래, 매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가로 꼽혀왔다. Seah *et al.*(2024), p. 62.

296)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Hoang Thi Ha ISEAS 아세안센터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의식해, FOIP를 ‘전략’에서 ‘비전’으로 수정하고 일본의 FOIP가 배타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왔다.<sup>297)</sup> 아세안의 민감성을 반영한 이러한 외교 전략은 일본의 FOIP가 아세안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기여했으리라 추측된다.

호주가 19.2%로 2위를 차지했는데, 호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태 전략을 강력히 지원하는 국가이다. 특히 AUKUS 출범은 지역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일부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298)</sup> 그럼에도 호주가 오랫동안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아세안 중심의 아태 다자협력 질서 조성에 기여해온 점이 긍정적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오랫동안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며, 아세안이 지역 다자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다.<sup>299)</sup> 아울러 호주는 2021년 대화상대국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며, 아세안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더욱 강화해왔다. 물론 아세안이 미·중 간 선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호주의 중견국 포지션 또한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졌을 것이다.<sup>300)</sup>

또 다른 대표 중견국인 한국은 13.8%로 3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AOIP와 유사한 ‘포용적 협력’을 강조해왔다. 최근 5년간 한국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거치며 대아세안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이끌어냈으리라 추측된다. 2024년 ISEAS의 Survey Report에서도,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아세안에 전략적

---

297) Koga(2020), pp. 65-66.

298) Tyler(2022. 9. 13.), “Has Southeast Asia warmed to AUKUS one year 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4.).

299) 배기현(2016).

300)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고, 본 질문에 응한 대상자 중 인도네시아 국적이 제일 많은 점이 호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중요성을 갖는 다섯 번째 국가로 평가받았다.<sup>301)</sup> 그러나 본 설문 문항이 전반적인 대화상대국의 신뢰도가 아닌 ‘AOIP와 유사한 인태 전략을 구사 중인 국가’를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가 목적이 아닌 한국의 인태 전략이 일본과 호주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 인태 전략의 ‘포용적’ 접근이 아세안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한국이 미국 쪽에 기울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인태 전략이 AOIP와 유사하게 비추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sup>302)</sup> 그럼에도 한국이 ISEAS Survey Report에서 일본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아온 EU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각각 10.4%와 6.9%로 4위와 5위를 기록하였다.<sup>303)</sup> AOIP가 강대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문서임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이 두 국가의 비전이 패권 경쟁을 가속화해 동남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중국보다 미국을 택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와 EU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6.2%와 5.8%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 역시 아세안과 유사한 포용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RCEP 협상 탈퇴 이후 인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EU의 경우 2024년 ISEAS Survey Report에서 아세안에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으나,<sup>304)</sup> 다른 국가들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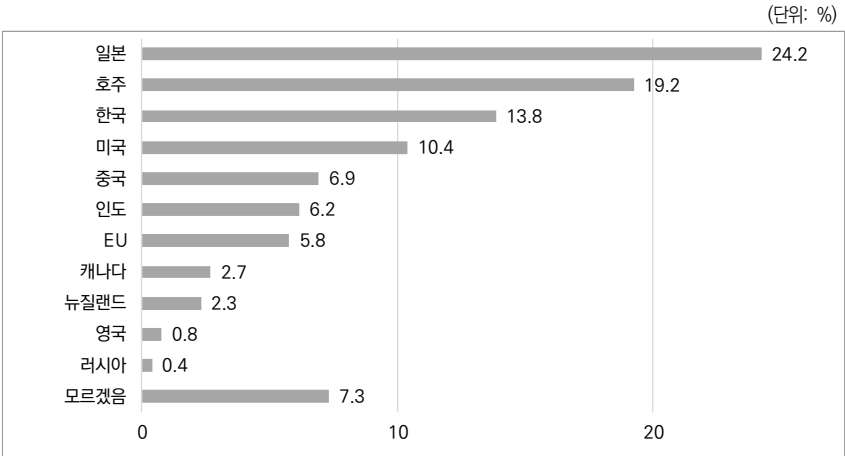
301) Seah *et al.*(2024), p. 38.

302)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303) ‘모르겠음’은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해 EU의 인태 전략이 아세안에 충분히 환류되지 않았거나, EU가 인도-태평양에 속하는 지역이 아닌 것이 낮은 순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9. 인도-태평양 담론에 대한 접근·대응이 AOIP와 가장 유사한 국가(3개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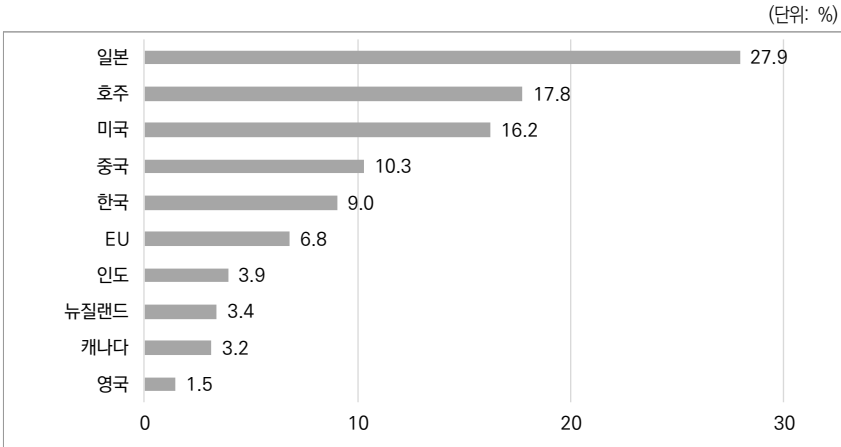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에 관한 질문에서도 일본(27.9%)과 호주(17.8%)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위에서 제시한 이유에 기반한 결과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16.2%)과 중국(10.3%)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는데 전문가들은 양국의 패권 경쟁이 역내 불안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동시에 두 강대국이 여전히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다. 한국(9.0%)은 5위를 기록했다.

304) Seah *et al.*(2024), p. 38.

그림 4-10.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최대 5개국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나. 한-아세안 관계 평가 및 기대<sup>305)</sup>

### 1) 한국의 신뢰도 및 협력의 효과성 평가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reliability)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신뢰(highly reliable)’가 22.9%, ‘비교적 신뢰(moderately reliable)’가 56.2%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약간 신뢰(slightly reliable)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매우 신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한국이 대화 파트너로서 기본적인 신뢰를 얻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신뢰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이 1.9%로 매우 낮은 것은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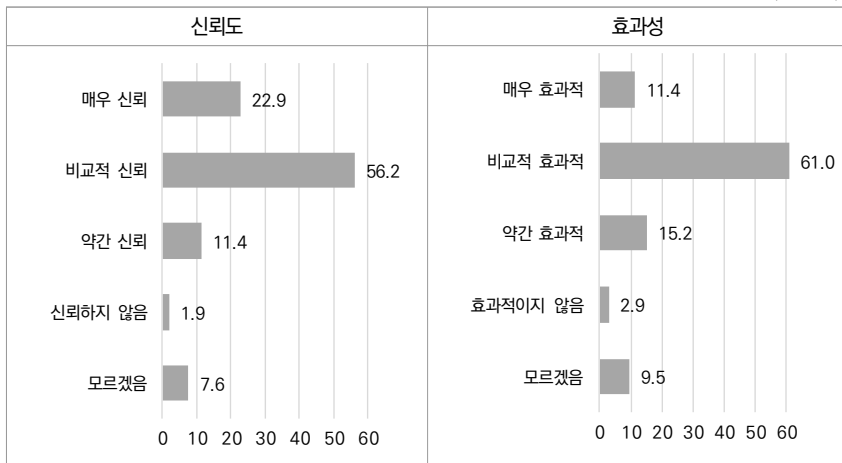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협력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한 문항에서는,

305) 본 설문문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친숙도(familiarity)를 조사한 결과, 11.4%가 매우(very) 친숙, 31.4%가 비교적(moderately) 친숙, 26.7%가 약간(somewhat) 친숙, 17.1%가 조금(slightly) 친숙, 13.3%가 아예 친숙하지 않다(not at all)고 답하였다.

‘매우 효과적’이 11.4%, ‘비교적 효과적’이 6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뢰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아세안 협력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11.4%에 불과한 것은, 한국의 협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대화 상대국에 비해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효과적이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이 2.9%에 불과한 점은 긍정적이나, ‘모르겠음’(9.5%)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협력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자면 ‘신뢰도’와 ‘효과성’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대화 파트너로서 기본적인 신뢰도와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11.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와 협력의 효과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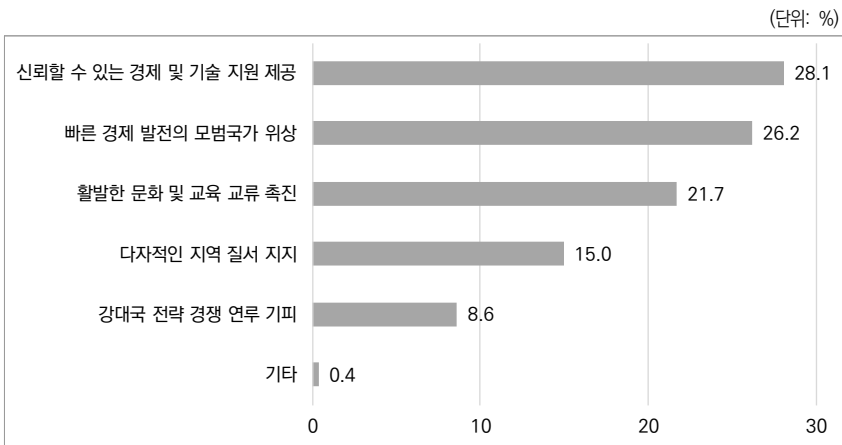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과 취약점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을 평가한 결과, 54.3%의 응답자가 경제 분야

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항목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기술 지원 제공’(28.1%)으로, 이는 아세안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와 기술 협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아세안 국가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평가라 볼 수 있다. ‘빠른 경제발전의 모범국가 위상’(26.2%) 역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아세안 국가들에 주요 모범사례이자 협력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활발한 문화 및 교육 교류 촉진’ 또한 21.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306)</sup> 또한 한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TVET) 사업들이 아세안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4-12.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최대 3개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306) 기타로 답변한 건 또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꼽았다.



한편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다자적인 지역 질서 지지’는 15.0%의 응답률을 보였다. ISEAS Survey Report에서 ‘글로벌 자유 무역주의 어젠다 촉진’과 ‘규칙기반 질서 및 국제법 지지’에 적극적인 국가를 묻는 유사 문항에서 한국이 항상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sup>307)</sup> 이러한 차이는 다자주의 지역 질서 형성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인정받고는 있지만, 이 분야에서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로까지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대국 전략 경쟁 연루 기피’는 8.6%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미·중 간 선택을 원치 않는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징이 크게 강점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ISEAS Survey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왔는데, ‘미·중 전략 경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제3의 국가’ 질문에서 한국은 항상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sup>308)</sup> 오랫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경제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크게 쌓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자면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을 신뢰할 만한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협력할 전략 파트너로서의 인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취약성을 평가한 문항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이 27.5%로 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아세안 외교·안보 협력 확대의 한계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이 ‘인태 전략’을 통해 한반도를 벗어나 지역 안보협력 참여를 높이려 노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북핵 문제와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왔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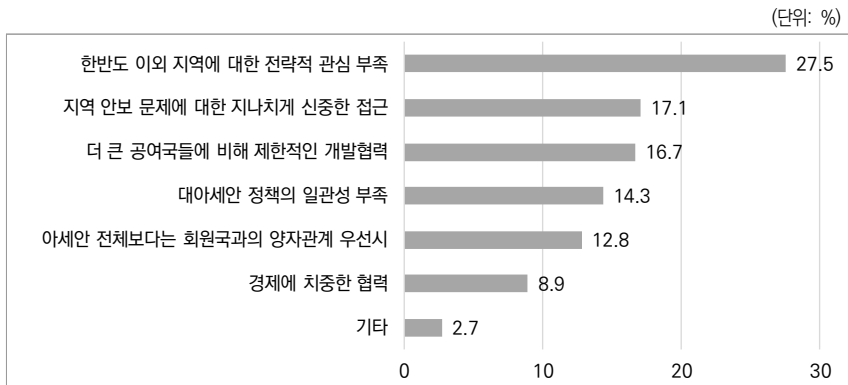
307) 2024년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자유 무역 어젠다를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1.3%의 지지를, ‘규칙기반질서 및 국제법 지지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1%의 응답률을 얻었다. Seah *et al.*(2024), pp. 41-43.

308) 2024년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택한 응답자 비율은 5.9%로, 2023년(3.2%)과 비교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문항으로 제시된 6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다. *Ibid.*, p. 49.

락에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17.1%로 2순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신중했던 점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설문 문항의 기타 답변에서도 ‘아세안 안보 이슈에 대한 낮은 관심’이 한국의 취약성으로 지적되었다.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이 정치·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더 큰 공여국들에 비해 제한적인 개발협력’과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각각 16.7%와 14.3%를 차지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가장 큰 ODA 수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 더 큰 공여국들이 많다 보니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의 가시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오랫동안 아세안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아 온 단점 중 하나이다. 이어 ‘아세안 전체보다는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 우선시’가 12.8%, ‘경제에 치중한 협력’이 8.9%의 응답률을 보였다.<sup>309)</sup>

그림 4-13.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취약점(최대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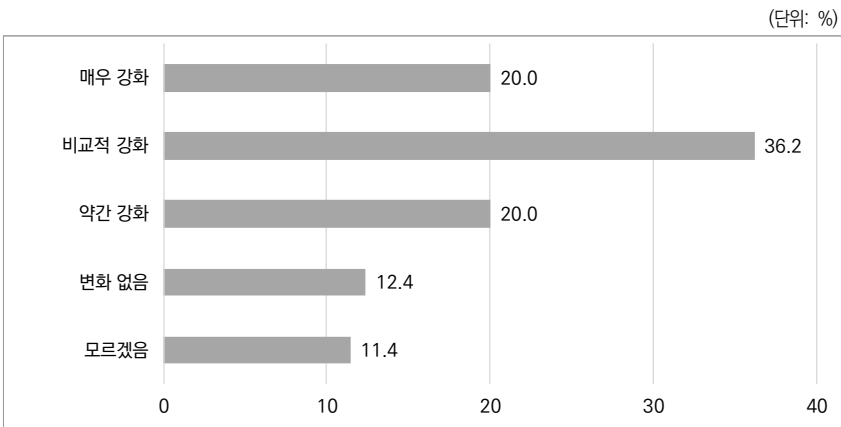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309)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대통령 임기에 따라 변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한국 국내 정치 변동성에 의한 대아세안 정책 변화’, ‘한국 프로젝트의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 ‘한-아세안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한국 담당자들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 부족’, ‘미국을 택한 한국의 편향성’ 등이 언급되었다.

### 3)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여부 평가

한국이 대아세안 협력을 확대해온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76.2%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중 20.0%가 '매우 강화', 36.2%가 '비교적(moderately) 강화', 20.0%가 '약간(slightly) 강화'로 답하였다. '변화 없다'는 평가가 12.4% 있기는 했지만, 꽤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한-아세안 관계가 지난 5년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4-14.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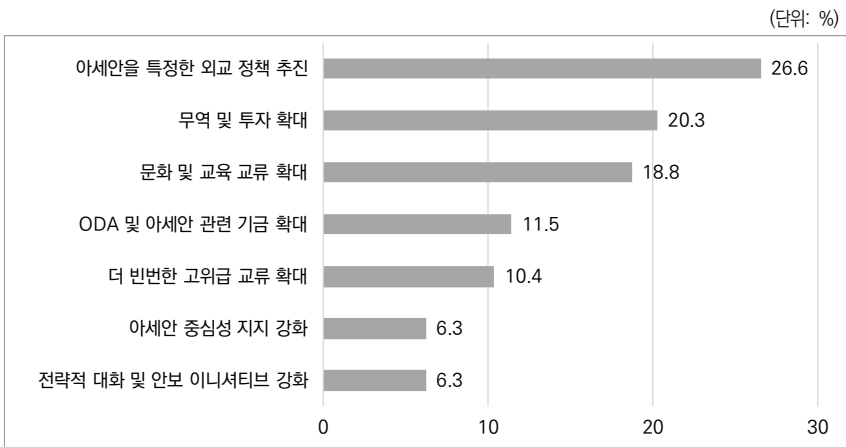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협력 강화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같은 '아세안을 특정한 외교정책 추진'이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아세안에 인정받을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 질문에서 '아세안을 특정한 외교정책' 추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점(3위)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 외교 역사상 아세안을 최초로 겨냥한 신남방정책에 이어, 후속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이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무역·투자 확대가 20.3%, 문화 및 교육 교류 확대가 18.8%로 각각 2순위와 3순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아세안 경제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민간 수요 증대와 더불어, 한국정부가 최근 5년간 대아세안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인적·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이 대아세안 정책을 강화하며 ODA 및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계속 증액해 왔음에도 이러한 재원 확대를 협력 강화의 요소로 꼽은 응답자들은 11.5%에 그쳤다. 이는 한국 협력사업에 대한 공공외교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 다른 주요국들이 제공하는 개발재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재원 확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정치·안보 부문에서 협력 강화를 가늠할 수 있는 ‘아세안 중심성’(6.3%)과 ‘전략적 대화 및 안보 이니셔티브 강화’(6.3%)는 가장 낮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15.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요인(최대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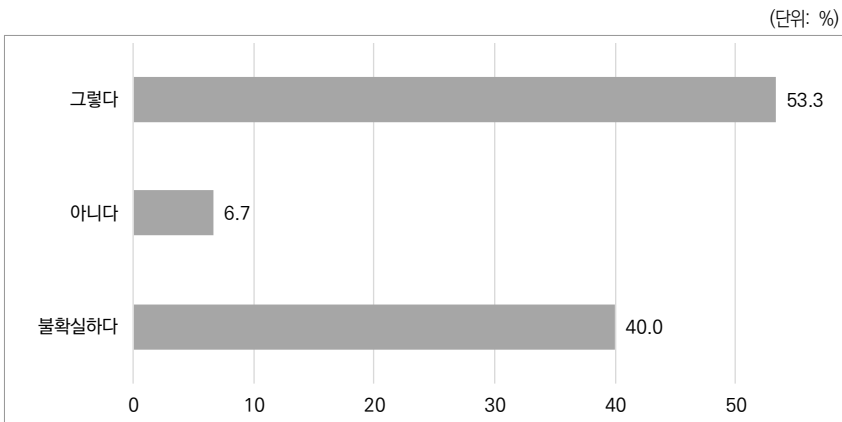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4) 한국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3.3%)가 '그렇다'고 평가하였으며,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6.7%로 소수에 머물렀다. 과반수가 지속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데에는 한국이 싼남방정책과 그 후속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대아세안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확실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40.0%로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에게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6. 한국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변화'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한국의 취약성으로 꼽은 응답자들이 있었다는 점과 유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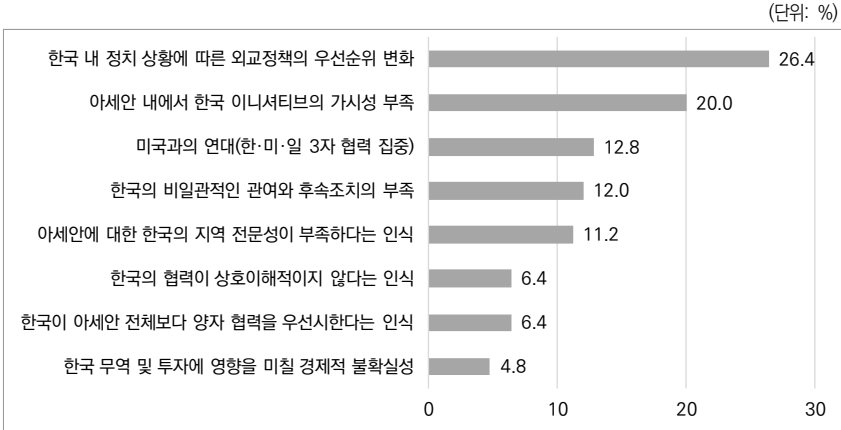
다. 실제로 신남방정책 이전까지 한국의 대아세안 관여는 기복을 반복해왔다.<sup>310)</sup>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신남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변동하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아세안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선호하는 만큼,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아세안 내에서 한국 이니셔티브의 가시성 부족’도 20.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에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아세안 국가들에 충분히 인식되거나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세안 외교가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 및 공공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과의 연대(한·미·일 3자 협력 집중)’가 12.8%, ‘한국의 비일관적 관여와 후속 조치 부족’이 12.0%,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지역 전문성 부족’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한국 대아세안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는 관여와 후속 조치 강화,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지역 전문성 강화 또한 한국이 향후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상기 결과는 한국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310) 이재현(2018. 1. 24.),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0. 5.).

그림 4-17.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이유  
(최대 3개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5) 한-아세안 협력의 가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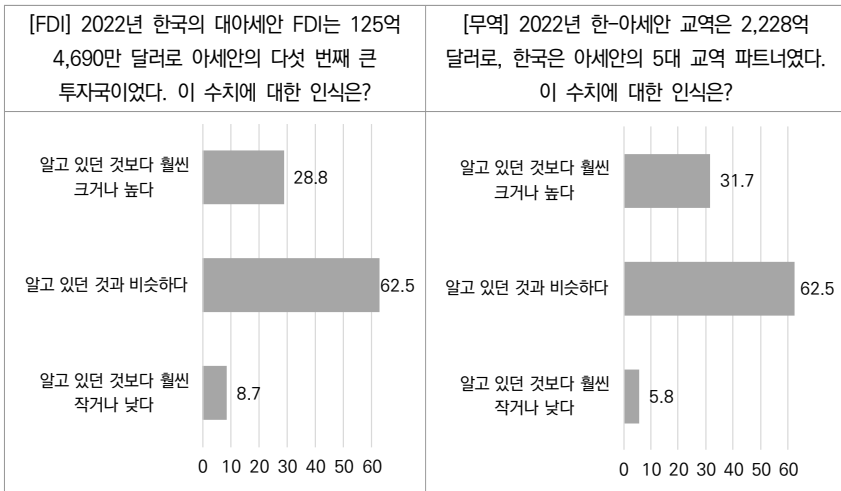
본 설문은 아세안 내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가시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대아세안 FDI·무역·ODA 규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질문은 한국의 대아세안 FDI·무역·ODA 통계 수치를 제시한 후, 해당 규모가 응답자의 사전 인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수치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규모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작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할 수 있었다. 제시된 통계 수치가 응답자들의 사전 인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함으로써, 실제 협력의 깊이와 전문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FDI 및 무역 규모의 실제 수치와 응답자들의 사전 인식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5%가 각각 한국의 FDI와 무역 규모가 자신이 알고 있던 수준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경제적 기여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약 30% 내외

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자신의 예상보다 더욱 컸다고 답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DI의 경우 응답자의 28.8%, 무역의 경우 31.7%가 실제 수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고 답하였다. 이는 적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한국의 경제적 기여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한국의 기여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공공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4-18. 한국의 대아세안 FDI와 무역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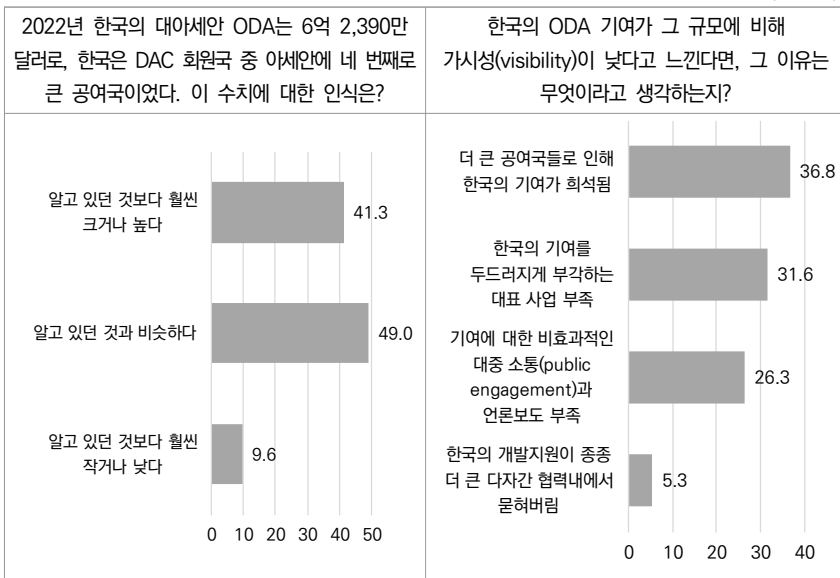
아세안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ODA 부문에서 더욱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0%는 한국의 ODA 기여액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규모와 비슷하다고 답하기는 했으나, 41.3%가 예상보다 더 크다고 답해 한국의 ODA 가시성이 실제 규모에 비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의 ODA가 자신의 사전 인식보다 크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추가 조사한 결과, ‘더 큰 공여국들로 인해 한국의 기여가 희석(overshadow)된다’가 36.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한국의 기



여를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대표 사업 부족'(31.6%)과 '기여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중 소통(public engagement)과 언론보도 부족'(26.3%)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재정적 규모가 다른 대형 공여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원 규모에서는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여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한국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ODA 사업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사업 발굴과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의 ODA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아세안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9. 한국의 대아세안 ODA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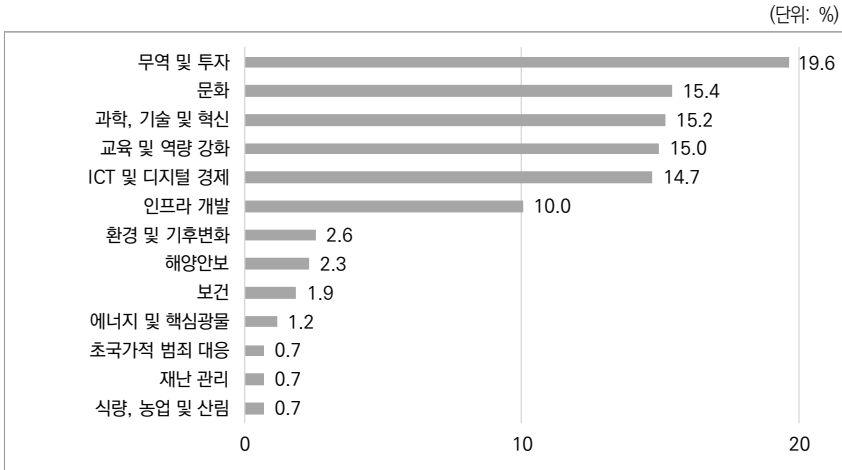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어 협력 분야별 가시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협력이 활발한지 조사한 결과, ‘무역 및 투자’가 1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한-아세안 관계에서 ‘경제’ 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어 ‘문화’(15.4%), ‘과학, 기술 및 혁신’(15.2%), ‘교육 및 역량 강화’(15.0%), ‘ICT 및 디지털 경제’(14.7%) 분야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분야들은 한국이 아세안과 실제로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분야로, 각각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 기술·혁신력, 디지털 전환 지원,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 분야는 K-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문화적 입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학, 기술 및 ICT 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아세안의 디지털 및 기술적 발전을 지원할 주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기후변화와 해양안보 부문은 각각 2.6%와 2.3%의 상당히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이 최근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한국의 기여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역할이 덜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아세안에 대한 보건 협력이 증가했음에도 보건 분야는 1.9%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식량, 농업 및 산림(0.7%), 재난관리(0.7%), 초국경 범죄 대응(0.7%) 분야 역시 상당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분야들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 앞서 거론한 상위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혹은 부각되지 않거나,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큰 존재감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한국은 아세안에서 경제·기술·문화적 협력에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건이나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상기 결과는 한국이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세안의 다각적인 발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4-20.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최대 5개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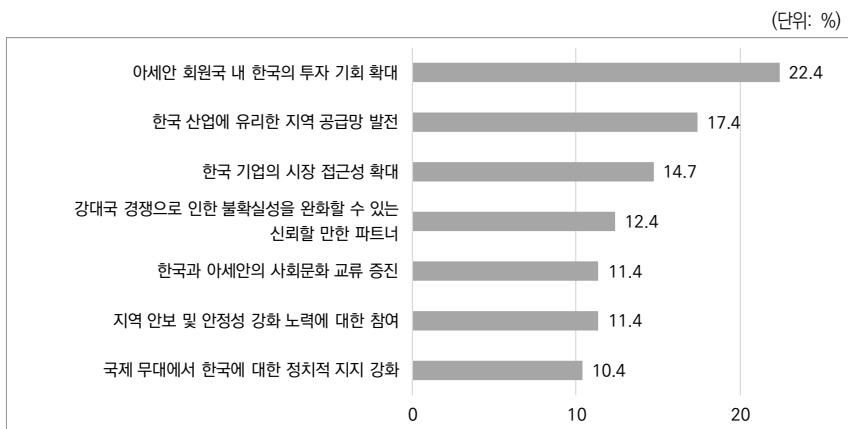
## 6) 한-아세안 협력 확대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본 설문은 상호호혜적 협력 측면에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아세안측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세안 회원국 내 한국의 투자 기회 확대’(22.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경제 협력이 한-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아세안 전문가들 또한 아세안을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 강화가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에 유리한 지역 공급망 발전’(17.4%)이 2순위로 꼽혔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아세안이 한국에 중요한 제조 및 공급망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아울러 이 결과는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이 아세안 역내 공급망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순위는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14.7%)가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아세안 협력 심화

가 한국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1~3순위 모두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문항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경제'를 상호호혜적 협력의 가장 큰 가치로 뽑은 것이 주목된다.

한편 경제만큼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12.4%), '지역 안보 및 안정성 강화 노력에 대한 참여'(11.4%),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강화'(10.4%) 등 정치·안보와 관련한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아세안이 경제 파트너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사회·문화 교류 증진'이 11.4%의 응답률을 얻은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로, 이는 양측 간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아세안이 인식하는 상호호혜적 관계는 경제 부문에서의 기대가 가장 크나, 외교 안보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1. 한-아세안 협력 강화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최대 3개 선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3. 소결: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함의

한국이 아세안과 양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전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KASI 추진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지난 5년간 한-아세안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그림 4-14 참고), 협력 강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아세안을 특정한 외교정책’ 추진을 꼽았다(그림 4-15 참고). 아세안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 시행’, ‘아세안 협력을 위한 전담 기관 및 기금 설립’, ‘아세안을 특정한 정책 추진’ 등을 꼽았는데(그림 4-3 참고),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을 특정한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한-아세안 금융센터 등 아세안 관련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아세안 관련 기금을 확충해왔다. 또한 이번 CSP 격상 계기에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120대 과제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한-아세안 협력의 효과성 또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그림 4-11 참고).

특히 경제협력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일치한 분야로, 한-아세안 관계를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이었다. 한국은 일찍이 대동남아 수출·투자 확대라는 실리적 동기에 기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의 수요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아세안이 대화상대국에 가장 기대하는 협력은 ‘긴밀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 구축’이며(그림 4-2 참고), 아세안이 인식하는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하다는 분야’와 ‘한국의 강점’ 역시 경제협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그림 4-20 참고). 아세안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으로 ‘한국의 투자 기회 확대’, ‘한국 산업에 유리한 지역 공급망 발전’,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를 꼽는 등 한-아세안 관계의 중심에는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21 참고).

최근 들어 한국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아세안도 이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혁신’(15.2%)과 ‘ICT 및 디지털 경제’(14.7%)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그림 4-20 참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이 아세안의 전략 파트너로서 위상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현지 전문가들의 평도 있었다.<sup>311)</sup> 특히 기술이 미·중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아세안 경제에 대안적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sup>312)</sup>

반면 한국이 인프라 연계성과 환경 협력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이 분야의 협력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의 경우 워낙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여가 주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미국과 호주가 ‘양질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표준 및 제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재원적 열위를 보완할 명확한 인프라 협력의 방향성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23.8%)이 아세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그림 4-4 참고), 인프라 협력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KASI가 환경과 관련한 대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환경 및 기후 변화’(2.6%)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응답률을 보인 것은 향후 이 분야에 대

---

311)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Hoang Thi Ha ISEAS 아세안센터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312)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한 한국의 기여를 보다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림 4-20 참고). 3장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GGGI가 추진 중인 AKCF 사업 ‘ASEAN Green Map’이 아세안 측의 호평을 받는 만큼, 아세안의 탄소중립 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지속·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인식하는 정치·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경제 분야만큼 정치·안보 영역의 상호 수요가 일치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한국은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외교의 장’으로 아세안 다자안보포럼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아세안의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대외협력 기조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세안 입장에서는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 아세안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혔다(그림 4-13 참고).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해양안보’가 2.3%로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그림 4-20 참고).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은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한국이 아세안과 양자 차원의 안보 협력을 확대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은 2021년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인태 전략과 KASI를 추진하며 아세안과의 포괄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아세안 내 국방·안보 협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다.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다자 국방협력 자체의 진입 장벽도 높지만, 한국이 창설 초기부터 참여해온 ADMM+에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sup>313)</sup>

아세안은 경제발전 못지않게 안정적인 지역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긴급한 지역 현안’ 질문에서 ‘남중국해

---

313) 이재현(2024).

분쟁'(24.6%)과 '강대국 경쟁'(19.2%)이 1~2순위에 오르고(그림 4-6 참고),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에 '해양협력'(13.2%)과 '평화 및 분쟁 해결'(12.8)이 3~4순위를 차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그림 4-4 참고). 물론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 확대 없이도,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도와 평가는 양호한 편이다. 이번 설문에서 특정 수요에 대한 대화상대국 선호도는 식별하지 못하였지만, 한국은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와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긴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 잘 협력하는 국가 순위에서 각각 4위와 5위에 꼽혔다(그림 4-5, 그림 4-7 참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 평가에서도 5위를 기록하였다(그림 4-10 참고). 아세안에서 미·중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며 오랜 협력 기반을 다져온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호주에 이어 4~5위의 대화상대국으로 평가받는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의 선호도 비중의 차이와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 위상을 지니면서도 한국보다 자원 투입이 적은 호주보다 평가가 낮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주변국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지역 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야의 협력은 지속·강화하되,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이상, 그 협력의 범위는 기존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번 CSP 공동성명에서 (한반도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증진' 비전하에, 아세안 다자안보포럼을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아세안의 해양안보와 비전통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위가 넓은 비전통안보의 경우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협력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초국가 범죄와 아세안의 수요가 높고 한국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사이버안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인신매매 관련 이니셔티브를 꾸준히 오래 지속해 해당 분야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해재난 관리와 지뢰제거 사업의 경우 AHA Centre



및 아세안 지리제거 센터(ARMAC)와 같은 아세안 관련 기구들의 역량 강화 혹은 이 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해, 아세안의 자립적인 대응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문화·교육의 경우 앞선 분야에 비해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지는 않지만(그림 4-2 참고), 대화상대국 중 한국의 활동이 가장 부각되는 분야로 평가받는다.<sup>314)</sup>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문화’는 ‘무역·투자’ 다음으로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꼽혔다(그림 4-20 참고). 문화 부문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아세안과의 문화 협력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문화예술전략계획’을 통해 역내 문화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도 제고, 아세안 정체성 고취,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협력 수요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의 영화 산업 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아세안 사무국은 사회·문화 공동체 내의 문화 협력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커질 것 기대하고 있다.<sup>315)</sup> 아세안은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화상대국에 역내 협력 비전이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sup>316)</sup> 이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의 문화 협력 이행 전략 수립과 이행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부문은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TVET 교육이 주를 이뤄 왔다. 그러나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교육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성장 고도화에 주축이 될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과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3%가 한국의 ODA 규모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크다고 답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기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314) 아세안 사무국 사회·문화 공동체부 문화정보국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315) 위의 자료.

316) 박민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인터뷰(2024. 8. 14., 서울).

점을 알 수 있었다(그림 4-19 참고). 총응답자 표본이 크지는 않지만, 본 설문 응답자의 31.6%가 '대표 사업 부족'을, 26.3%가 '비효율적인 대중 소통과 (한국) 기여에 대한 언론보도 부족'을 꼽았다(그림 4-19 참고). 이는 한국의 협력을 보다 가시화할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제5장



#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2.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의 CSP 확산 가운데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주요국의 CSP 추진 현황과 협력 방식, 그리고 대화상대국 협력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아세안이 어떠한 목적과 작동 방식으로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지 고찰하고, 아세안의 대외전략에서 ‘아세안+1’ 메커니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국들이 CSP 체결 전후로 아세안+1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방식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단순한 대아세안 협력사업의 현황 조사를 넘어, 각국의 협력 방식과 유형의 차별성을 식별하고자 했다. 4장에서는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이 한-아세안 협력을 포함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아세안 CSP 수립은 기존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새롭게 수립될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2026-2030)은 CSP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고도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CSP는 단순히 협력사업의 규모와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상호 간 ‘전략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그 협력의 깊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인 마지막 장에서는 2~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한국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CSP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1.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2장에서 분석하였듯이 아세안은 회원국 간 합의를 거쳐 공동 수요에 대한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화상대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여러 협력사업을 제안해 이행해왔다. 물론 대화상대국들의 대아세안 협

력사업들은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아세안도 대화상대국의 협력이 아세안의 수요를 충족하고 아세안이 설정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한, 상호 이해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아세안이 대화상대국을 서열화해 특정국에 특정 분야 협력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상대국과의 오랜 협력 역사와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협력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 특정국에 대한 선호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세안은 대화상대국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사업뿐만 아니라,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 발전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의 이행 전략 수립, 제도적 발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한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방식을 선호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호주, 미국이 대아세안 외교에서 아세안의 공동체 추진과 이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자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해온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고 대화상대국으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국가들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 공동체 건설을 예시로 들면 상기 3개국은 아세안과의 양자 간 무역·통상 외에도, 아세안 역내 통합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일본은 일찍이 아세안의 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ERIA를 설립해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 비전과 이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미국은 아세안의 통관 단일 창구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호주는 MPAC 2025와 같은 굵직한 마스터플랜을 포함해, 경제 공동체 이행을 위한 표준 및 제도적 발전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해왔다.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아세안 경제통합 그 자체보다는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수단의 일환으로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주와 일본이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모니터링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도 아세안 경제협력기금(AKEC)을 통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준비를 지원할 사무국 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AKEC의 주목적이 한-아세안 양자 협력에 있는 만큼, 해당 인력은 한-아세안 FTA 이행 업무에만 관여할 계획이다.<sup>317)</sup> 즉 호주와 일본의 인력 채용 지원은 아세안 공동체 건설이라는 더 큰 틀을 지원하는 데 비해, 한국의 인력 채용 지원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려는 한국의 수요에 기인한다. 물론 한-아세안 FTA 이행 촉진도 아세안의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과 공동체 건설이 아세안의 우선협력 분야임을 고려할 때(그림 4-2 참고), 한국도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통합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들어 아세안 공동체 건설 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디지털 관련해서는 ‘ASEAN DEAL’ 사업이 아세안 회원국의 DEFA 협상 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아세안의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기후변화 이니셔티브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ASCEND’가 AHA Centre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아세안의 자체 이니셔티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와 미국이 각각 DEFA 설계안과 ‘반극단화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PCVE) 작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본과 호주가 아세안 질병통제예방센터인 ACPHEED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무국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건설 이행을 위한 제도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당면 수요를 파악하여 협력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2장에서 분석하였듯이, 대화상대국이 독자적으로 제안한 사업이라 해도 아세안이 제시한 협력 가이드라인에 부합하

---

317) 주아세안대표부 상무관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고(표 2-1, 표 2-2 참고) 교섭 방식만 지켜진다면, 아세안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사무국과의 적극적인 소통 없이는, 많은 당면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과 분야의 협력이 우선 시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호주와 미국은 아세안 사무국과 개별 회원국에 접근하여 아세안의 우선협력 분야 중 자국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협력을 주도·심화하는 방식을 구사해왔다.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호주는 아세안 사무국 및 분야별 협의체(sectoral body)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선 협력분야를 식별하고, 사무국 주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sup>318)</sup> 이러한 방식은 사무국과 각 분야별 협력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 재원이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대화상대국이 아세안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제안할 경우, 아세안 사무국 측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무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사업 제안에 앞서 아세안 사무국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보다 창의적인 협력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2장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세안은 표면적으로 아세안 주도의 교섭 방식을 고수하지만, 대화상대국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능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아세안-대화상대국 관계를 연구해온 한 현지 전문가는 미국과 호주는 아세안 교섭 방식의 틈새(loophole)를 활용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된 주제를 아세안에 역제안하는 등 능동적인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한국은 정석적인 방식을 고수한다고 평하였다.<sup>319)</sup> 이는 미국과 호주가 아세안과의 교섭에서 보다 전략적

318)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이고 주도적인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외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도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한 협력 의제 설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기술혁신,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한 협력 프레임워크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한-아세안 상호 수요를 충족하는 협력 어젠다나 실행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모두 관심이 높은 DEFA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와 경쟁력이 높은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에 집중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DEFA에 대한 협력은 이미 호주가 주도하고 있으나, 워낙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호주만의 분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세안 전문가들의 평이다.<sup>320)</sup>

아세안은 협력 사업 추진 시 사업 발굴과 수행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화상대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아세안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운영 방식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AKCF의 규모 확대에 따라 일회성 프로젝트보다 다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아진 점은 아세안 사무국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 제안 사업 비중이 아세안 측 제안 사업보다 현저히 높은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sup>321)</sup> 실제로 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주요국들이 아세안 측 제안 사업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AKCF는 한국정부의 시그니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이 높은 한국 기관이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사업의 질과 효과성 제고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협력기금의 재원 활용에 있어 대화상대국과 아세안

319)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320) 싱가포르 ISEAS Lee Sue Ann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321)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회원국이 제안하는 사업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호주와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 기관들의 제안서 작성 역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각 협력기금 담당관들이 아세안 회원국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운용팀(AKPMT)이 있지만, 일본(JMT)이 아세안 측 제안 사업 비중을 95%까지 높인 것에 반해, 2023년에 진행된 26개의 AKCF 사업 대부분은 한국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다른 주요국들은 자국 협력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곤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노력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AKCF의 승인 절차가 느리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한국은 본부 측(외교부)의 제안서 검토가 가장 오래 걸리는 국가로 인식되어, 아세안 회원국에도 AKCF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sup>322)</sup>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시그니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원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제에 걸친 다분야의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세부 협력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지 않은 틈새 분야를 발굴해, 한국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협력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322) 위의 자료.

## 2.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가. 아세안 중심의 협력 방식 강화

#### 1) 대아세안 사무국 외교 강화

미국, 호주, 일본이 아세안 사무국과 관련 기구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제안서에 아세안의 의견을 반영해온 데 비해, 한국은 독자적인 사업 제안을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도 아세안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실리성과 편의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협력의 주체로서 충분히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한국이 '기능적 파트너'로만 중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사업 규모가 호주보다 결코 작지 않음에도 아세안 사무국 내에서 호주의 존재감이 높은 것은 호주가 사업 발굴 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며 긴밀히 소통해왔기 때문이다. 아세안의 최종 의사결정에 아세안 사무국이나 관련 기구들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사무국의 인식은 아세안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특정 대화상대국의 관여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무국의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는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한국은 사무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의 사업이 일방적인 제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아세안 사무국 및 관련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 주제와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주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세안이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호주처럼 제안서에 사무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특정 사업에

관심을 가진 회원국과 협력해 사업을 공동 제안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독자적으로 제안하는 양자 프로젝트 추진 외에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사무국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아세안이 발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제도 개선, 이행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이나 워크숍 개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이 사무국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꼽은 만큼, 호주나 일본처럼 아세안 정책 이행을 수행할 전문인력 충원을 돕는 것 또한 사무국의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2) 아세안 주도 이니셔티브 지원

아세안은 특정 이슈에 대한 협력의 당위성과 목표에는 쉽게 합의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회원국이 없는 이상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이행계획 수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회원국과 대화상대국을 위한 각종 협력 가이드라인이 참조 문서로 제시되긴 하지만,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323)</sup>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상대국은 아세안이 제시한 공동 협력의 목표를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이러한 접근을 통해 아세안 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DEFA의 기초적 틀을 잡는 연구용역을 지원해 세계 최초의 지역 디지털 경제협정인 DEFA 출범에 기여했다. 미국은 일찍이 대테러 이슈에 관심을 갖고 초국가적범죄담당장관회의(AMMTC) 주관하에 아세안 3대 공동체 관련 기구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간 회의와 워크숍 개최를 전폭 지원해왔다. 그 결과 2017년 아세안 회원국이 합의한 ‘극단화와 폭력적 극

---

323) CSI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단주의에 대한 마닐라 선언'은 '반극단화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PCVE) 행동계획(2018~2025)'이라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도 ERIA를 통해 아세안 Post-2025 비전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한국도 상기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아직 정상 선언문이나 협력 전략에 그친 협력 의제 중 한국의 전략적 이해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 구체화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 사업도 중요하지만, AHA Centre, 아세안 질병통제예방센터(ACPHED),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등 아세안 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사업 지원을 통해, 역내 문제 해결에 대한 아세안의 자립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 나. 대아세안 협력의 체계성 및 차별성 강화

### 1) 협력 포트폴리오의 체계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협력 재원은 미·중·일에 비해 한정적이다. CSP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의 범위를 비체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아세안 3대 공동체별로 한국의 경쟁력과 상호 협력 수요가 높은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한국의 시그니처 협력 분야로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도 다분야 협력을 추진하긴 하지만, 기능과 세부 분야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여왔다. 호주는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아세안 역내 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역량 강화, 정치·안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인신매매 대응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상기 분야에서 호주가 가장 뛰어난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왔다. 미국 또한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세안 단일 창구 구축과 아세안 전력망 지원, 정치·안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와 WPS, 사회·문화 공동체에 대해서는 성주류화에 집중하는 등 유사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행동계획(POA 2026-2030)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사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쟁력과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만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 역량(capacity)으로, 한국이 특정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의미하며, 다른 주요 대화상대국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경쟁력을 포함한다. 한국의 역량이 돋보이는 분야에 협력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협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양안보와 같이 한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익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상대국과 연대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영향력(impact)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 국익 증진과 아세안 지역 내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양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아세안 간의 상생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질적 제고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아세안에서의 성과가 한국의 지역 및 국제적 영향력 증대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 요소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이는 협력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 및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첫 번째 요소인 역량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기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이행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해당 협력 사업이 아세안의 정책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며, 현지 수요에 맞는 협력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협력이 단순한 '자원 제공'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

지역 내 역량 강화와 자립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협력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한국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아세안 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시키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2) 시그니처 협력 분야 발굴 및 이행 지속성 강화

대아세안 협력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시그니처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행의 지속성을 확보해 해당 분야에서는 한국이 탁월하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하는 대화상대국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유망한 대표 분야로는 과학·기술 협력과 문화 협력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의 경우 ‘한-아세안 공동과학기술혁신위원회(AKJSTIC)’와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AKSTCC)’ 등 이미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아세안 공통 수요에 대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표준화 협력은 아세안 연계성 증진과도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AKSCN)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산업 기술 적용 및 회원국 간 기술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5년부터 산업부와 아세안이 공동 주관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한-아세안 간 수요가 일치하는 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기술·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한국 산업연구원(KIET)이 설립 준비 중인 ‘한-아세안 정책협력센터’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거점으로 한-아세안 간 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STEM 분야의 인재 육성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기존의 한-아세안 과학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아세안 과학자와 공학자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화 협력의 경우, 한국의 강점으로 인식되는 ‘문화유산’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보호는 기후변화라는 범분야 이슈와도 관련이 있으며, 아세안 관광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은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기록 보존 및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해 아세안의 문화유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간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 시민들에게 ‘아세안 정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3) 틈새 분야 발굴: 범분야 이슈의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아직 다른 대화상대국이 선점하지 못한 틈새 협력 분야를 발굴해나가야 한다. 한국이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범분야 이슈는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명확한 오너십(ownership)을 구분하기 어려워 부서 간 협업의 장벽이 높아, 상호 관련된 이슈 간 협력을 시너지화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sup>324)</sup> 일례로 기후변화가 건강, 재난, 노동, 문화유산 등 범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협력 메커니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범분야 이슈를 다루는 주관 부서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특정 부서의 관할로만 다루어질 경우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sup>325)</sup>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측면이 크며, 앞서 3장 1절에서 분석하였듯이 이슈 간 통합적 접근은 사회·문화 공동체의 Post-2025 비전 수립 과정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환경, 디

324) 아세안 사무국 사회·문화 공동체부 문화정보국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325) 위의 자료.

지털 등과 같은 범분야 이슈는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며, 여러 분야에 걸친 상호 연계성과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한국이 범분야 이슈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한다면 아세안의 통합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상대국과 차별화된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범분야 이슈로는 기후·환경과 사이버안보가 유망하다.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본국에 두고 있어, 기후·환경 이슈의 범분야 협력을 주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 워크숍이나 포럼 개최 지원 등을 통해 환경·기후변화 이슈가 아세안 3대 공동체 영역에 미치는 상호연관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GGGI가 AKCF로 ASEAN Green Map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AKCF를 활용해 아세안의 탄소중립 전략이 경제뿐만 아니라 3대 공동체의 주요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사이버안보도 국방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범죄, 디지털 경제, 온라인 허위정보, 디지털화된 문화유산 정보 보호 등 아세안 3대 공동체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 주제이다.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경쟁력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편인 만큼, 사이버안보는 한국이 범분야 이슈의 분야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제이다.

## 다.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 1)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성 확보

4장의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은 경제협력 및 기능적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높게 인정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할 전략 파트너



로서의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한반도·동북아 중심의 외교에 치우친 데에서 비롯된다. 한국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을 통해 한국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있음에도 대아세안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4장의 설문 결과에서 40.0%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그림 4-16 참고). 특히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 우선순위 변화’(26.4%)가 지적된 것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림 4-17 참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을 설정하고, 국내 리더십 변화와 상관 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에 한국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한국정부가 아세안과 약속했던 주요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아세안 협력사업의 우선순위가 하락하거나 중단될 경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 및 고위급 회담의 후속 사업들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및 실무 정례 협의체를 강화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 2) 국방·안보 협력 강화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를 넘어 전략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지역 안보 현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안보 협력은 아세안 3대 공동체 중 한국의 협력과 존재감이 가장 미진한 분야로 평가받는다. CSP가 기존 협력의 깊이를 심화하는 것에 더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아세안

과의 안보 협력 확대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질서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우선 한국이 그동안 활발히 협력해온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중심으로, ARF나 ADM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DMM+ 내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다자협력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하거나 아세안 회원국의 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워크숍 개최 지원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버안보의 경우 미국이 대테러 협력을 강화한 방식을 참고해, ‘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전략(2021~2025)’의 후속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공동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협력 의지가 높고 공동 협력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싱가포르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ADMM+ 분야 협력 중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한국의 협력 역량이 높은 분야 중 하나가 지뢰 제거이다. ADMM+는 인도적 지뢰 제거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훈련과 워크숍을 진행해온 바 있다. 한국은 지뢰 제거 작전 수행을 통해 지뢰 제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아세안 회원국의 지뢰 및 불발탄 제거를 대표적인 시그니처 안보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sup>326)</sup>

해양안보의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아세안과 다자훈련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훈련에 참여하여 아세안과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한 아세안 회원국의 국방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당장 미국처럼 군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양자로 추진했던 해안경비대의 수색 및 구

326) 이숙연(2024), 「한-아세안 국방협력」, 2024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조 훈련을 아세안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sup>327)</sup>

현재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위산업 협력을 아세안 전체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 이미지를 지니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방위산업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아세안에서 중요한 방위산업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sup>328)</sup> 아세안은 ‘아세안 국방 산업 협력(ADIC: ASEAN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문서를 통해 방위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회원국 간 경제적·방위산업 역량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ADIC 이행을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이 부족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329)</sup> 한국은 회원국과 양자 협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다자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 개최와 정책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접근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아세안의 지역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

327) 위의 자료.

328) Hoang Thi Ha ISEAS 아세안센터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329) Soraya *et al.*(2023), p. 94.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택구, 이상운, 심창섭, 장 훈, 이정석. 2020.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세계지역전략연구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택구, 정기웅. 2022. 「중국의 일대일로 저탄소 녹색발전 전략과 전망」. 『중소연구』, 46(3), pp. 97~131.
- 김석수. 2014.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아세안의 중심성」. 『동남아연구』, 제23권 제3호, pp. 341~369.
- 김선진. 2022. 「제6장 중국의 대아세안 인프라 자금지원 현황과 특징」. 민귀식 편. 『중국과 아세안 II』. 한울아카데미.
- 남대엽. 2022. 「중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의 역사와 특징」. 민귀식 편. 『중국과 아세안 II』. 한울아카데미.
- 배기현. 2016. 「호주와 일본의 대아세안 지원 협력 비교: 다자 효용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3호.
- \_\_\_\_\_. 2017. 「아세안 50주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아세안 리더십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3권 2호.
- \_\_\_\_\_. 2017. 「일본과 중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경쟁과 수렴」. 『신아세아』, 24(2), pp. 150~174.
- \_\_\_\_\_. 2021. 「동아시아의 지역만들기: 관계구조와 그 정책적 함의」. 『국제정치연구』, 24(1), pp. 81~104.
- 변창구. 2015.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ASEAN의 중심성: 평가와 전망」.
- 양평섭, 박영호, 이철원, 정재완, 김진오, 나수엽, 이효진, 조영관. 2018.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중국종합연구 18-67-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엘리자베스 부엔수세스(Elizabeth Buensuceso). 2021. *ASEAN Centrality: An Autoethnographic Account by a Philippine Diplomat*. 번역: 우진하. 2021. 『아세안 중심성: 어느 필리핀 외교관의 자문화기술지적 연구』. 문학사상.

-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이신애. 2017.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17-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기은. 2022. 『한중일의 대아세안 관계의 변화와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연구사업보고서 2022-03. 제주평화연구원.
- 이신화, 이양호. 2017. 「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 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교훈」. 『담론 201』, Vol. 20, No. 2.
- 이숙연. 2024. 「한-아세안 국방협력」. 2024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 이재현. 2022.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2-26.
- \_\_\_\_\_. 2023. 「동남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27. (12월 13일)
- 정구연. 2022. 「제2장 아세안 국가들의 해정과 대미 대중 군사 외교」. 『중국과 아세안 I』.
- 정영식, 광성일, 문진영, 김정곤, 라미령, 최인아, 정재완, 나승원, 이재호, 신민금, 이정미, 김제국, 윤지현, 백종훈, 김은미. 2020.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조수영. 2021. 「중국의 대ASEAN 디지털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24(1).
- 최인아, 광성일, 정재완, 이정미, 박나연, 김미림, 이재현, 조원득. 202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연구보고서 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인아, 김소은. 2024. 기본연구 출장보고서.
- 최인아, 김정곤, 정재완, 이재호, 김미림, 김소은, 김태형, 하경석, 이범현, 이윤현, 박환일, 오일석, 임경한. 2022. 『신남방정책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간 연계협력 방안: 대아세안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06-01.
- 최정환. 2023. 「일본의 대인도-아세안 산업협력 및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 한-아세안 센터. 2021. 「2020 한-아세안 통계집」.

#### [영문자료]

- Acharya, Amitav. 1999. "Realism, Institutionalism, and the Asian Economic Crisi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1(1).

- \_\_\_\_\_. 2001.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17. "The Myth of ASEAN Central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9(2), pp. 273-279.
- ADB. 2014. *ASEAN 2030: Towards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Tokyo: ADB.
- ASEAN. 2023. "ASEAN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 Jakarta.
- \_\_\_\_\_. 2023. "Jakarta Declaration on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 (ASEAN Concord IV)." Jakarta.
- \_\_\_\_\_. 2024.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October 9). Jakarta. <https://asean.org/asean-leaders-declaration-on-enhancing-supply-chain-connectivity/>(검색일: 2024. 10. 16.).
- \_\_\_\_\_. 2024. "ASEAN, Japan to foster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June 10). Jakarta.
- \_\_\_\_\_. 2024. "Chairman's Statement of the 44th and 45th ASEAN Summits Vientiane, Lao Pdr, 9 October 2024." Jakarta.
- ASEAN Secretariat. 2023.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3."
- \_\_\_\_\_. 2023.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usted Partners." (December 17). Tokyo.
- \_\_\_\_\_. 2023.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the Twenty First ASEAN and Japan Transport Ministers Meeting." Luang Prabang.
- ASEAN-Korea Cooperation Fund. 2023. *Annual Report 2023*. Jakarta.
- Ba, Alice. 2006. "Who's Socializing Whom? Complex Engagement in Sino-ASEAN Relations." *The Pacific Review*, 19(2).
- Bae, Ki-Hyun. 2015. "Neither Left-out nor Pushed-over: Anxious ASEAN and its 4C Practices." *The Pacific Review*, 28(5), pp. 703-729.
- \_\_\_\_\_. 2017. "ASEAN as a Community of Managerial Practices." *Global Governance*, 23, pp. 245-263.
- \_\_\_\_\_. 2021. "Regional Security Order Transition and the ROK's Order Management: Critique and Sugges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4), pp. 557-577.

- \_\_\_\_\_. 2022. "Regionalizing Development Cooperation? Examining Intra-ASEAN Regionalism via IAI." *Global Governance*, 28, pp. 103-124.
- Beeson, Mark. 2022. "Decentered? ASEAN's Struggle to Accommodate Great Power Competition." *Global Studies Quarterly*, Vol. 2, Issue 1.
- Caballero-Anthony, Mely. 1998. "Mechanisms of Dispute Settlement: The ASEAN Experie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0(1), pp. 38-66.
- \_\_\_\_\_. 2014. "Understanding ASEAN's centrality: bases and prospects in an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The Pacific Review*, 27(4).
- \_\_\_\_\_. 2022. "The ASEAN Way and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ternational Politics*.
- CSIS. 2024. "CSIS Special Edition Commentaries: Analysis of 2024 ASEAN and related Summits." Jakarta.
- Davies, Matthew. 2018. *Ritual and Region: The Invention of ASE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elly, Nicholas, Lina A. Alexandra, Sharon Seah, and Kimly Ngoun. 2024.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 ASEAN and Australia after the first 50 years." University of Tasmania.
- Fukunaga, Yoshifumi. 2014. "ASEAN's leadership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2, pp. 103-115.
- Goh, Evelyn. 2007. "Great Powers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2(3), pp. 113-157. (August)
- \_\_\_\_\_. 2013. *The Struggle for Order: Hegemony, Hierarchy, and Transition in Post-Cold War 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acke, Jurgen. 2003. *ASEAN's Diplomatic and Security Culture: Origins, Development and Prospects*. London: Routledge Curzon.
- Hamanaka, Shintaro. 2014. "TPP versus RCEP: Control of Membership and Agenda Setting."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8(2), pp. 163-186.
- He, Kai. 2019. "Contested Multilateralism 2.0 and Regional Order Transition: Causes and Implications." *The Pacific Review*, 32(2),

pp. 210-220.

- Johnston, Alastair. 2003. "Socializ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ASEAN Wa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kenberry, John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nes, David M. and M. L. R. Smith. 2006. *ASEAN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Regional Delusion*. Cheltenham: Edward Elgar.
- Katsumata, Hiro. 2014. "What Explains ASEAN's Leadership i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e Pacific Affairs*, 87(2).
- Keohane, Robert. 1969.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23(2).
- Khong, Yuen Foong and Helen E. S. Nesadurai. 2007. "Hanging Together, Institutional Design,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AFTA and the ARF." Acharya, Amitav and Alastair Johnston eds. *Crafting Cooperation: Region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ga, Kei. 2020. "Japan's 'Indo-Pacific' question: countering China or shaping a new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96(1).
- Koremenos, Barbara, Charles Lipson, and Duncan Snidal. 2001. "The Rational Desig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4).
- Kraft, Herman J. 2012. "Driving East Asian Regionalism: The Reconstruction of ASEAN's Identity." Emmers, Ralf ed. *ASEA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ast Asia*. New York: Routledge.
- Leifer, Michale. 1989. *ASEAN and the Security of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Liao. 2022. "Talking Green, Building Brown: China-ASEAN Environmental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BRI Er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2.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 presented at 23rd ASEAN-ROK Summit." (November 11). Phnom Penh.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The Practical Achievements and Global Contributions of th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 Ministry of Justice. 2023. "ASEAN-Japan Work Plan on Law and Justice."



(July 6)

- Müller, Lukas. 2023. *In the Shadow of the Member States*.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 Natalegawa, Marty. 2018. *Does ASEAN Matter? A View from Within*. Singapore: ISEAS.
-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2023.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AZEC) Leaders' Joint Statement." (December 18). Tokyo.
- \_\_\_\_\_. 2023. "Speech by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at the ASEAN-Indo-Pacific Forum." (September 6). Tokyo.
- Seah, Sharon, Joanne Lin, Melinda Martinus, Kristina Fong, Indira Aridati, Pham Thi Phuung Thao, and Damon Chee. 2024.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4 Survey Report(Singapor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2024)."
- Seth, Farah Nadine and Sharon Seah. 2021. "The ASEAN-China Partnership: Balancing Merits and Demerits." *ISEAS Perspective* No. 120. (September 10)
- Severino, Rodolfo.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n ASEAN Community: Insights from the Former ASEAN Secretary-General*.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oraya, Nadia Aurora, Janathan Ernest Sirait, and Fiorentina Nulhakim. 2023. "ASEAN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ADIC): An Assessment of Potential Strategic Benefits for Indonesia Defens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Review*, 6(2), pp. 90-95.
- Stubbs, Richard. 2002. "ASEAN Plus Three: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42(3).
- \_\_\_\_\_. 2014. "ASEAN's Leadership in East Asian Region-building: Strength in Weakness." *The Pacific Review*, 27(4), pp. 523-541.
- Tan, See Seng. 2017. "Rethinking 'ASEAN Centrality' in the Regional Governance of East Asia."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62(3), pp. 721-740.
- The ASEAN. 2024. "ASEAN 2045 Shaping a Green, Connected, and Sustainable Tomorrow." - Double issue 34-35. (February). Jakarta.
- Woon, Walter. 2012. *Dispute Settlement The ASEAN Way*. Singapore: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Yu, Hong. 2024. "Chapter 3 China-ASEAN Cooperation Under the BRI." *Asia in Transition: Understandi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6, pp. 43-68. 10.1007/978-981-99-9633-9\_3.

#### [언론/보도 자료]

- 경찰청 보도자료. 2021. 「제1차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초청연수 실시」. (11월 16일).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1116175614215](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1116175614215)(검색일: 2024. 7. 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과기정통부,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파견으로 국내 디지털기업의 아세안 진출 본격 지원」. (5월 28일).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4545&searchOpt=ALL&searchTxt=>(검색일: 2024. 7. 26.).
- 관세청 보도자료. 2024. 「관세청, 아세안 10개국과 청장회의 개최」. (6월 5일).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37/view.do?nttId=16724&menuNo=300083&pageIndex=1>(검색일: 2024. 7. 25.).
-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2023. 「문화재청장,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단과 정책간담회 (9. 27.)... 성과 공유, 협력 강화 논의」. (9월 27일).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4378&sectionId=b\\_sec\\_1&mn=NS\\_01\\_02](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4378&sectionId=b_sec_1&mn=NS_01_02)(검색일: 2024. 7. 26.).
- 국방부 보도자료. 2019. 「아세안 국가 등 18개국 연합해상훈련 계획 논의」. (2월 22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64#pressRelease>(검색일: 2024. 7. 25.).
- \_\_\_\_\_. 2021.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최초 개최 -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발표-」. (11월 10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75>(검색일: 2024. 7. 2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11월 10일). [https://www.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cmspage=11&id=95089031](https://www.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cmspage=11&id=95089031)(검색일: 2024. 7. 29.).
- \_\_\_\_\_. 2024. 「아세안 10개국 한자리에... 9일부터 서울에서 교통협력·상생방안 논의」. (7월 8일). <file:///C:/Users/DB400TDA/Downloads/240709%>

EC%A1%B0%EA%B0%84)%20%EC%95%84%EC%84%B8%EC%95%88%2010%EA%B0%9C%EA%B5%AD%20%ED%95%9C%EC%9E%90%EB%A6%AC%EC%97%90%209%EC%9D%BC%EB%B6%80%ED%84%B0%20%EC%84%9C%EC%9A%B8%EC%97%90%EC%84%9C%20%EA%B5%90%ED%86%B5%ED%98%91%EB%A0%A5%20%EC%83%81%EC%83%9D%EB%B0%A9%EC%95%88%20%EB%85%BC%EC%9D%98(%EA%B5%AD%EC%A0%9C%ED%98%91%EB%A0%A5%ED%86%B5%EC%83%81%EB%8B%B4%EB%8B%B9%EA%B4%80).pdf(검색일: 2024. 7.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11월 1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40>(검색일: 2024. 7. 24.).

「부산과 아세안 영화인 교류 다시 시작한다…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프로그램’ 재개」. 2023. 『부산일보』. (1월 11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1109291388241>(검색일: 2024. 7. 26.).

「[비전 동서남북] 퇴역 군함 해외양도, 지원 주체는 국방부이다」. 2024. 『인천일보』. (6월 21일).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283>(검색일: 2024. 10.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열려」. (6월 12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5136&pWise=sub&pWiseSub=C9>(검색일: 2024. 7. 29.).

소방청 보도자료. 2023. 「아세안 10개국 재난대응관계자 한국 찾았다」. (8월 31일). [https://www.nfsa.go.kr/nfa/news/pressrelease/press/;jsessionid=ajWacYGt6bX2WAgW8H29IKqR.nfa11?boardId=bbs\\_00000000000000010&mode=view&cntId=1923&category=&pageIdx=%20%20%20%2012](https://www.nfsa.go.kr/nfa/news/pressrelease/press/;jsessionid=ajWacYGt6bX2WAgW8H29IKqR.nfa11?boardId=bbs_00000000000000010&mode=view&cntId=1923&category=&pageIdx=%20%20%20%2012)(검색일: 2024. 7. 25.).

외교부 보도자료. 2023. 「제3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 (8월 3일). [https://www.2050cnc.go.kr/flexer/view/BOARD\\_ATTACH?storageNo=2384#:~:text=\[23%2D716\]\(보도자료\)제3차%20한%20아세안%20환경%20기후변화%20대화%20개최.pdf](https://www.2050cnc.go.kr/flexer/view/BOARD_ATTACH?storageNo=2384#:~:text=[23%2D716](보도자료)제3차%20한%20아세안%20환경%20기후변화%20대화%20개최.pdf)(검색일: 2024. 7. 29.).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022.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6월 16일).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4300>(검색일: 2024. 7. 29.).

「한국·아세안, 35년만에 최고수준 ‘밀착」. 2024. 『매일경제』. (10월 10일).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36842>(검색일: 2024. 10. 15.).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 첫 개최…“한국형 대응체계 전파”」. 2022. 『연합뉴스』. (10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0053200530>(검색일: 2024. 7. 25.).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2023. 「아세안(ASEAN)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KISA가 주도한다!」. (1월 30일). <https://www.kisa.or.kr/402/form?postSeq=2243>(검색일: 2024. 7. 25.).
- Anwar, Dewi Fortuna. 2014. “Indonesia’s Foreign Relations: Policy Shaped by the Ideal of ‘Dynamic Equilibrium’.” *East Asia Forum*. (February 4). <https://eastasiaforum.org/2014/02/04/indonesias-foreign-relations-policy-shaped-by-the-ideal-of-dynamic-equilibrium/>(검색일: 2024. 7. 21.).
- “ASEAN centrality: use it or lose it.” 2024. *East Asia Forum*. (August 12). <https://eastasiaforum.org/2024/08/12/asean-centrality-use-it-or-lose-it/>(검색일: 2024. 8. 13.).
- Chong, Ja Ian. 2010. “Lost in Transition, or Why Non-leading Powers should Concern Beijing and Washington.” *East Asia Forum*. (June 24)
- Ghosh, Sanchari. 2023. “The “Indo-Pacific” is here. Yet “Asia-Pacific” lives on.”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May 3).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indo-pacific-here-yet-asia-pacific-lives>(검색일: 2024. 8. 13.).
- Morton Katherine. 2011. “China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oward what end?” *East Asia Forum*. (March 31). <https://eastasiaforum.org/2011/03/31/china-and-non-traditional-security-toward-what-end/>(검색일: 2024. 7. 26.).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The 20th China-ASEAN Expo and China-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 Concludes.” (October 7). [https://en.ndrc.gov.cn/netcoo/goingout/goingoutpic/202310/t20231007\\_1363171.html](https://en.ndrc.gov.cn/netcoo/goingout/goingoutpic/202310/t20231007_1363171.html)(검색일: 2024. 7. 26.).
- Storey, Ian. 2023. “China’s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east Asian nations likely to rise in frequency and scale.” *Think China*. (November 30). <https://www.thinkchina.sg/politics/chinas-military-exercises-southeast-asian-nations-likely-rise-frequency-and-scale>

(검색일: 2024. 7. 26.).

The White House. 2022. "ASEAN-U.S. Leaders' Stat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U.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November 1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2/asean-u-s-leaders-statement-on-the-establishment-of-the-asean-u-s-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검색일: 2024. 6. 20.).

\_\_\_\_\_. 2022.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ASEAN Leaders Launch the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eptember 1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2/fact-sheet-president-biden-and-asean-leaders-launch-the-u-s-asean-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검색일: 2024. 6. 23.).

\_\_\_\_\_. 2023. "Fact Sheet: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ne Year On." (September 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9/05/fact-sheet-u-s-asean-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one-year-on/>(검색일: 2024. 6. 23.).

\_\_\_\_\_. 2024. "FACT SHEET: Delivering on Our Commitments, 12th U.S.-ASEAN Summit in Vientiane, Lao PDR." (October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10/10/fact-sheet-delivering-on-our-commitments-12th-u-s-asean-summit-in-vientiane-lao-pdr/>(검색일: 2024. 10. 14.).

Tyler, Melissa Conley. 2022. "Has Southeast Asia warmed to AUKUS one year on."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September 13).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has-southeast-asia-warmed-aukus-one-year>(검색일: 2024. 10. 4.).

#### [온라인 자료]

대통령실. 2024.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10월 11일).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639](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639)(검색일: 2024. 10. 14.).

외교부. 2023.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 국영문 설명자료». (4월 11일). [https://mys.mofa.go.kr/www/brd/m\\_3924/view.do?seq=363570&page=1](https://mys.mofa.go.kr/www/brd/m_3924/view.do?seq=363570&page=1)(검색일: 2024. 7. 24.).
-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이슈 브리프』. (1월 24일). <https://www.asaninst.org/contents/%EC%8B%A0%EB%82%A8%EB%B0%A9%EC%A0%95%EC%B1%85%EC%9D%B4-%EC%95%84%EC%84%B8%EC%95%88%EC%97%90%EC%84%9C-%EC%84%B1%EA%B3%B5%ED%95%98%EB%A0%A4%EB%A9%B4/>(검색일: 2024. 10. 5.).
- \_\_\_\_\_. 2024. 「한국의 대 아세안 국방협력,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ADMM을 중심으로」. 『이슈 브리프』. (3월 8일).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95%9C%EA%B5%AD%EC%9D%98-%EB%8C%80-%EC%95%84%EC%84%B8%EC%95%88-%EA%B5%AD%EB%B0%A9%ED%98%91%EB%A0%A5-%EC%96%B4%EB%94%94%EC%84%9C-%EC%8B%9C%EC%9E%91%ED%95%98%EA%B3%A0-%EB%AC%B4%EC%97%87%EC%9D%84/>(검색일: 2024. 7. 2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ADIF(Korea-ASEAN Digital Innovation Flagship) 프로젝트」. <https://www.nipa.kr/home/bsnsAll/6/detail?bsnsDtIsIemNo=754>(검색일: 2024. 7. 29.).
- ADMM. “Past Meetings and Events (2006 - 2023).” <https://admm.asean.org/index.php/events/past-meetings-and-events.html>(검색일: 2024. 8. 30.).
- \_\_\_\_\_. 2024. “Past Meetings and Events (2006 - 2023).” <https://admm.asean.org/index.php/events/past-meetings-and-events.html>(검색일: 2024. 7. 22.).
- AKCF. 2022. “[Project] ASEAN-Korea Football Interpersonal Exchange and Leadership Development(FIELD) Programme.” (November 1). <https://www.aseanrofund.com/our-works/project-asean-korea-football-interpersonal-exchange-and-leadership-development-field-programme>(검색일: 2024. 7. 29.).
- \_\_\_\_\_. 2023. “[Project] Advancing ASEAN-Korean cooperation in Integrated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IMSWM)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 (June 1). <https://www.aseanrofund.com/our-works/project-advancing-asean-korean-cooperation-in-integrated-municipal-solid-waste-management-imswm-for-environmentally-sustainable-cities>(검색일: 2024. 7. 29.).

- \_\_\_\_\_. 2023. “[Project] Clean Air for Sustainable ASEAN (CASA).” (January 1). <https://www.aseanrofund.com/our-works/project-clean-air-for-sustainable-asean-casa>(검색일: 2024. 7. 29.).
- \_\_\_\_\_. 2023. “[Project]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n ASEAN Green Map.” (July 11). <https://www.aseanrofund.com/our-works/project-support-for-the-development-of-an-asean-green-map>(검색일: 2024. 7. 29.).
- \_\_\_\_\_. 2024. “[Project] ASEAN-Korea Cooperation on methane Mitigation.” (September 5). <https://www.aseanrofund.com/our-works/project-asean-korea-cooperation-on-methane-mitigation>(검색일: 2024. 10. 15.).
- \_\_\_\_\_. 2024. “AKCF Annual report 2023.” <https://www.aseanrofund.com/resources/asean-korea-cooperation-fund-akcf-annual-report-2023>(검색일: 2024. 10. 3.).
- Arizona State University. “U.S.-ASE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 (STIC) Program.” <https://goee.asu.edu/stic>(검색일: 2024. 6. 22.).
- ASEAN.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United States strategic partnership (2021-2025).”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7/ASEAN-US-Plan-of-Action-2021-2025-updated-with-Annex.pdf>(검색일: 2024. 6. 20.).
- \_\_\_\_\_. 2019.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June 23). <https://asean.org/speechandstatement/asean-outlook-on-the-indo-pacific/>(검색일: 2024. 8. 19.).
- \_\_\_\_\_. 2021. “ASEAN-U.S. Leaders’ Statement on Digital Development.” (October 26).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10/86.-ASEAN-U.S.-Leaders-Statement-on-Digital-Development.pdf>(검색일: 2024. 6. 23.).
- \_\_\_\_\_. 2022. “Joint Statement of the ASEAN-U.S. Ministerial Dialogue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September 29).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2/09/JOINT-STATEMENT-OF-THE-ASEAN-U.S.-MINISTERIAL-DIALOGUE-ON-GENDER-EQUALITY-AND-WOMEN-EMPOWERMENTADOPTED.pdf>(검색일: 2024. 6. 26.).

- \_\_\_\_\_. 2022. “US-ASEAN Business Council, USAID, ASEAN launch SME Academy 2.0 to support ASEAN Economic Recovery.” (April 8). <https://asean.org/us-asean-business-council-usaid-asean-launch-sme-academy-2-0-to-support-asean-economic-recovery/>(검색일: 2024. 6. 23.).
- \_\_\_\_\_. 2023. “ASEAN-Australia Joint Leaders’ Statement on Strengthening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Response to Crises.” (September 7).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ASEAN-Australia-Leaders-Statement-on-Strengthening-Food-Security-and-Nutrition\\_Final.pdf](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ASEAN-Australia-Leaders-Statement-on-Strengthening-Food-Security-and-Nutrition_Final.pdf)(검색일: 2024. 7. 7.).
- \_\_\_\_\_. 2023. “ASEAN-U.S. Ministerial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August 24).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8/Agenda-5b-Joint-Media-Statement-ASEAN-US-8.30.pdf>(검색일: 2024. 6. 23.).
- \_\_\_\_\_. 2023. “Chairman’s Statement of the 11th ASEAN-US Summit.” (September 9). <https://asean.org/chairmans-statement-of-the-11th-asean-us-summit/>(검색일: 2024. 6. 20.).
- \_\_\_\_\_. 2023. “Chairman’s Statement of the 3<sup>rd</sup> Annual ASEAN-Australia Summit.” (September 7).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FINAL-Chairmans-Statement-of-the-3rd-ASEAN-Australia-Summit.pdf>(검색일: 2024. 7. 4.).
- \_\_\_\_\_. 2024. “ASEAN, United States advanc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July 9). <https://asean.org/asean-united-states-advance-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검색일: 2024. 9. 26.).
- \_\_\_\_\_. 2024. “ASEAN-U.S. Leaders’ Statement on Promoting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11). <https://asean.org/asean-u-s-leaders-statement-on-promoting-safe-secure-and-trustworthy-artificial-intelligence/>(검색일: 2024. 10. 14.).
- \_\_\_\_\_. 2024. “Deepening Engagement Through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Celebrating Achievements of ASEAN-USAID IGNITE, PROSPECT, API Projects.” (February 7). <https://asean.org/deepening-engagement-through-collaboration-and-partnership-celebrating-achievements-of-asean-usaid-ignite-prospect-api-projects/>



(검색일: 2024. 9. 26.).

“ASEAN - US Electric Vehicle Workshop on Technical Standards.” 2023. (January 19). <https://www.ustda.gov/event/asean-u-s-electric-vehicle-workshop-on-technical-standards/>(검색일: 2024. 9. 27.).

ASEAN Briefing. 2020. “ASEAN Overtakes EU to Become China’s Top Trading Partner in Q1 2020.” <https://www.aseanbriefing.com/news/asean-overtakes-eu-become-chinas-top-trading-partner-q1-2020/>(검색일: 2024. 7. 26.).

ASEAN Charter.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images/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검색일: 2024. 7. 20.).

ASEAN FAW Action Plan. “Research Alliance on Bioprotection.” <https://www.aseanfawaction.org/researchalliance>(검색일: 2024. 7. 7.).

“ASEAN Regional Forum: List of Track 1 Activities (By Inter-Sessional Year from 1994 to 2024).” <https://aseanregionalforum.asean.org/wp-content/uploads/2024/10/List-of-ARF-Track-I-Activities-by-Inter-Sessional-Year-as-of-July-2024.pdf>(검색일: 2024. 8. 30.).

ASEAN Secretariat. “About ASEAN.” <https://asean.org/about-asean/>(검색일: 2024. 7. 20.).

\_\_\_\_\_. “External Relations.”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outward-looking-community/external-relations/>(검색일: 2024. 10. 20.).

\_\_\_\_\_.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Strategic Partnership (2020-2024), Updated with Annex.”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2/08/ASEAN-Australia-Plan-of-Action-2020-2024-FINAL-updated-with-Annex.pdf>(검색일: 2024. 7. 4.).

\_\_\_\_\_. 2012. “Joint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https://asean.org/joint-declaration-of-the-heads-of-state-government-of-the-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and-the-peoples-republic-of-china-on-strategic-partnership-for-peace-and-prosperity/>(검색일: 2024. 7. 20.).

\_\_\_\_\_. 2012. “MoU-ASEAN-China-on-NTS-2017-2023.”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2/05/MoU-ASEAN-China-on-NTS->

- 2017-2023.pdf(검색일: 2024. 7. 26.).
- \_\_\_\_\_. 2019.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0/12/Adopted-The-ASEAN-Digital-Integration-Framework-Action-Plan-DIFAP-2019-2025.pdf>(검색일: 2024. 6. 23.).
- \_\_\_\_\_. 2020. “ASEAN, ROK launch ASEAN Mobility training project.” (October 1). <https://asean.org/asean-rok-launch-asean-mobility-training-project/>(검색일: 2024. 7. 26.).
- \_\_\_\_\_. 2022.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2021 - 2025).” <https://asean.org/plan-of-action-to-implement-the-asean-china-strategic-partnership-for-peace-and-prosperity-2021-2025/>(검색일: 2024. 10. 15.).
- \_\_\_\_\_. 2023. “Aus4ASEAN Futures: Delivering Tangible and Meaningful Outcomes for ASEAN.” (December 14). <https://asean.org/aus4asean-futures-delivering-tangible-and-meaningful-outcomes-for-asean/>(검색일: 2024. 9. 30.).
- \_\_\_\_\_. 2024.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Post-2025 Strategic Plan Development highlights holistic stakeholder collaboration, partnership.” (May 31).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community-post-2025-strategic-plan-development-highlights-holistic-stakeholder-collaboration-partnership/>(검색일: 2024. 10. 15.).
- \_\_\_\_\_. 2024. “Development of ASCC Post-2025 Strategic Plan calls attention to strong cross-pillar response and coordination.” (September 24). <https://asean.org/development-of-ascc-post-2025-strategic-plan-calls-attention-to-strong-cross-pillar-response-and-coordination/>(검색일: 2024. 10. 15.).
- \_\_\_\_\_. 2024. “Joint Stat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4/10/6.-2024-Joint-Statement-on-the-Establishment-of-ASEAN-ROK-CSP\\_Final.pdf](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4/10/6.-2024-Joint-Statement-on-the-Establishment-of-ASEAN-ROK-CSP_Final.pdf)(검색일: 2024. 12. 16.).
- \_\_\_\_\_. 2024. “Overview of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4/06/Overview-of-ASEAN-China-CSP-12-June-2024.pdf>(검색일: 2024.

7. 20.).
- \_\_\_\_\_. 2024.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2029).” (July 26). <https://asean.org/plan-of-action-to-implement-the-asean-australia-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2025-2029/>(검색일: 2024. 8. 21.).
- ASEAN Secretariat Website. “Cooperation with Dialogue Partner.” <https://asean.org/our-communities/economic-community/asean-science-technology-and-innovation/cooperation-with-dialogue-partners/>(검색일: 2024. 9. 30.).
- \_\_\_\_\_. <https://asean.org/>(검색일: 2024. 9. 30.).
- ASEAN-Australia Counter-Trafficking. “Australia’s Response to TIP.” <https://www.aseanact.org/about/australias-response-to-tip/>(검색일: 2024. 7. 5.).
- \_\_\_\_\_. “History.” <https://www.aseanact.org/about/history/>(검색일: 2024. 7. 5.).
-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DTS) Initiative. “About Us.” <https://asean-au-dts.org/about/#fn1>(검색일: 2024. 7. 4.).
- ASEAN-China Centre. 2010. “First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opens.” [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0-10/12/c\\_13553521.htm](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0-10/12/c_13553521.htm)(검색일: 2024. 7. 26.).
- \_\_\_\_\_. 2011. “China-ASEAN Cooperation: 1991-2011.” [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1-11/16/c\\_131249656\\_2.htm](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1-11/16/c_131249656_2.htm)(검색일: 2024. 7. 20.).
- Aus4ASEAN. “Australia for ASEAN Futures.” <https://www.aus4aseanfutures.org/>(검색일: 2024. 7. 4.).
- Australian Aid. “The AANZFTA Implementation Support Programme: An Overview.” <https://aanzfta.asean.org/uploads/2023/08/AEM-CER%20Communication%20Package%20-%20AISP%20Overview%20-%20RT4D.pdf>(검색일: 2024. 7. 7.).
- Australian Government. “Partnership for Infrastructure(P4I).” <https://www.partnershipsforinfrastructure.org/>(검색일: 2024. 7. 7.).
- Australian Government-Defense. “Indo-Pacific Endeavour.” <https://www.defence.gov.au/defence-activities/operations/indo-pacific-opera>

- tions/indo-pacific-endeavour(검색일: 2024. 7. 4.).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24. “Outcome Summary Fact Sheet.” (March 6.) <https://aseanaustralia.pmc.gov.au/sites/default/files/resource/download/2024%20ASEAN-Australia-Special-Summit-Outcomes-Summary-Fact-sheet.pdf>(검색일: 2024. 9. 27.).
- Australian Government-Indo-Pacific Centre for Health Security. <https://indopacifichealthsecurity.dfat.gov.au/investments>(검색일: 2024. 7. 7.).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A Conversation with Marty Natalegawa.” (September 20). <https://www.cfr.org/event/conversations-marty-natalegawa-0>(검색일: 2024. 7. 21.).
- DAFF. “Combating IUU Fishing and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in Southeast Asia Program.” <https://www.agriculture.gov.au/agriculture-land/fisheries/iuu/combating-iuu-fishing-program>(검색일: 2024. 7. 5.).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Section 1263 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 <https://www.dsca.mil/section-1263-indo-pacific-maritime-security-initiative-msi>(검색일: 2024. 6. 22.).
-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24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 Outcomes Summary.” <https://aseanaustralia.pmc.gov.au/resources/outcomes-summary>(검색일: 2024. 7. 7.).
- DFAT. “2022-23 Sou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Progress Reporting.”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2022-23-southeast-asia-regional-development-program-progress-report.pdf>(검색일: 2024. 7. 5.).
- \_\_\_\_\_. “ASEAN 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II (AADCP II) Independent Review Report (IRR).” <https://www.dfat.gov.au/publications/publications/asean-australia-development-cooperation-program-phase-ii-aadc-ii-independent-review-report-and-management-response>(검색일: 2024. 9. 28.).
- \_\_\_\_\_. “ASEAN-Australia CSP.” [https://asean.mission.gov.au/aesn/CSP\\_02.html](https://asean.mission.gov.au/aesn/CSP_02.html)(검색일: 2024. 7. 4.).
- \_\_\_\_\_. “Southeast Asia.” <https://www.dfat.gov.au/geo/southeast-asia#>

- cyber-and-critical(검색일: 2024. 7. 5.).
- \_\_\_\_\_. 2018. “ASEAN-Australia Smart Cities Initiative.” <https://singapore.highcommission.gov.au/files/sing/20181411%20-%201.%20ASEAN%20Smart%20Cities%20-%20Fact%20sheet.pdf>(검색일: 2024. 7. 7.).
- DFAT and ADB. 2021. “ASEAN Australia Smart Cities Trust Fund.” [https://events.development.asia/system/files/materials/2021/05/202105-aasctf-introduction-flyer\\_1.pdf](https://events.development.asia/system/files/materials/2021/05/202105-aasctf-introduction-flyer_1.pdf)(검색일: 2024. 7. 7.).
- Ha Hoang Thi. 2023. “Why Is China’s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Well Received in Southeast Asia?” (March 3).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iseas-perspective/2023-9-why-is-chinas-global-development-initiative-well-received-in-southeast-asia-by-hoang-thi-ha/>(검색일: 2024. 7. 26.).
- Hu Xin. 2023. “Joining Hands with ASEAN Countries to Promote Cooperation and Governance in the South China Sea.” <http://www.scspi.org/en/dtfx/joining-hands-asean-countries-promote-cooperation-and-governance-south-china-sea>(검색일: 2024. 10. 1.).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3. “Remarks by under Secretary Lago.” (February 14). <https://www.trade.gov/feature-article/remarks-under-secretary-lago-february-14-2023>(검색일: 2024. 6. 26.).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3. “Future Design and Action Plan for Innovative and Sustainable ASEAN-Japan Economic Co-Creation 2023 - 2033.” (August 22). <https://www.meti.go.jp/press/2023/08/20230822005/20230823005-8.pdf>(검색일: 2024. 6. 19.).
- \_\_\_\_\_. 2023. “Japan’s Initiatives for Interoperable Data Infrastructures Officially Named “Ouranos Ecosystem.”” (April 29).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0429\\_001.html](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0429_001.html)(검색일: 2024. 6. 19.).
- \_\_\_\_\_. 2023. “Outcomes of the 16th ASEAN-Japan Cybersecurity Policy Meeting.” (October 6).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1006\\_003.html](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1006_003.html)(검색일: 2024. 6. 19.).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usted Partners.” (December 17). <https://www.mofa.go.jp/files/100597130.pdf>(검색일: 2024. 6. 1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Vision 2030."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8/11/ASEAN-China-Strategic-Partnership-Vision-2030.pdf>(검색일: 2024. 7. 26.).
- \_\_\_\_\_. 2023. "Progress Report on China's Efforts to Build a Peaceful, Safe and Secure, Prosperous, Beautiful and Amicable Homeland." [https://www.mfa.gov.cn/eng/wjb/zzjg\\_663340/yzs\\_663350/dqzzywt\\_663588/202406/t20240606\\_11382160.html](https://www.mfa.gov.cn/eng/wjb/zzjg_663340/yzs_663350/dqzzywt_663588/202406/t20240606_11382160.html)(검색일: 2024. 7. 26.).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2023. "Strategic Program for ASEAN Climate and Environment(SPACe)." (August 24). <https://www.env.go.jp/content/000159223.pdf>(검색일: 2024. 6. 19.).
-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3.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 (September 6). <https://www.pm.gov.au/media/southeast-asia-economic-strategy-2040>(검색일: 2024. 7. 7.).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et to strengthen Asian supply chains?" <https://www.eiu.com/n/rcep-set-to-strengthen-asian-supply-chains/>(검색일: 2024. 12. 18.).
- The State Council. 2022. "China remains ASEAN's largest trading partner." [https://english.www.gov.cn/statecouncil/ministries/202208/30/content\\_WS630d613bc6d0a757729df66f.html](https://english.www.gov.cn/statecouncil/ministries/202208/30/content_WS630d613bc6d0a757729df66f.html)(검색일: 2024. 7. 21.).
- U.S Department of Labor. "ALFA: Addressing Labor Exploitation in Fishing in ASEAN." <https://www.dol.gov/agencies/ilab/alfa-addressing-labor-exploitation-fishing-asean>(검색일: 2024. 6. 22.).
- U.S. Department of State. "Clean EDGE Asia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https://www.state.gov/clean-edge-asia/>(검색일: 2024. 6. 2.).
- \_\_\_\_\_. 2023. "Co-Chairs' Statement on the Fourth ASEAN-U.S. Cyber Policy Dialogue." (November 7). <https://www.state.gov/co-chairs-statement-on-the-fourth-asean-u-s-cyber-policy-dialogue/>(검색일: 2024. 6. 23.).
- \_\_\_\_\_. 2023. "Under Secretary Allen Opens the U.S.-ASEAN Center in Washington, D.C." (December 14). <https://www.state.gov/under-secretary-allen-opens-the-u-s-asean-center-in-washington-d-c/>

(검색일: 2024. 6. 22.).

U.S. EMBASSY & CONSULATES IN INDONESIA. “U.S.-ASEAN Special Summit: New Era in U.S.-ASEAN Relations.” <https://id.usembassy.gov/u-s-asean-special-summit-new-era-in-u-s-asean-relations/> (검색일: 2024. 6. 23.).

U.S. Mission to ASEAN. 2020. “U.S.-ASEAN Health Future.” (April 23). <https://asean.usmission.gov/u-s-asean-health-futures/>(검색일: 2024. 6. 26.).

\_\_\_\_\_. 2022.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April 2). <https://asean.usmission.gov/accelerating-digital-transformation/>(검색일: 2024. 6. 23.).

\_\_\_\_\_. 2022. “Fact Sheet: U.S.-ASEAN Special Summit.” (May 19). <https://asean.usmission.gov/fact-sheet-u-s-asean-special-summit-in-washington-dc/>(검색일: 2024. 6. 26.).

\_\_\_\_\_. 2024. “ASEAN Public Health Emergency Coordination System (APHECS).” (February 2). <https://asean.usmission.gov/asean-public-health-emergency-coordination-system-aphecs-driving-a-new-public-health-order-in-southeast-asia/>(검색일: 2024. 6. 24.).

\_\_\_\_\_. 2024. “Half the sky: Advancing Women’s Roles in Security and Sustainable Peacebuilding.” (February 2). <https://asean.usmission.gov/advancing-womens-roles-insecurity-and-sustainable-peace-building/>(검색일: 2024. 6. 26.).

\_\_\_\_\_. 2024.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Innovation, Trade and E-commerce.” (February 6). <https://asean.usmission.gov/ignite-inclusive-growth-in-asean-through-innovation-trade-and-e-commerce/>(검색일: 2024. 6. 22.).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Program Overview.” <https://www.usascp.org/wp-content/uploads/2023/10/USASCP-Program-Overview.pdf>(검색일: 2024. 6. 23.).

USAID. “Gender and Inclusive Development.” <https://www.usaid.gov/asia-regional/gender-and-inclusive-development>(검색일: 2024. 9. 30.).

\_\_\_\_\_. “USAID Southeast Asia Smart Power Program.” <https://www.usaid.gov/asia-regional/fact-sheets/usaid-southeast-asia-smart-power-program>(검색일: 2024. 6. 23.).

Zheng. 2024. "China's Digital Silk Road (DSR) in Southeast Asia: Progress and Challenges."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iseas-perspective/2024-1-chinas-digital-silk-road-dsr-in-southeast-asia-progress-and-challenges-by-wang-zheng/>(검색일: 2024. 7. 24.).

### [인터뷰 자료]

박민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인터뷰(2024. 8. 14., 서울).  
싱가포르 ISEAS Lee Sue Ann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고위급 관료 인터뷰(2024. 9. 2., 서울).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8.,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경제 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사회·문화 공동체부 문화정보국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정치·안보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2024. 9. 11.,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PCPMD(Programme Cooperation Projects Design and Management Division)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익명, 대화상대국 전 외교관 인터뷰(2024. 6. 24., 장소 익명).  
익명, 아세안 사무국 직원 인터뷰(2024. 7. 9., 자카르타).  
익명, 아세안 주재 외교관 인터뷰(2024. 7. 10., 자카르타).  
주아세안대표부 상무관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CSIS(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Andrew Mantong 연구원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Hoang Thi Ha ISEAS 아세안센터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Miyuki Ishikawa JMT 협력관 인터뷰(2024. 9. 11., 자카르타).  
RSIS Sarah Teo 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 [기타 자료]

ASEAN Think Tank Summit(ATTs) 참관 내용(2024. 9. 11., 자카르타).



부 록

K  
P  
E



부록 표. 아세안-CSP 대화상대국 협력 개괄

국가	관계 수립 연도	관계 격상 연도	아세안+1 정상회의	대표부 설치	TAC 기준	아세안+1 무역협정 체결 연도	대표 협력금 (억/금액)	참여하는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자국 내 ARF/ADMM+ 행사 주최 수 (2012~23년)	아세안 관련 설치기관 (연도)
미국	1977	SP(2015) CSP(2022)	2009년 정례화 자국 개최 (2016, 2022)	2010 (2008)*	2009	없음	RDCA (2021~25/ 5천만 USD)	ARF, EAS, ADMM+	ARF(7회) ADMM+(5회)	미-아세안센터(2023)
중국	1996	SP(2003) CSP(2021)	1997년 정례화 자국 개최 (2006, 2021 화상)	2012 (2008)*	2003	ACFTA (2002)	ACCF (비공개)**	ARF, APT, EAS, ADMM+, RCEP	ARF(34회) ADMM+(10회)	중-아세안센터(2011)
일본	1973	SP(2005) CSP(2023)	1997년 정례화 자국 개최 (2003, 2013, 2023)	2011 (2010)*	2004	AJCEP (2008)	JAIIF 3.0 (1억 달러, 타입 방식)	ARF, APT, EAS, ADMM+, RCEP	ARF(14회) ADMM+(5회)	일-아세안센터(1981)
호주	1974	SP(2014) CSP(2021)	1997년 정례화 자국 개최 (2018, 2024)	2013 (2008)*	2005	AANZFTA (2009)	Aus4ASEAN Futures (2022~32/ 2억 4백만 AUD)	ARF, EAS, ADMM+, RCEP	ARF(5회) ADMM+(12회)	호-아세안 카운실 (2015) 호-아세안 센터 (2024)
인도	1995	SP(2012) CSP(2022)	2002년 정례화 자국 개최 (2012, 2018)	2015 (2014)*	2003	AIFTA (2010)	AISTDF (5백만 달러, 기간 불특정)	ARF, EAS, ADMM+	ARF(4회) ADMM+(4회)	인도-아세안센터(2012)
한국	1989	SP(2010) CSP(2024)	1997년 정례화 자국 개최 (2009, 2014, 2019)	2012	2004	AKFTA (2006)	AKCF (2024년/ 2,800만 달러)	ARF, APT, EAS, ADMM+, RCEP	ARF(7회) ADMM+(4회)	한-아세안센터(2009) 아세안문화원(2014)

주: \* 아세안 대사 파견.

\*\* 2010년 100억 달러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자료: ASEAN Secretariat Website, "Cooperation with Dialogue Partner"(검색일: 2024. 9. 30.)의 각국 협력 문서 아카이브; ASEAN Regional Forum, "ASEAN Regional Forum: List of Track 1 Activities (By Inter-Sessional Year from 1994 to 2024)"(검색일: 2024. 8. 30.); ADMM, "Past Meetings and Events (2006 - 2023)"(검색일: 2024. 8. 3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부록. 설문조사 설문지

### Respondents' Profile

Q1. What is your nationality? Please choose one among these 10 ASEAN Member States(AMS).

1. Brunei Darussalam
2. Cambodia
3. Indonesia
4. Lao PDR
5. Malaysia
6. Myanmar
7. The Philippines
8. Singapore
9. Thailand
10. Vietnam

Q2. What is your sector of work?

1. Government
2. Academica
3. Think-Tanks/Research Institutions
4.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5. Civil Society
6. Media or Communication
7. Others: (Please specify \_\_\_\_\_)

### ASEAN's Perceptions of its Dialogue Partnership

The following set of questions aims to gauge your views on the role of dialogue partners in advancing ASEAN's interests. This section is designed to identify ASEAN's expectations in pursuing dialogue partnerships and identify areas where cooperation from dialogue

partners is most needed. Your responses will provide key insights into how well dialogue partners are meeting ASEAN's needs.

The ASEAN Charter mandates ASEAN to conduct external relations with extra-regional partners. In so doing, ASEAN builds different types of partnerships. The ultimate type of partnership is ASEAN Dialogue Partners which currently encompass eleven states and regional organizations (Australia, Canada, China, European Union, India,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Russian Federation, United Kingdom in alphabetical order).

Q3. Besides respecting ASEAN Centrality and supporting ASEAN-led mechanisms, what are the top three most important actions taken by Dialogue Partners that will be highly valued?

- 1) Establish strong and beneficial economic ties with ASEAN
- 2) Promote and facilit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3) Closely align with ASEAN norms and values
- 4) Advocate green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5) Provide vit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ASEAN's community-building
- 6) Foster extensive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 7) Facilitate and accelerate ASEAN connectivity and digitalization

Q4. In your view, which diplomatic engagement strategies are most effective for dialogue partners in fostering cooperation with ASEAN? Please rank the top *three* approaches that you believe are most appreciated by ASEAN.

- 1) Deploying sufficient numbers of competent officials and diplomatic staff for ASEAN
- 2) Establish a dedicated agency or funds for ASEAN cooperation
- 3) Implement foreign policies specifically aimed at ASEAN
- 4) Launch programs targeting ASEAN's needs and priorities

- 5) Increase development assistance for ASEAN member countries
- 6) Engage actively with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 7) Help ASEAN build long-term plan and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a plan of action or work plan

Q5. Within the following areas of cooperation, which ones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areas of cooperation that ASEAN needs to focus on nowadays?

- 1) Maritime cooperation
- 2) Cybersecurity and digitalization
- 3)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onnectivity
- 4) Energy security and energy transition
- 5) Food security
- 6) Public health
- 7)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 8)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 9) Addressing terrorism and other transnational crimes
- 1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Q6. Based on your response to question Q5, which are three top ASEAN Dialogue Partners that have done well to help ASEAN in enhancing cooperation in respective areas?

[Choose three countries in order from the most to least important areas of cooperation]

- 1) Australia
- 2) Canada
- 3) China
- 4) European Union
- 5) India
- 6) Japan
- 7) South Korea

- 8) New Zealand
- 9) Russian Federation
- 10) United Kingdom
- 11) United States

Q7. I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mong your top three, please indicate its ranking compared to other ASEAN Dialogue Partners.

1. 4th
2. 5th
3. 6th
4. 7th
5. 8th
6. 9th
7. 10th
8. 11th

Q8. Within these following regional issues, choose the three most urgent problems that ASEAN needs to focus on nowadays.

- 1) South China Sea dispute
- 2)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 3)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 4) Great power competition
- 5) Digital transformation
- 6) Supply chain disruption and security
- 7) Inequality and the future of jobs
- 8) Myanmar crisis
- 9) Climate change
- 10) Terrorism, radicalism and violent extremism

Q9. Based on your response to question Q5, which are three top ASEAN Dialogue Partners that have done well to help ASEAN in enhancing cooperation in respective areas?

[Choose three countries in order from the most to least important areas of cooperation]

- 1) Australia
- 2) Canada
- 3) China
- 4) European Union
- 5) India
- 6) Japan
- 7) South Korea
- 8) New Zealand
- 9) Russian Federation
- 10) United Kingdom
- 11) United States

Q10. I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mong your top three, please indicate its ranking compared to other ASEAN Dialogue Partners.

1. 4th
2. 5th
3. 6th
4. 7th
5. 8th
6. 9th
7. 10th
8. 11th

Q11. If you believe that dialogue partners have a role in implementing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AOIP), what should their role be in assis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OIP?

- 1) Provide expertise to define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achieving AOIP goals
- 2) Establish joint committees with ASEAN for collaboration
- 3) Finance ASEAN-led projects supporting AOIP

- 4) Lead flagship projects that meet AOIP goals.
- 5) Promote policy harmonization across ASEAN
- 6) No assistance is required from dialogue partners.

Q12. Which are top three ASEAN dialogue partners' whose approach or reaction to Indo-Pacific discourse – both on explicit and implicit terms – most converge with the ASEAN Outlook on Indo-Pacific?

*Note: Explicit means the Partners have specific documents, strategies, work plans, or guideline on Indo-Pacific. Meanwhile, implicit means that the Partners have no specific document, but their foreign policy agenda mentions about Indo-Pacific*

- 1) Australia
- 2) Canada
- 3) China
- 4) European Union
- 5) India
- 6) Japan
- 7) South Korea
- 8) New Zealand
- 9) Russian Federation
- 10) United Kingdom
- 11) United States
- 12) I don't know

Q13. Which ASEAN Dialogue Partners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reliable for promoting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Please choose up to five countries in order of preference (1 being most reliable, and 5 being least)

1. Australia
2. Canada
3. China



4. European Union
5. India
6. Japan
7. South Korea
8. New Zealand
9. Russian Federation
10. United Kingdom
11. United States

#### ASEAN's Evaluation and Expectations Regarding ASEAN-ROK Relations

The following set of questions is designed to collect your views on ASEAN-ROK relations. Your responses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areas where the Republic of Korea can enhance its partnership with ASEAN.

Q14. How familiar are you with ASEAN-ROK cooperation?

- 1) Very familiar
- 2) Moderately familiar
- 3) Somewhat familiar
- 4) Slightly familiar
- 5) Not at all

Q15. How do you evaluate ROK's reliability as a dialogue partner?

- 1) Highly reliable
- 2) Moderately reliable
- 3) Slightly reliable
- 4) Not reliable
- 5) I don't know

Q16. How do you evaluate the Republic of Korea's overall effectiveness as a dialogue partner?

- 1) Highly Effective
- 2) Moderately effective
- 3) Slightly effective
- 4) Not effective
- 5) I don't know

Q17. In your opinion, what is the key advantage of ROK as a dialogue partner for ASEAN? Please select up to three options.

- 1) ROK avoids engaging in strategic power competition.
- 2) ROK is a model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 3) ROK provides reliable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 4) ROK supports a multilateral regional order.
- 5) ROK fosters active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 6) Others (specify \_\_\_\_\_)

Q18. In your opinion, what is the key disadvantage of ROK as a dialogue partner for ASEAN? Please select up to three options.

- 1) ROK has less strategic interest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 2) ROK overly focuses on economic issues
- 3) ROK is overly cautious in its involvement with regional security issues.
- 4) ROK's policy towards ASEAN is inconsistent
- 5) ROK's development assistance is limited compared to that of larger donors
- 6) ROK prioritize bilateral relations with AMS over ASEAN-wide initiatives
- 7) Others (specify)

Q19. Do you think ROK's policy towards ASEAN will be sustainable?

1. Yes
2. No
3. Uncertain

Q20. If you answered no or uncertain which factor contributes most to this view? Please select up to three options

- 1) Shifts in ROK's foreign policy priorities due to domestic political landscape
- 2) Economic uncertainty affecting ROK's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 3) Limited visibility of ROK's initiatives in ASEAN
- 4) Perception of ROK prioritizing bilateral over ASEAN-wide initiatives
- 5) ROK's alignment with US(focus on trilateral ROK-US-Japan partnership)
- 6) Inconsistent engagement and follow-through by ROK
- 7) Perceived lack of depth in ROK's regional expertise
- 8) A perceived lack of reciprocal interest from ASEAN countries

Q21. Do you think ROK's policy towards ASEAN has strengthened over the past 5 years?

- 1) Significantly strengthened
- 2) Moderately strengthened
- 3) Slightly strengthened
- 4) No change
- 5) I don't know

Q22. (For those who choose 1~3) If you believe ROK's policy towards ASEAN has strengthened over the past five years, which factor has contributed most to this improvement? *Please select up to three options.*

- 1) Implemented ASEAN-focused policies like the New Southern Policy (NSP) and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 2) More frequent and higher-level diplomatic exchanges
- 3) Increased ODA and ASEAN-specific funding
- 4)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 5) Expanded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 6) Increased strategic dialogue and security initiatives
- 7) Enhanced commitment to ASEAN centrality

Q23. In 202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was US\$ 12,546.9 million, and Korea was ASEAN's 5th largest investor.

These figures are:

- 1) Much larger/higher than my prior knowledge
- 2) Similar to my prior knowledge
- 3) Much smaller/lower than my prior knowledge

Q24. In 2022, Korea's trade with ASEAN was US\$ 222.8 billion, and Korea was ASEAN's 5th largest trading partner. These figures are:

*\* Note: "Trade" here refers specifically to the trade of goods.*

- 1) Much larger/higher than my prior knowledge
- 2) Similar to my prior knowledge
- 3) Much smaller/lower than my prior knowledge

Q25. In 2022,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ASEAN was US\$ 623.9 million, and Korea was ASEAN's 4th largest donor country among DAC members. These figures are:

- 1) Much larger/higher than my prior knowledge
- 2) Similar to my prior knowledge
- 3) Much smaller/lower than my prior knowledge

Q26. If you perceive that the visibility of the ROK's ODA is lower than its actual size,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for this discrepancy?

- 1) Ineffective public engagement and insufficient media coverage of its contribution
- 2) Few flagship projects that significantly highlight ROK's contributions
- 3) Larger donors overshadow ASEAN's recognition of ROK's contributions
- 4) ROK's development assistance is often obscured within larger multilateral efforts
- 5) The geographical focus of ROK's assistance doesn't match ASEAN's most urgent needs
- 6) Others (Please specify)

Q27. In which areas of cooperation Korea is considered most active? You can choose up to top five areas of cooperation.

1. Trade & Investment
2. ICT & Digital Economy
3. Infrastructure Development
4. Food, Agriculture & Forestry
5. Environment & Climate Change
6.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7. Disaster Management
8. Health
9. Energy & Critical Minerals
10. Education & Capacity Building
11. Culture
12. Maritime Security
13. Combatting Transnational Crimes

Q28. In your opinion, what could be future benefits that ROK can expect out of the closer partnership with ASEAN? Please select up to three options.

1. Reliable partner to hedge against uncertainty caused by great power rivalry
2. Increased political support for Korea in international forums
3. Participation in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efforts
4. Enhanced market access for Korean businesses
5. Opportunities for Korean investments in ASEAN countries
6. Development of regional supply chains benefiting Korean industries
7. Increased socio-cultural exchanges between ROK and ASEAN
8. Others (Specify)

## **Advancing ASEAN–ROK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CSP): Insights from ASEAN’s Dialogue Partnership Mechanism**

Ina Choi, Kyunghoon Kim, Ki Hyun Bae, Jaeho Lee, and Soeun Kim

As major countries compete to deepen ties with ASEAN, the ASEAN Plus One (ASEAN+1) cooperation mechanism is poised to gain further momentum. In 2021, Australia and China establishe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s (CSPs) with ASEAN, followed by the U.S. and India upgrading their relationships to CSPs in 2022, with Japan following suit in 2023. In 2024, South Korea also formalized a CSP with ASEAN, marking the 35th anniversary of the ASEAN-ROK dialogue partnership. Amid mounting challenges to ASEAN centrality arising from U.S.-China rivalry, ASEAN is likely to leverage the ASEAN+1 mechanism to attract greater engagement and cooperation from dialogue partners across the Southeast Asian reg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ASEAN’s dialogue partnership mechanisms and evaluate South Korea’s role within this framework.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dialogue partners’ cooperation initiatives and a perception survey of ASEAN experts regarding the ASEAN-ROK partnership, this study seeks to provide insights into enhancing South Korea’s engagement with ASEAN.

Chapter 2 explores how ASEAN manages its relationships with dialogue partners, highlighting the strategic objectives of its dialogue partnership mechanisms and their integration into ASEAN's broader external relations strategy. The findings underscore ASEAN's efforts to establish unified guidelines for managing dialogue partner relationships and apply them consistently across all partners. ASEAN develops cooperation agendas tailored to its specific needs and ensures that dialogue partners adhere to protocols established by ASEAN during negotiations. For ASEAN, the ASEAN+1 mechanism is prioritized not only for its efficiency but also as a means of safeguarding ASEAN's central role in the region. It also serves as a tool to maintain a dynamic equilibrium, preventing any single dialogue partner from gaining excessive influence. These characteristics provide a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ASEAN-led regional multilateralism functions and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SPs established with ASEAN. In addition, ASEAN emphasizes openness - avoiding exclusion or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partners - as a core value in its dialogue partnership. It also requires dialogue partners to adhere to its self-defined procedural and substantive norms, collectively known as the "ASEAN Way." These cooperation mechanisms reflect ASEAN's dual objectives of preserving its centrality and maintaining autonomy in its external engagements.

Building on ASEAN's emerging cooperation needs, Chapter 3 examines how ASEAN's major partners advance their ASEAN+1 cooperation under the CSP framework. The analysis focuses on the U.S. and Australia's tendency to prioritize ASEAN's institutional capacity for community development. Both countries also focus on deepening collaboration in specific, targeted areas rather than pursuing broad, wide-ranging initiatives. In contrast, China chan-

nels substantial financial investments into fostering cooperation that directly serves its economic interests while carefully managing security issues with ASEAN. Japan adopts a blended approach, integrating elements of the U.S., Australian, and Chinese strategies. It supports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ASEAN's community-building efforts and provides significant financial assistance, while distinguishing itself from China by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South Korea primarily directs its efforts toward economic cooperation but allocates fewer financial resources than China or Japan. Its initiatives are largely concentrated on bilateral projects that highlight its contributions, with less emphasis on strengthening ASEAN's institutional capacity. Unlike the U.S. and Australia, which prioritize resource efficiency through targeted initiatives, South Korea takes a broader approach, engaging across multiple fields. While this approach showcases versatility, the lack of signature projects or standout initiatives that distinctly elevate South Korea's visibility diminishes its overall impact.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a more strateg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ASEAN-ROK cooper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Chapter 4 presents the results of a survey of ASEAN experts on dialogue partnerships and ASEAN-ROK relations, along with their key implications. The survey reveals that ASEAN places the highest valu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favors dialogue partners that implement programs aligned with its priorities. Japan (27.9%), Australia (17.8%), the U.S. (16.2%), China (10.3%), and South Korea (9.0%) were ranked as the most reliable partners for promoting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While South Korea's position behind Japan, the U.S., and China aligns with its relative economic scale and influence, its lower ranking compared to Australia—a fellow middle power with smaller financial contributions to ASEAN—



highlights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South Korea could gain valuable insights from Australia's cooperation model to maximize its impact and recognition across ASEAN. Meanwhile, South Korea's strengths as a dialogue partner are most evident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54.3% of survey respondents highlighting this area. However, respondents identified a "lack of strategic interest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overly cautious approaches to regional security issues" as key weaknesses, highlighting limitations in South Korea's perceived reliability as a political-security partner. The top five most active areas of South Korea's cooperation were recognized as trade and investment (19.6%), culture (15.4%),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15.2%),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15.0%), and ICT and the digital economy (14.7%). These areas represent the fields where South Korea has actively focused its cooperation with ASEAN, garnering positive evaluations for its contributions to economic collaboration, cultural soft power, technological innov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ort for digit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Chapters 2-4, Chapter 5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o advance the CSP with ASEAN. First, South Korea should make greater efforts to work closely with the ASEAN Secretariat and support its capacity-building efforts in community-building. While the U.S., Australia, and Japan actively seek to incorporate input from ASEAN officials when identifying cooperative projects, South Korea has tended to propose its own initiatives aligned with ASEAN's specific needs. Although these projects do address ASEAN's priorities and are often practical and efficient in execution, this approach could lessen ASEAN's sense of ownership over the initiatives. This perception may lead to South Korea being viewed more as a partner focused

on delivering outcomes, rather than one genuinely dedicated to working collaboratively with ASEAN in planning cooperation projects. To address this, South Korea should actively collaborate with the ASEAN Secretariat to ensure its input is reflected in the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 projects.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the ASEAN Secretariat will also help South Korea better identify ASEAN's most pressing needs. Additionally, prioritizing support for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capacity-building within the ASEAN Secretariat will strengthen ASEAN's ability to drive its community-building efforts effectively. These measures will not only enhance ASEAN's ownership of cooperation projects but also elevate South Korea's standing as a key and trusted partner in the region.

Second, in formulating a new plan of action (POA 2026-2030) for the ASEAN-ROK CSP, South Korea should focus on developing a strategic framework that aligns with ASEAN's needs while capitalizing on Korea's competitive strengths, rather than simply expanding the number of projects across various fields. Limited resources should be concentrated on signature areas of cooperation where South Korea can make the most impactful contributions. Promising areas include digital trans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cybersecurity. Furthermore, South Korea should identify niche areas with high ASEAN demand and minimal involvement from other dialogue partners. An effective strategy could involve enhancing support for integrating and creating synergies across cross-cutting issues within ASEAN's three communities. This approach would greatly enhance ASEAN's ability to address complex, multifaceted challenges in a cohesive and effective manner.

Third, to deepen the CSP relationship, South Korea must estab-

lish itself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by building trust and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ASEAN's broader priorities. Achieving this requires consistency and continuity in ASEAN policies, as well as strengthened institutional mechanisms through enhanced high-level and working-level consultations. Regular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summit and ministerial outcomes is also critical. Additionally, South Korea should expand its engagement in the security sector, where its presence is perceived as weakest among ASEAN's three communities. South Korea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ASEAN-led multilateral platforms, by taking the lead on specific agendas where it has expertise, including transnational crime, cybersecurity and defense industry.

---

## 〈책임〉

### 최인아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정치학 박사  
前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 연구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現, E-mail: iachoi@kiep.go.kr)

#### 저서 및 논문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공저, 2023)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공저, 2023) 외

---

## 〈공동〉

### 김경훈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경제학·경영학 학사  
영국 LSE, 개발정치경제학 석사  
영국 King's College London, 개발정치경제학 박사  
前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impolecon@kiep.go.kr)

#### 저서 및 논문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공저, 2023)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공저, 2023) 외

---

## 배기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現, E-mail: khbae@sogang.ac.kr)

### 저서 및 논문

“Enduring Hypocrisy as an ASEAN’s Organisational Problem?”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43(1) (2024)

“Regionalizing Development Cooperation? Examining Intra-ASEAN Regionalism via IAI,” *Global Governance* 28(1): 103-124 (2022) 외

---

## 이재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박사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jhlee@kiep.go.kr)

### 저서 및 논문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공저, 2023)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공저, 2024) 외

---

## 김소은

한동대학교 경영학 학사  
영국 University of Sussex Globalisaion, Business and Development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kse@kiep.go.kr)

### 저서 및 논문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공저, 2023)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공저, 2023) 외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4년
  - 24-01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 장영욱 · 이철원 · 강부균 · 김초룡
  - 24-02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 김경훈 · 김도연 · 김소은 · 남유진 · 백종훈
  - 24-03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 강문수 · 유광호 · 이지은 · 김영선 · 이다운
  - 24-04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자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김은미 · 장한별
  - 24-05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 윤상하 · 김성환 · 최홍석 · 송예나 · 백인길, 오준석
  - 24-06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연구 / 조성훈 · 한형민 · 최원석 · 홍진희 · 윤행준 · 최재희 · 김현정
  - 24-07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윤상하 · 윤정은 · 조성훈 · 이지윤 · 백예인 · 손녕선
  - 24-08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 이천기 · 박혜리 · 오태현 · 이주형
  - 24-09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김승현 · 손원주
  - 24-10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 홍성우 · 김성환 · 김진오 · 강준구 · 박미숙 · 박진희 · 김승현
  - 24-11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허재철 · 정지현 · 김효상 · 김홍원 · 이한나 · 최지원 · 최재희
  - 24-1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 장영욱 · 한형민 · 오태현 · 윤행준
  - 24-13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석 · 주재우 · 신민이 · 김제국
  - 24-14 ODA 평가의 활용 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 이은석 · 오지영 · 정지선 · 유애라 · 이에림

- 24-15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파급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최홍석 · 송새람 · 한원태 · 김준형 · 이용대
- 24-16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 문지영 · 나수엽 · 박민숙 · 오종혁 · 김홍원 · 문익준
- 24-17 디지털콘텐츠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강준구 · 금혜윤 · 심경보
- 24-18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 분석 / 정형곤 · 김혁중 · 김정현 · 최진백
- 24-19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 최인아 · 김경훈 · 배기현 · 이재호 · 김소은
- 24-20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 김혁중 · 강구상 · 홍성우 · 김종혁 · 민보람 · 김용기
- 24-2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 정민현 · 김경민 · 김혁황 · 정동연 · 김원기
- 24-22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이희선
- 24-23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 · 김혁황 · 엄준현 · 신은철 · 이진혁
- 24-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 노윤재 · 김경훈 · 김민희 · 남유진 · 박지원
- 24-25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 한선이 · 조성훈 · 김예진 · 김주혜 · 서상현
- 24-26 복합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 윤정환 · 장영욱 · 오지영 · 김윤정 · 윤혜민 · 박소정
- 24-27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연지흠 · 정민철 · 류기락
- 24-28 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 이승신 · 최원석 · 나수엽 · 김영선 · 서봉교
- 24-29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 이주관 · 조문희 · 박지현 · 박혜리 · 김민성
- 24-30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 예상준 · 정원혁 · 오종혁 · 엄준현 · 이대은 · 연원호

■ 2023년

- 24-3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비전 2050 /  
허재철 · 정성춘 · 김규판 · 오수현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김승현 · 손열 · 전재성 · 한준 · 이정환 · 임은정 · 백서인 · 박지수
- 23-01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곽성일 · 신민금 · 김제국 · 장용준 · 최보영
- 23-02 인도태평양 시대 한 · 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김정곤 · 김경훈 · 백종훈 · 남유진 · 조원득
- 23-03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  
조동희 · 문성만 · 윤여준
- 23-04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  
한선이 · 김예진 · 박규태 · 정민지
- 23-05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장구상 · 김혁중 · 김종혁 · 권혁주 · 성원
- 23-06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23-07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  
한형민 · 노윤재 · 김도연 · 백종훈 · 김소은
- 23-0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  
장영욱 · 김윤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임유진 · 김초롱 · 전혜  
원
- 23-09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  
최원석 · 한형민 · 조성훈 · 홍진희 · 윤형준 · 차정미
- 23-10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 · 일 간 협력방안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손원주
- 23-1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최유정
- 23-12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  
정지원 · 정지선 · 송지혜 · 유애라 · 박소정 · 김지현 · 김은주
- 23-13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효상 · 송예나 · 김경훈 · 고덕기 · 임희동
- 23-14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이주관 · 이천기 · 박지현 · 박혜리 · 김민성



- 23-15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  
오지영 · 이은석 · 유애라 · 박차미 · 이예림
- 23-16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 · 김진오 · 강준구 · 박미숙 · 이승호
- 23-17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  
황의식 · 서진교 · 강형준 · 표유리 · 우가영
- 23-18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 강문수 · 손성현 · 유광호 · 이지은 · 한새롬
- 23-19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 정민현 · 강부균 · 민지영 · 김원기
- 23-20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  
김혁중 · 오종혁 · 권혁주
- 23-21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예상준 · 엄준현 · 이승래 · 정연하
- 23-22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구경현 · 강구상 · 김혁황
- 23-23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한원태 · 김효상 · 송새랑 · 김준형
- 23-24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  
백예인 · 윤상하 · 김현학 · 이지윤
- 23-25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김영귀 · 이규엽 · 강민지
- 23-26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박지원 · 노윤재 · 조성훈 · 나승권
- 23-27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  
장영욱 · 이철원 · 나수엽 · 이현진 · 임유진
- 23-28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  
정지현 · 허재철 · 김홍원 · 이한나 · 박병광 · 정현욱
- 23-29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  
박인휘 · 최용섭 · 이효원 · 이왕휘 · 정한범 · 정성철 · 최경준
- 23-30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김현수 · 예상준 · 강민지

- 23-31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허재철 · 김주혜 · 최재희 · 최지원 · 김성해 · 김승수
- 23-32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  
이승신 · 최원석 · 문지영 · 나수엽 · 오종혁
- 23-33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  
최인아 · 오지영 · 김영선 · 김소은 · 장한별
- 23-34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  
라미령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23-35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  
김윤정 · 이철원 · 오태현 · 김초롱 · 강유덕
- 23-36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  
문지영 · 강문수 · 박민숙 · 김영선 · 정민지
- 23-37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  
정덕구 · 강준영 · 장영희 · 변정아 · 유다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 회원*
S	외부 배포 발간물 일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8만 원		4만 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 원		4만 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일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es 24-19



# Advancing ASEAN-ROK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CSP): Insights from ASEAN's Dialogue Partnership Mechanism

Ina Choi, Kyunghoon Kim, Ki Hyun Bae, Jaeho Lee, and Soeun Kim

한국은 2024년 한-아세안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과 주요국의 CSP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 대외관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9 788932 219189

ISBN 978-89-322-1918-9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